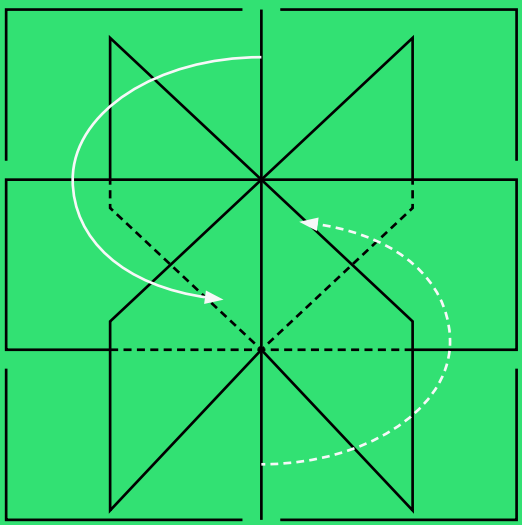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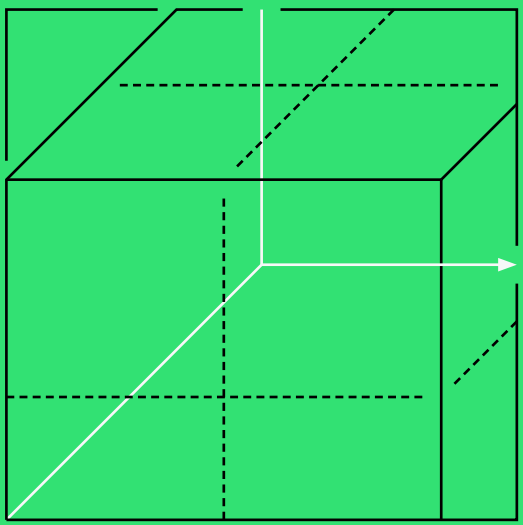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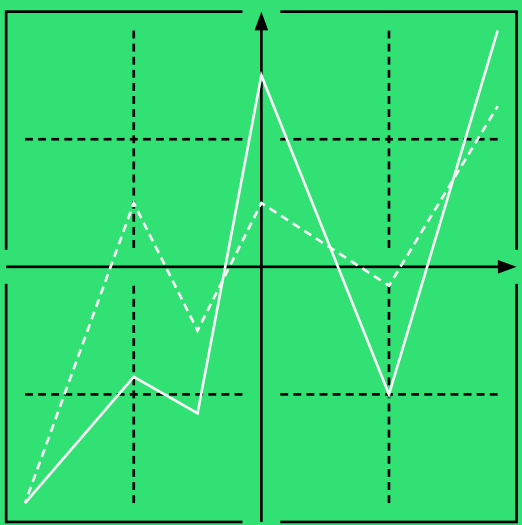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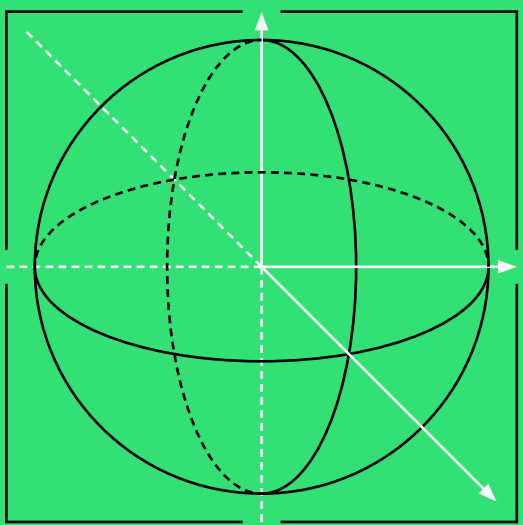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읽기

서울 지역현장 문화예술공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읽기

서울 지역현장 문화예술공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이 책은 서울문화재단 2019년
‹서울 지역현장 문화예술공간의
실태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읽기

서울 지역현장 문화예술공간의 실태에 관한 연구

목차

연구요약 7

Ⅰ 연구개요 17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9
2 연구목적과 방법 21
3 연구방법과 연구진 구성 22
4 연구과정 23

Ⅱ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접근 27
1 현대사회와 문화예술공간 29
2 시설에서 공간으로의 전환 34
3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이해 39

Ⅲ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 45
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의 접근방법 47
2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 54

Ⅳ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분석 63
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진단의 관점 65
2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내용적 분석 67

Ⅴ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연구의 의미와 과제 81
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진단의 관점 83
2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의 과제 85

참고문헌 87

부록 89
1 연구 에필로그 92
2 공간 운영자 라운드테이블 녹취록 102
3 2019 서울 지역현장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서 246

표 목차

‹표Ⅰ-1› 공간 선정 기준 23
‹표Ⅰ-2› 연구 대상 공간 23
‹표Ⅱ-1› 서울지역 공공 문화예술공간의 현황 48
‹표Ⅱ-2› 2012년 이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50
‹표Ⅱ-3› 2차 대상 공간 선정현황 52
‹표Ⅱ-4› 최종 연구대상 선정기준 52
‹표Ⅱ-5›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 기본 개요 52
‹표Ⅱ-6›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의 내용 53
‹표Ⅱ-7› 실태조사 참여 현황 53
‹표Ⅲ-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분석을 위한 기본관점 66
‹표Ⅲ-2› 공간 운영자 FGI 개요 66
‹표Ⅲ-3›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자기 정체성 유형 68
‹표Ⅲ-4›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 결과 운영자의 직업군 71
‹표Ⅳ-1› 문화예술공간에 관한 후속 연구과제 85

그림 목차

‹그림Ⅰ-1› 연구의 관점 21
‹그림Ⅰ-2› 공간운영자 라운드테이블 현장 25
‹그림Ⅰ-3› 연구 추진 과정 25
‹그림Ⅱ-1› 현대사회를 변화시키는 동인과 현상 29
‹그림Ⅱ-2› 사회 변화에 따라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 30
‹그림Ⅱ-3› 사회변화에 대한 문화적 접근 방식 31
‹그림Ⅱ-4› 우리나라의 문화정책과 문화공간 36
‹그림Ⅱ-5› 생활문화센터의 마주침 공간에 대한 가이드 37
‹그림Ⅱ-6› 르페브르가 주장한 공간 생산의 3가지 유형(모멘트) 42
‹그림Ⅲ-1› 서울문화재단 운영 문화예술공간의 현황 49
‹그림Ⅲ-2› 실태조사 대상 공간 자치구별 분포 54
‹그림Ⅲ-3› 공간 조성 시기(단위: 개소) 55
‹그림Ⅲ-4› 공간 규모(단위: 평방미터) 55
‹그림Ⅲ-5› 공간 소유 형태 55
‹그림Ⅲ-6› 공간 임대료 55
‹그림Ⅲ-7› 공간 운영비 조달 방식 56
‹그림Ⅲ-8› 공간 운영비 중 자체수익사업의 비중 56
‹그림Ⅲ-9› 공간 구성 57
‹그림Ⅲ-10› 공간 운영의 목적 57
‹그림Ⅲ-11› 공간 운영위원회 여부 58
‹그림Ⅲ-12› 공간 운영위원회 직업군 58
‹그림Ⅲ-13› 주요 프로그램 영역 59
‹그림Ⅲ-14› 프로그램 기획 방식 59
‹그림Ⅲ-15› 프로그램 기대효과 59
‹그림Ⅲ-16› 공간 이용자 연령층 60
‹그림Ⅲ-17› 공간 이용자 지역분포 60
‹그림Ⅲ-18› 주체가 생각하는 공간의 비전 61
‹그림Ⅲ-19› 공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소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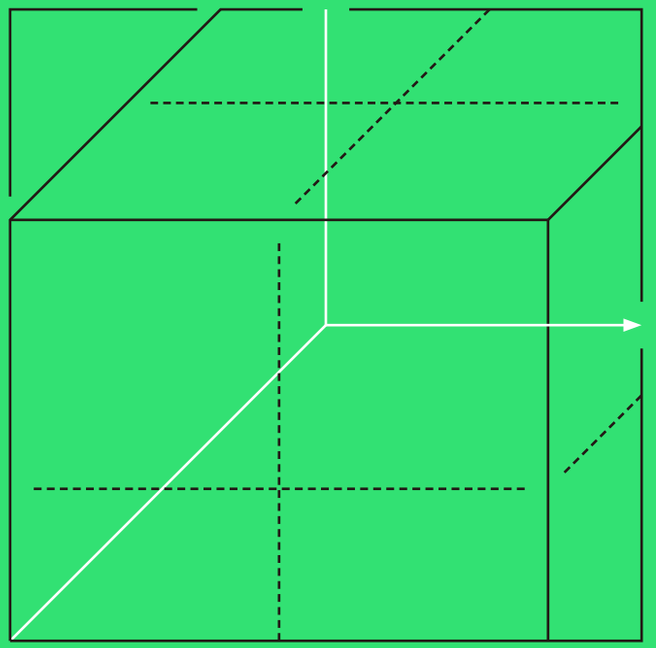
연구요약

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접근

2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

3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분석

4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연구의 의미와 과제



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접근

1) 현대사회와 문화예술공간

■ 우리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전환

— 오늘날 기술의 혁신이 가속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자본주의적 소비사회에 포획된 소비자임과 동시에 소비를 조직하는 주체이기도 함.

— 우리사회는 현재의 사회적 변화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에는 문화적 수용성으로서의 다양성(Diversity), 다양성을 아우르는 상호소통(Interaction), 경계를 넘는 통합(Hybrid)이 요구되고 있음.

■ 새로운 예술의 출현과 문화예술공간의 효용성

— 전환기 예술은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하게 됨. 오늘날의 예술은 일상과 괴리된 예술을 일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예술가는 물론 인간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술'로 이해하는 경향에 이르게 됨.

— 도시인에게 새로운 예술은 보다 일상의 공간으로 자리하게 되는데, 거리의 벽면, 마을의 작은 공간, 공동화되었지만 삶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빈 건물이야말로 예술이 찾은 전환적 혹은 최적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새로운 예술은 문화의 근간이 되는 언어와 기호, 이미지와 상징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새롭게 구축되는 예술의 영역은 그러한 가치와 정체성에 걸맞게 언어, 기호, 이미지, 상징 등을 만들며 새로운 문화의 토대를 제공함.

2) 시설에서 공간으로의 전환

■ 문화시설의 조성과 맥락적 의미 및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공간으로의 진화

— 시설(施設/Facility)은 "설비나 장치 따위를 차려놓은 일정한 구조물"을 의미하며,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문화(혹은 예술)행위를 위한 시설을 의미함. 그동안 문화정책은 시설 중심의 공급 정책으로 시설의 활성화를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반면, 공간(空間/Space)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곳 즉, 비어짐 속에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범위가 공간의 영역임. 따라서 문화예술공간은 구조보다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주체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행위가 발생함.

■ 문화예술공간의 진화와 확대

— 일상의 영역에서 욕구를 가진 개인(예술가 포함) 혹은 집단이 스스로 문화 혹은 예술적 욕구와 결핍을 사회적으로 구성하여 공간을 만드는 경우는 적극적 표현 행위임.

— 문화 예술적 욕구와 결핍이라는 축과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축이 문화공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개별 공간의 활동 영역에서 결정되기 마련이며, 이는 각 공간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임.

3)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이해

■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되어온 공간이론

— 공간정치경제학을 대표하는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공간을 둘러싼 관계는 사회적 개입의 산물이며 생산과 전유의 논리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함.

— 르페브르는 공간 생산의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를 '공간 재현', '공간적 실천', '재현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함.

— 공간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은 인지된 공간, 질서 지워진 공간을 의미하며, 공간적 실천(Spacial Practice)은 공간 계획가들에 의해 구축된 공간의 틀에서 사회적 삶을 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재현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은 체험되고 말해지는 공간으로 일상의 경험적 공간을 일컬음.

■ '추상공간'과 '차이공간'

— 공간 생산 양상은 공간을 다양하게 구별하는데, 공간의 역사적 변천을 절대공간 → 역사적 공간 → 추상공간 → 모순공간 → 차이공간으로 제시함.

— 르페브르가 지적한 자본주의적 추상공간은 자본주의 확장과 함께 사회적 공간을 침범하고 공간의 고유성을 지우고 동질화한다고 봄.

— 따라서 인간의 삶을 획일화하는 공간 전략에 맞서, 최대한의 차이를 추구하는 새로운 공간의 생산이 필요하며, 이는 공간의 주체를 통해 새로운 공간이 생산될 때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은 거대한 서울이라는 공간에 비집고 자란 각각의 정체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읽는데 중요한 관점을 던져주고 있음.

2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

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의 접근방법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 서울에는 수많은 문화예술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서울문화재단 역시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거나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예술활동과 관련된 시설로서, 운영 방식과 시민과의 소통방식 등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음.

— 공공 문화예술공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에는 민간 문화예술공간이 다양하게 존재함. 이는 주체의 욕구와 사회적 배경에 의해 다양한 공간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민간 문화예술공간이 공공정책에 결합하는 방식

— 민간 문화예술공간은 민간에 의해 조성되고 운영되는 문화공간 혹은 예술공간임. 이러한 공간들은 서울시 혹은 서울문화재단의 공간조성이나 운영지원과 연결되어있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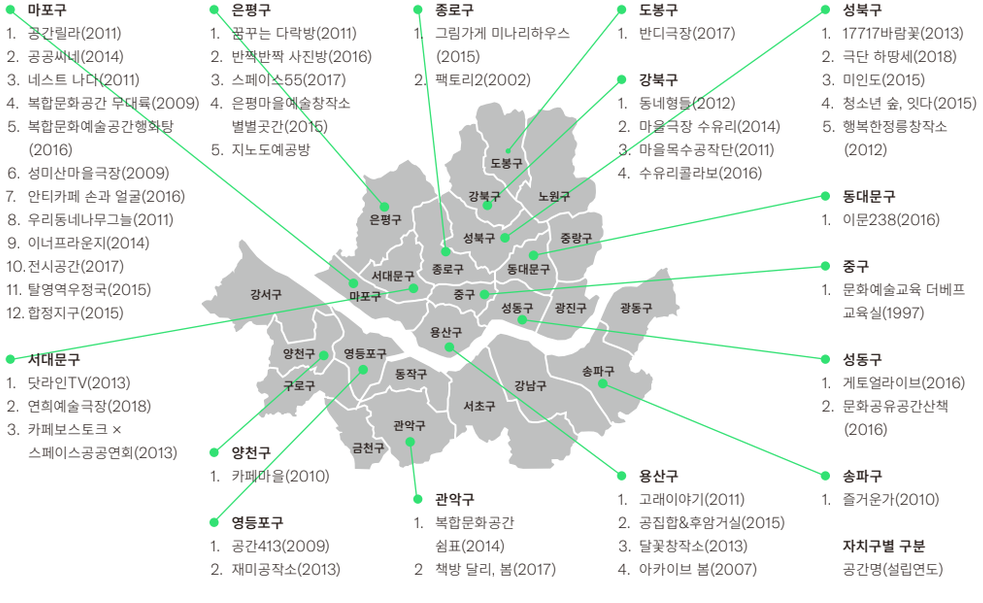
— 따라서 정책에서 민간 문화공간에 대한 관점, 민간 문화공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관점임.

2)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실태조사 분석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지역적 분포와 조성시기

— 실태조사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시기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실태조사 대상 공간 자치구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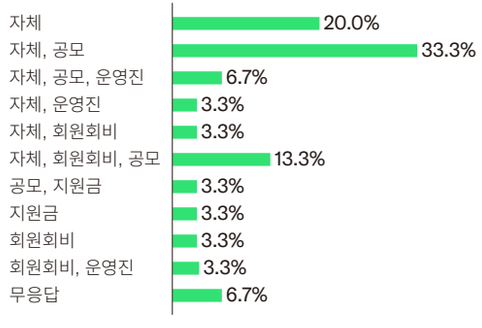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규모

— 실태조사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규모는 50평방미터 이하(15평 이하)가 26.7%를 차지하지만, 50-100평방미터(15-30평) 규모 역시 26.7%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소유 형태와 임대료 현황, 조달 방식

— 조사 대상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90.0%가 월세 형태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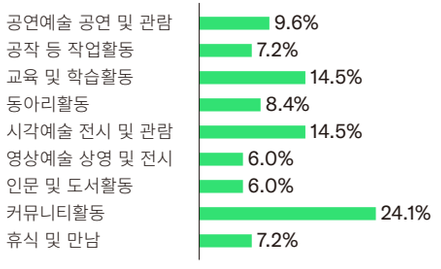
‹공간 운영비 조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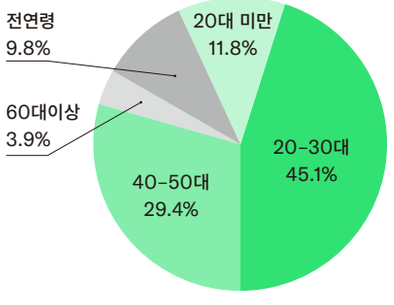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운영의 목적과 주된 이용자

— 조사 대상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20-30대가 다수를 차지함.

‹공간 운영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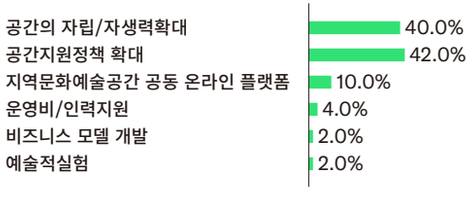
‹공간 이용자 연령층›



■ 주체가 생각하는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요소

‹주체가 생각하는 공간의 비전›

‹공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소›



3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분석

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진단의 관점

■ 공간연구로부터의 기본 관점구성과 FGI를 통한 공간 탐구

— 인터뷰에는 27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전체 46개 선정 대상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중에서 58.7%가 참여한 수준임.

2)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내용적 분석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분석을 위한 기본관점›

구분	내용
공간에 대한 이해	· 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되며 공간적 실천을 통해 공간적 차별성을 획득함.
문화예술공간의 이해	· 공간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본질적으로 문화공간임. · 새로운 예술은 일상 속에서 존재방식으로서 공간을 취하고, 공간적 실천은 곧 예술적 실천을 의미함.
문화예술공간의 원리	· 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되며, 공간과 사회는 상호성을 가지고 있음. · 공간은 특정 가치를 표현하고 배치하는 전략으로 작동함.
문화예술공간의 위기	· 공간이 지배공간으로 전환되는 위협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구현됨. · 공간은 사회적 위협, 상업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음.
문화예술공간의 사회적 의미	· 기술의 혁신이 자본주의적 질서를 보다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함. · 개인화, 양극화 등 사회적 변화에서 공간은 삶의 다양성, 도시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출구로 작동함.

■ 다양성과 정체성을 가진 문화예술공간

—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상호 유사성 : 공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산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공간의 유사성은 우리사회가 가진 맥락이나 공간이 생산한 사회적 해석과 관련이 있음.

—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 대부분의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임. FGI를 통해 스스로 드러낸 공간의 정체성은 ① 대안공간 혹은 새로운 예술공간 ② 일상적 예술창작 공간 ③ 문화적 키움과 돌봄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욕구와 결핍에서 비롯된 공간의 사적 동기와 공적 성격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대개 사적인 욕구 혹은 결핍으로부터 구체적인 문화예술공간을 고민한 것으로 드러남. 사적인 욕구 혹은 결핍은 거대하고 사회적인 동기라기보다는 개인 혹은 집단에서 출발하여 사회적인 환경과 만나는 것을 의미함.

■ 개인 혹은 집단의 욕구나 결핍이 표현되는 방식으로서의 문화예술공간

— 욕구와 결핍이 왜 문화예술공간으로 표현되었는가라는 문제는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운영자의 맥락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운영주체들은 개인의 욕구나 결핍이 자기로 환원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했고, 대개는 유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욕구를 채우거나 해소하는 방식을 선택함.

■ 개인 혹은 집단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으로서의 문화예술공간

— 이러한 문화예술공간은 공간으로서 자리잡는 과정 즉, 공간을 조성한 후 지역과 연계되어 지역 생태계 안에 자리하게 됨. 이 과정을 통해 초기의 문화예술공간의 사적 동기는 사회적 필요와 연결되어 공적이지만 다양한 성격을 생산하게 됨.

— 이는 사적 소유의 민간 문화예술공간이 공공성(commons)을 획득하는 과정이며, 공간 자체가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생산되는 과정임.

3)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특징

■ 지역에서 상호작용함으로써 얻은 생명력

— 대개의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마을주민과의 네트워크도 있지만, 예술가 혹은 기획자들과의 네크워크를 통해 공간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있음.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이러한 개인 혹은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 공간의 구성력과 관계의 힘을 강화하고 변화를 촉발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가변적 운영과 유지방식의 비정형성

— 대부분의 공간이 욕구와 결핍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공간이 이내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망이 확장되고 지역 혹은 네트워크 속에서 일정한 “자리”를 마련하게 됨.

— 그러나 서울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은 자본주의적 상업화와의 전면전을 치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화예술공간은 지속적으로 운영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최적화되기 마련임.

— 지역마다 공간마다 제각각 이에 대처하는 각각의 공간 경험치를 높이는 과정은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과정임.

■ **지배 정책에 포섭되지 않는 거리두기**

— 대부분의 문화예술공간은 두 가지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하나는 상업주의의 위협과 월세로부터의 위협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공공지원과정에서 타자화 혹은 정책 논리로부터의 포획되는 위협임.

— 이에 따라 일부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운영자들은 공간의 자립이라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운영자들은 공공지원정책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공공정책은 민간 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정책의 필요로 사용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거리두기 전략을 통해 공간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을 위한 탐색**

— 많은 참여자들은 도시에서의 공간 담론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문제를 제기함.

— 실제 개별화되고, 획일화되어 가는 도시에서 다양성과 생동감을 확장하는 동력으로써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공간을 통해 예술적 실험과 사회적 역할을 하는 예술가 혹은 기획자의 문제의식과 서울시 도시정책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4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연구의 의미와 과제

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연구의 시사점

■ **도시에서의 문화예술공간**

— 현대사회의 변화는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기 속 개인과 사회의 대응 전략이 요구됨. 특히, 기술의 혁신과 인구 구조의 변화는 서울시민의 삶과 공동체에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_ 이러한 개인과 집단의 변화는 일상의 다양한 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간 문화예술공간은 이러한 실천과 탐색의 중요한 장(場)임.

■ **미래사회 문화예술공간의 확장성**

— 문화예술공간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되는 사회적 산물이며, 상업적 도시환경으로부터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공간임.

— 따라서 지역과 일상에 자리한 문화예술공간은 삶의 정체성과 관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며, 문화적 돌봄과 키움의 방식을 공유하는 전환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위협**

— 현재는 물론, 미래사회 문화예술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문화예술공간은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따라서 지배권력의 방식을 강요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재구성, 상업화로부터의 위협에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탐색과 성찰이 요구됨.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생태계에 대한 전환적 고민 필요**

— 서울에는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공공정책으로 조성된 문화예술공간뿐 아니라, 민간 문화예술공간이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

— 삶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오늘날 삶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수요는 민간 문화예술공간의 새로운 역할을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연구의 결론**

— 연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한 점은 ① 서울지역에는 많은 민간 문화예술공간이 존재하며 ② 이러한 문화예술공간은 지역을 기반으로 각각의 생존방식을 가지고 있고 ③ 생존방식의 다양성과 유연성으로 집약될 수 있으며 ④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문화예술공간은 ⑤ 지속가능한 공간 활동을 위해 다양한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⑥ 항시적으로 상업화의 위협과 준비되지 않은 공공 지원정책에 훼손될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따라서 ⑦ 문화예술공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場)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⑧ 공간의 자립 모델에 대한 탐색과 함께 공공의 역할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음.

2) 향후 연구 과제

■ **도시에서의 문화예술공간**

– 본 연구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유의미하게 존재하지만, 정책적 영역에 포섭되지 않은 민간 문화예술공간을 탐색하였음.

– 그러나 연구는 탐색을 통해 이러한 문화예술공간은 포섭의 대상이 아닌, 생태계의 1차 생산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탐색과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문화예술공간에 관한 후속 연구과제›

	후속 연구 과제	내용
1	**민간 문화예술공간의 문화생태계 탐구**	문화예술공간이 구축하는 관계망을 통해 작은 문화생태계 사례 연구
2	**새로운 예술실천으로서의 공간 연구**	새로운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예술적 방법, 공간 실천에 대한 연구
3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정책 개발**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방식 개발 연구
4	**공공 문화예술공간 운영방안 연구**	지배담론으로부터 공간적 생산이 구현되는 공공문화공간 운영방안 연구
5	**도시정책으로서의 문화예술공간**	전환기 도시정책으로서 문화예술공간의 사회적 역할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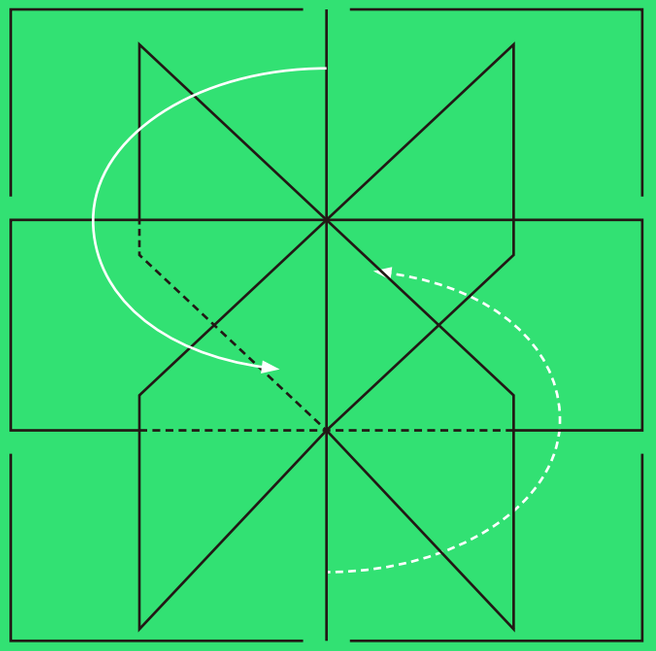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과 방법

3 연구방법과 연구진 구성

4 연구과정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문화예술시설조성 정책의 한계

— 문화예술 활동은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도시/장소/시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활동으로 공간은 언제나 문화예술 활동과 일정한 유기적 연계성을 가짐.

— 그동안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주로 '시설'정책으로 분류되어 문화시설조성 정책으로 추진되어왔으며, 이는 문화시설 실태조사로 정리되어 정책에 집적되어왔음.

— 이는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공급자적 관점에서 진단한 것으로 주민들의 욕구 혹은 주민 간의 관계보다는 시설의 조성과 존치가 우선적으로 점검되는 정책임.

— 그러나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어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 주민들이 친근한 문화예술 활동의 장(場)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등 시설 활성화 측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최근,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도시, 장소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의 공간 탐색이나 문화도시 등의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음.

■ 민간에서 조성하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장소

— 정책적 관심과 달리, 민간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꾸준히 조성되어왔음. 민간에서의 문화예술 활동 장소는 건물이나 설비보다는 필요와 욕구에 따라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시설보다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 따라서 공공정책에서 읽는 문화예술시설에 비하여 민간에서 조성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장소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공간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공간이 요구되고 구성되며,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창작 혹은 생산에 해당된다는 의미임.

— 때문에, 공공에서 조성하는 문화예술시설이 가시적이고 정형적이며 측정가능한 시설이라면, 민간에서 조성하는 공간은 비가시적 활동과 비정형적 구조 심지어 측정하기조차 어려운 다양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산·소멸되고 있음.

■ 현대사회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재구성과 정책 역할의 필요성

— 이러한 공공 문화예술시설과 민간 문화예술공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각각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각각의 위기를 겪고 있음.

— 공공 문화예술시설이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면, 민간 문화예술공간은 재정적 위협으로부터의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시달려왔음.

— 최근 시민들의 문화욕구가 높아지고, 다양한 방식의 예술참여가 증대하자,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시설 혹은 공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정책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정부와 서울시가 시설조성보다는 시민들의 활동이 전제된 공간조성으로 관점을 이동하면서, 시민 활용도를 높이는 내용이 전제된 공간정책의 방안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공간은 이전의 단순하게 비워진 공간, 죽은 의미가 아니라, 삶의 내용과 관계가 살아있는 유기체적 공간으로 도시정책 전반과 깊은 관련이 있음.

2) 연구의 필요성

■ **시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정책의 관점 정립 필요**

– 공급자적 관점과 구조물로서의 문화 '시설'을 뛰어넘어 스스로 문화를 발현하고 있는 현장의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재조명

■ **민간 문화예술 활동을 담는 공간의 실태 분석 필요**

– 도시정책으로서의 관계,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변화와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는 오늘날 문화예술공간의 실태조사와 분석

■ **민간 문화예술공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론화 필요**

– 민간 문화예술공간과 정책의 결합지점에 대한 탐구와 공론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목적**

–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공간의 의미와 도시정책으로서의 문화예술공간 역할 탐구

– 서울시 지역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조사와 실태 분석을 통한 현재적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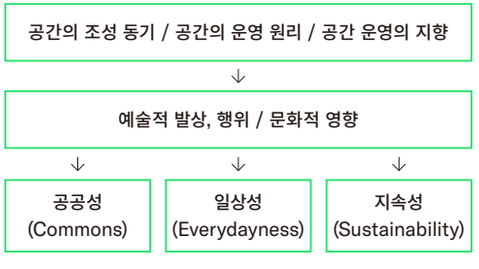
– 서울시 도시정책으로서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정책적 접근 지점 탐색

■ **연구의 관점**

– 도시의 문화예술공간은 구조물로서의 시설이 아닌 일상의 시민문화 활동 공간으로서의 '유기체'적 성격을 인식함.

– 공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공간의 조성 동기, 운영원리, 그 지향점에 대한 탐색을 시도함.

‹그림 I -1› 연구의 관점



– 문화예술공간이라는 규정은 예술적 발상, 행위를 통해 인간에 대한 영향, 관계를 확장한다는 기본 관점하에서 출발함.

– 이러한 기본 관점을 전제하고 '공공성(Commons)', '일상성(Everydayness)', '지속성(Sustainability)'을 견지하며 연구함.

2)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2019년 10월 1일–11월 30일 (61일)

■ **내용적 범위**

	범위	주요 내용
1	**서울지역의 문화예술공간 조사와 실태조사 분석**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사전조사(문헌 등)와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 이슈 도출
2	**문화예술공간의 생태계 환경과 운영에 대한 이슈 도출**	문화예술공간의 운영 방식 진단과 공간의 생태계 환경 분석
3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 도출**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공간조성지원정책 고찰과 향후 연구과제 제언

■ **대상적 범위**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중 기준에 의해 선정한 46개 공간

3 연구방법과 연구진 구성

1) 연구방법

■ 문헌연구와 자료조사

— 생활권 문화공간에 대한 선행연구

—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대상 공간(창작, 예술교육, 생활문화 등) 자료

—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 대상 공간(마을예술창작소, 마을기업 등) 자료

— 서울시 '공동체 공간' 연구 관련 공간DB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문공간DB' 자료

— 기타 공간사례 아카이빙 도서 등의 분석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리스트 조사와 실태조사 실시

— 일정한 기준으로 사례 조사 공간 리스트 조사와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공간운영자 라운드 테이블

—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선정된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운영자 초청 라운드 테이블 운영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운영 현황과 문화예술공간의 실재적 위상 및 문화적 역할에 대한 조사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이 지역주민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한 연구 자료 확보

■ 연구진 회의와 서울문화재단, 전문가와의 협업 연구

구분	내용	비고
연구진회의	연구의 방향과 내용 체계화를 위한 연구진 내부 회의	· 수시로 운영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회의	연구가 정책적 방향에 부합되도록 기획과 운영에 대한 협력과 공유	· 서울문화재단 사업담당자 연구진 결합 · 사전 기획회의 운영 · 중간, 최종 과정 공유
자문회의	서울지역의 공간사업 관계자로부터 정책적 자문	· 서울연구원,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전문가 결합

2) 연구진 구성

■ 연구진 구성

구분	이름	역할
책임연구원	최혜자	사업 기획과 운영 총괄 / 정책 개발 집필
공동연구원	김성진 / 김지영 장혜령 / 최 진	부분별 사업 내용 정리와 집필
자문위원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안영노	안녕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윤현옥	문화공작소 아하 대표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
연구보조원	이라선영 / 지휘석 / 안세영	사업 운영/ 녹취/ 섭외/ 행정/ 연구보조 등

4 연구과정

1) 연구 진행과 경과

■ 공간 선정을 위한 기준 설계

— 1단계 : 연구 대상 선정
① 서울문화재단 2017-2019년 공간 관련 지원 신청 리스트 ② 마을예술창작소

— 2단계 :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선정 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간을 추출하는 과정 수행

‹표 I -1› 공간 선정 기준

	기준	비고
1	민간이 운영하는 공간인가?	데이터에서 보이는 가능성을 보고 선정하였으며, 실제 FGI를 통해 확인될 내용임.
2	공간(시설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3	공간에서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가?	
4	공간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가?	
5	지역 안에서 일상적 활동을 하는가?	
6	예술성을 가진 창작 기반 활동을 하는가?	
7	공간이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8	공간을 공유하는 원리를 갖고 있는가?	

■ 선정 공간 명단

—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46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을 최종 선정

‹표 I -2› 연구 대상 공간

	공간명	위치	조성년도
1	게토얼라이브	성동구	2016
2	고래이야기	용산구	2011
3	공간릴라	마포구	2011
4	공간사일삼	영등포구	2009
5	공집합&후암거실	동작구, 용산구	2015
6	그림가게, 미나리하우스	종로구	2015
7	극단하땅세	성북구	2018
8	꿈꾸는 다락방	은평구	2011
9	네스트 나다	마포구	2011
10	달꽃창작소	용산구	2013
11	닷라인TV	서대문구	2013
12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교육실	중구	1997
13	동네형들	강북구	2012
14	마을극장 수유리	강북구	2014
15	마을목수공작단	강북구	2011
16	미인도	성북구	2015
17	반디극장	도봉구	2017
18	반짝반짝 사진방	은평구	2016
19	공공씨네	마포구	2014
20	복합문화공간 무대륙	마포구	2009
21	복합문화공간 쉼표	관악구	2014
22	복합문화예술공간 행화탕	마포구	2016
23	성미산마을극장	마포구	2009
24	수유리콜라보	강북구	2016
25	문화공유공간 산책	성동구	2016
26	스페이스55	은평구	2017
27	아카이브 봄	용산구	2007
28	안티카페 손과 얼굴	마포구	2016
29	연희예술극장	서대문구	2018
30	우리동네나무그늘	마포구	2011
31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	은평구	2015
32	이너프라운지	마포구	2014
33	이문238	동대문구	2016
34	재미공작소	영등포구	2013
35	전시공간	마포구	2017
36	즐거운가	송파구	2010
37	지노도예공방	은평구	
38	책방 달리, 봄	관악구	2017
39	청소년의 숲, 잇다	성북구	2015
40	카페마을	양천구	2010
41	카페보스토크×스페이스공공연희	서대문구	2013
42	탈영역우정국	마포구	2015
43	팩토리2	종로구	2002
44	합정지구	마포구	2015
45	행복한정릉창작소	성북구	2012
46	17717	성북구	2013

■ 실태조사와 분석

– 선정된 46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서 수합

구분	내용
조사 목적	46개 공간을 대상으로 서울의 문화예술공간 실태 기초자료 분석
조사 기간	10/29–11/25 (총28일간)
조사 방법	서면 실태조사서 작성 후 이메일 회신

– 설문에 응답한 30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을 대상으로 설문 분석을 통해 실태 분석

대상 공간	응답 공간	공간명
46개 공간	30개 공간	공간릴라, 공간사일삼, 공집합&후암거실, 꿈꾸는 다락방, 네스트 나다, 달꽃창작소,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교육실, 동네형들, 마을극장 수유리, 복합문화공간 무대륙, 복합문화예술공간 행화탕, 성미산마을극장, 수유리콜라보, 문화공유공간 산책, 스페이스55, 아카이브 봄, 안티카페 손과 얼굴, 연희예술극장, 우리동네나무그늘,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 이너프라운지, 이문238, 재미공작소, 전시공간, 카페마을, 카페보스토크×스페이스공공연희, 탈영역우정국, 팩토리2, 합정지구, 17717

■ 공간운영자 FGI 운영

–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46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에게 대면 그룹 인터뷰 요청

구분	내용
FGI 목적	· 서울 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운영 실태와 원리에 대한 분석
FGI 기간	· 10/31–11/5 (6일간)
FGI 주요 내용	· 문화예술공간 조성 취지, 운영원리에 대한 조사 · 문화예술공간 사업 내용과 재정 운영 상황 · 문화예술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 요청에 응한 27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을 대상으로 6개 그룹으로 나누어 FGI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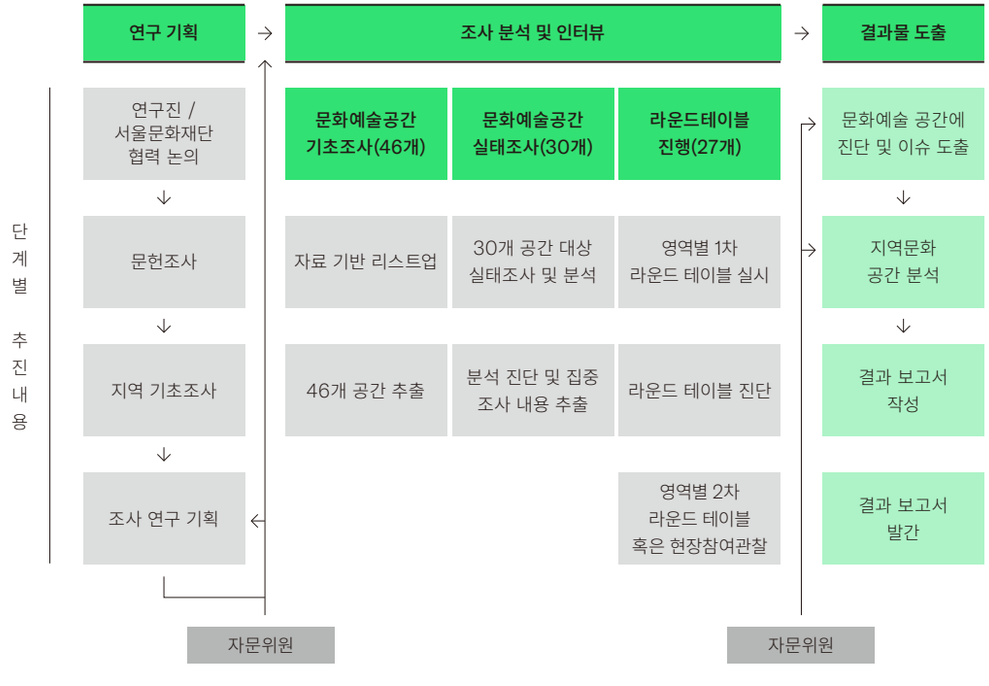
	일정	참여 공간명	연구진	장소
1회	10/31(목) 10:30	17717, 공간릴라, 성미산마을극장, 아카이브 봄	김성진 최진	문화 디자인 자리
2회	10/31(목) 14:00	재미공작소, 반디극장,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	김지영 장혜령	문화 디자인 자리
3회	11/5(화) 10:30	카페보스토크× 스페이스공공연희, 이너프라운지, 탈영역우정국, space 55	최혜자 장혜령	문화 디자인 자리
4회	11/5(화) 10:30	극단 진동, 무대륙, 동네형들, 달꽃창작소, 우리동네나무그늘	김지영 김성진	갤러리 재동
5회	11/5(화) 14:00	즐거운가, 문화공유공간 산책, 네스트나다, 안티카페 손과얼굴, 미인도, 행화탕	최혜자 김성진	문화 디자인 자리
6회	11/5(화) 14:00	공간사일삼, 연희예술극장, 책방 달리 봄, 카페마을, 꾸는다락방	김지영 장혜령	갤러리 재동
	계	27개소		

– 진행 사진

‹그림 I -2› 공간운영자 라운드테이블 현장

■ 연구일정

‹그림 I -3› 연구 추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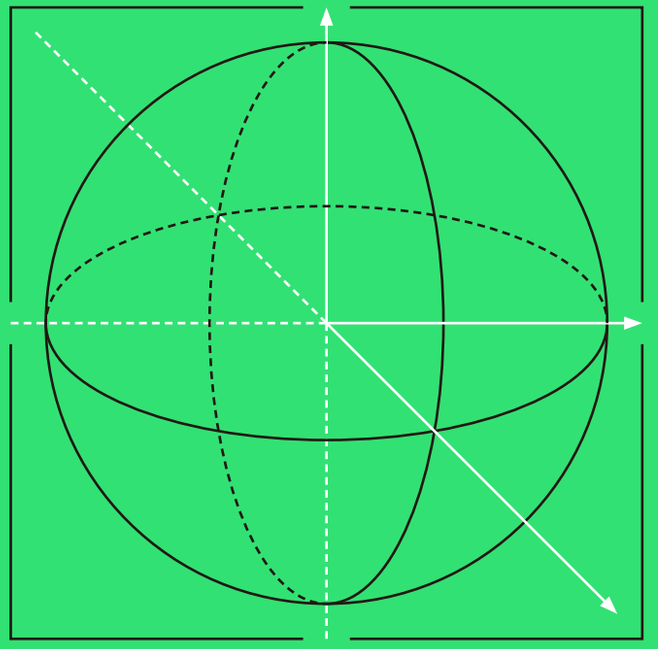
II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접근

1 현대사회와 문화예술공간

2 시설에서 공간으로의 전환

3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이해



1 현대사회와 문화예술공간

1) 현대사회의 특성

■ 개인이 발견된 오늘

— 오늘날의 세계가 근대사회와 차이를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개개인"의 인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임. 이는 생존을 위해 오랜 투쟁을 해온 인류에게는 새로운 환경임.

—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과 신으로부터 위협받거나 제약을 받아왔으나, 근대 인권의식의 성장은 관념의 세계로부터 인간의 의지를 해방시킬 수 있었음. 또한, 자본주의의 발달은 인간 욕망에 자유를 부여함.

— 인간 의지의 해방과 욕망의 자유는 자본주의를 가속화하는데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데, 세계 1·2차 대전은 제어되지 않은 의지와 욕망 분출의 결과가 가져온 인류적 참상으로서 새로운 각성과 국제적 연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

— 그러나 세계대전 이후 기술의 발달은 자본주의의 발달을 더욱 촉진하게 되는데, 인류는 비록 불평등하나마 굶주림과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자리하게 되었음.

— 기술의 혁신이 가속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다양한 자본주의적 소비사회에 포획된 소비자임과 동시에 스스로 소비를 조직하는 주체로서 욕망을 표출하기에 이르렀음.

■ 우리사회의 변화와 변화요인

— 이러한 현상은 빠른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룬 우리사회에도 급격하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한국사회 구성원의 삶의 방식을 위협 혹은 변화시키고 있음.

— 특히,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개인 욕망의 분출은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낳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요인은 일시적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더욱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1> 현대사회를 변화시키는 동인과 현상

영역 (STEEP)	발생되고 있거나 예측되는 현상
사회 (Social)	· 인구구조 변화 → 생산인구 감소/고령사회화 · 인종 등 다양성 확대 → 다양성 사회/갈등사회화 · 노동의 질 전환과 종말 → 놀이사회화
기술 (Techno-logical)	· AI의 일상화 보편화 → 노동(형태)의 변화 · 플랫폼 혁명 → 사회기반의 기술적 전환 (국가중심 사회에서 플랫폼 중심사회로)
경제 (Economic)	·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제 형성 → 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로의 진화 · 거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탄생과 새로운 시장 발굴 → 자본의 탈국적화, 스타트업의 공존 ·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 공공형 민주적 경제 활성화
환경 (Ecological)	· 위협받는 지구 환경 → 환경 규제 확대, 친환경기술 확산 · 미세먼지·폭염 등 인간 생존권 위협 → 공동선의 추구
정치 (Political)	· 국가체계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재설계 · 지역, 집단 참여 민주주의의 강화 → 자치의 확대(지역자치, 집단자치) · 분열과 갈등사회 → 소통과 융합의 중요성 강조

■ 사회 변화와 삶의 위기

— 현대사회를 변화시키는 동인과 현상은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표현의 방식은 물론, 상호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총체적인 삶의 변화는 결국 문화 전반의 변화 다시 말해서, 전폭적이고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를 흔히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1]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 다시 말해서, 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인식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과 혐오, 충돌과 좌절 현상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자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그림II-2› 사회 변화에 따라 발생되고 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

갈등과 혐오의 극대화
·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갈등 증폭
· 사회적 전환을 둘러싼 가족, 세대계층 간 갈등 심화
· 개인의 인격과 데이터 보호 간의 혼동과 모호성 확대
사회 구조의 분화
· 인구구조와 가족 관계의 변화로 인한 1인, 독신, 비혼 가구의 증가
· 기호/욕구의 세분화에 따른 폭력적 탈사회화 혹은 영토화 현상
· 지역, 집단 간 차이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재 미비
양극화의 극대화
· 가파른 1:99 사회화로 인해 소외계층의 다수화
· 비인간적 노동(AI 데이터 노동)과 플랫폼 노동 등으로 인한 인간 존엄의 위기
· 경제적 취약에서 사회, 문화적 취약계층의 확산과 사회적 트라우마의 증가
지구환경 위기의 심화
· 온난화, 미세먼지 등 지구환경의 위기가 생존 위협하고 이에 대한 건강 우려 가속화
·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강화로 국내 소비 패턴과 일상 규제 강화
·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조치로 세계적 저개발의 포용 등 국제 활동의 강화

■ 문화적 방식과 새로운 실험

—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위기감과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으며, 변화를 막아보려는 저항이나 무비판적으로 변화를 쫓는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임.

— 그러나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비판 없는 추종은 양 극단에서 유사한 오류를 작동하게 하는데, 이는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한 성찰과 기획의 부재라는 오류임.

— 또한, 이는 변화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따른 즉자적인 행동일 뿐, 주체적 시각에서의 삶을 사유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 문화적 전환기인 오늘날 가장 중요한 접근방식은 문제를 직시하면서 인간이 가진 지혜를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는 방법임.

— 이는 곧 문화적 접근이며, 사실 인류사회는 거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경험과 상상을 결합하는 방식 즉, 문화적 접근을 선택해왔음.

— 실제 오늘날 우리사회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문화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 이미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음.

— 이 문화적 접근에는 태도와 원리 즉, 철학적 방법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는 결국 문화적 수용성으로서의 다양성(Diversity), 다양성을 아우르는 상호소통(Interaction), 경계를 넘는 통합(Hybrid)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시 말해서, 기존 처방의 한계를 인식하고, 삶의 결핍과 필요에 따라 기존의 자원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삶의 환경과 여건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함.

‹그림II-3› 사회변화에 대한 문화적 접근 방식

이슈	먼저 온 미래 현상	현재 정책 방향	문화적 처방 요구지점
인구감소	· 인구감소의 가속화 · 노동인구 축소와 이주노동 증가 · 학령 아동 감소와 대학의 위기	· 출산 장려정책 · 이주민정책	· 문화적 돌봄(문화안전망)을 위한 활동 · 문화다양성 관점의 활동
고령화	· 노인층의 욕망표출과 분노 · 사회 복지 비용 증가 · 1인 노인 가구 증가	· 노인복지정책 강화	· 노인의 사회적응 활동 강화 · 일상의 재설계를 통한 마을 활성화
개인화	· 다양한 사회적 욕망 표출 · 1인 가구 증가 · 갈등과 혐오 표출 증대 · 불의에 대한 저항 강화 · 가부장과 권위에 대한 분노 표출	· 청년정책 강화 · 직장 내 갑질 관리 · 성평등 정책 수립	· 생애주기별 삶의 기획 역량 강화 · 세대 통합적 사회 영역으로서의 일상 강화 · 인권, 생명, 성평등 등 문화다양성 활동 확대 · 생명 가치의 확장과 사회적 표현 활성화
기술혁신	· 기존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확대 · 플랫폼 노동의 증가 · 기술 리터러시의 문제 증가 및 소외 현상	· 불안정 일자리 공급 · 새로운 노동쟁점 관리 · 기술보급 장려	· 정보 리터러시 문제의 접근 · 인간과 기계의 재구성 · 노동과 삶의 재구성

1)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은 토머스 새뮤얼 쿤(Thomas Kuhn)의 「과학 혁명의 구조」에서 사용된 말로, 현재 과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과학적 틀의 균열이 생기고, 이런 과정 속에 다른 여러 패러다임들과 경쟁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수용되면서 과학혁명이 발생한다는 설명임.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러한 설명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층층이 쌓이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적 인식과 틀로 급격하게 전환됨을 의미함.

2) 새로운 예술과 문화예술공간의 탄생

■ **새로운 예술의 출현**

—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 중에 예술적 노력은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하게 됨. 적어도 이러한 시도는 1920-30년대 건축, 회화, 음악 등의 기존 예술적 표현이나 규준이 파괴되는 실천[2]으로부터 시작되었음.

— 흔히, '예술'은 오랜 세월 긴 시간과 노력을 통해 창조되는 '특별한 그 무엇'으로 이해되어왔으며, 그 특별한 무엇은 비루한 일상과 분리된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음. 따라서 예술가는 일상과 분리되어 매우 특별한 행위를 일삼거나 창작하는 기괴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왔음.

— 때문에 그 특별한 예술은 일상의 인간을 순화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일상보다 가치 있거나 여유 있는 영역에 머물러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음.

— 그러나 삶의 방식이 변화하는 오늘날, 심지어 그러한 변화가 삶의 전반에 이르는 광범위한 전환이 확산되는 현시점에서, 도대체 예술이 어떻게 인간과 삶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심이 작동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새로운 예술의 기반이 되고 있음.

— 새로운 예술의 출현은 바로 1920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이며, 실제 1960-70년대 유럽과 1990년대 미국 등지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확산되었으며, 그러한 예술적 실험과 탐구의 결과를 '동시대 예술'이라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음.

— 그 결과 오늘날의 예술은 일상과 괴리된 예술을 일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예술가는 물론 인간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술'로 이해하는 경향에 이르게 됨.

— 이러한 새로운 예술의 출현은 기존의 장르 중심적 혹은 기존 문화에 순응된 예술과 다른 형태로써 새로운 상상력의 영역에서 작동되고 있는데,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실천이 일상으로 스며든 '예술적 상상과 실천'임.

■ **새로운 예술의 서식지 문화예술공간**

— 오늘날 새로운 예술이 일상에 서식하며 작동하는 곳으로 일상의 문화예술공간이 주목받고 있음. 사실 새로운 예술은 기존의 예술이 머물던 공간에 진입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과거 근대적 예술이 머물던 공간은 극장이나 미술관, 박물관 등이었음. 극장이나 미술관, 박물관의 역사는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과 제국주의적 수탈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음.

— 이를테면, 궁중에서 즐기던 궁중 음악회, 발레 등의 공연을 수시로 보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극장이며, 궁중의 벽면을 채우던 미술품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미술관임. 또한, 식민지 수탈을 통해 유입된 진귀한 물건을 보관하던 곳이 박물관의 출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날의 예술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새로운 장(場)을 필요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임.

— 사실 오늘날의 예술인 영화는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제는 기술 혁신이나 상업화의 흐름을 타고 모바일 폰을 통해 사람의 손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도시인의 삶 속의 예술은 보다 일상의 공간에 자리하게 되는데, 거리의 벽면, 마을의 작은 공간, 공동화되었지만 삶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빈 건물이야말로 예술이 찾은 전환적 혹은 최적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음.

■ **삶과 일상을 표현하는 새로운 예술의 힘**

— 이는 오랜 세월 일상과 분리된 예술이 삶과 일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재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새로운 예술'을 의미함.

— 삶과 예술의 새로운 만남과 재구성을 통해 모색되는 새로운 예술은 문화적 돌봄과 사회적 혁신의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의 예술은 삶의 '결핍'과 '욕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과 창조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 사회적으로 확장됨.

— 새로운 예술도 일반적인 예술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 즉, 새로운 예술은 결국 문화의 근간이 되는 언어와 기호, 이미지와 상징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새롭게 구축되는 예술의 영역은 그러한 가치와 정체성에 걸맞게 언어와 기호, 이미지와 상징을 만들며 새로운 문화의 토대가 되는 것임.

2) 1920년대 이후 독일의 바우하우스는 건축과 관련된 새로운 방식으로 공예, 디자인, 회화 등의 예술 활동에 '실용'이라는 개념을 두고 목적에 부합하는 예술 활동을 시도했으며, 그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1920-3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다다이즘, 아방가르드, 초현실주의 예술 활동은 대개 기존의 틀과 사유를 해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였음.

2 시설에서 공간으로의 전환 [3]

1) 문화시설에 대한 이해

■ 문화시설의 조성과 맥락적 의미

— 사전적으로 시설(施設/Facility)은 "설비나 장치 따위를 차려놓은 일정한 구조물"을 의미함. 이는 행위와 관계없이 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진 표현이며,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문화(혹은 예술)행위를 위한 시설을 의미함.

— 문화시설을 논하기에 앞서 몇 가지 측면에서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에 관한 내용임.

— 첫째, 문화시설은 인간의 삶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공간이기에 꾸준히 구성되어왔음. 대개 이는 욕구를 가진 주체들에 의해 조성되었고, 더 이상 욕구되지 않으면 소멸되기 마련임. 그러나 욕구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거대한 시설을 구성할 만큼 스스로의 욕구를 조직화하기까지 성장하지 못함. 다시 말해서, 민간에 의한 다양한 문화시설은 생성과 성장, 소멸을 거듭하며, 대개 꾸준히 지속하기 어려움.

— 둘째, 압축된 근대화 과정을 거친 우리사회 현실 속에서 부동산과 시설로 구성된 자산 중심의 문화시설은 민간보다는 공공의 몫이었음. 이는 시민 욕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책적 설계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제5공화국 시기 시작된 1시·군·구 1문예회관 정책임. 이는 대개 서구식의 대형 공연장과 같은 형식으로 지어졌으나 전시실이나 대형 회의실을 포함한 형태로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음. 이러한 문화시설은 문화예술회관[4]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실제 예술가의 활동시설이기보다는 대개 정치 행사를 위한 시설로 작동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공급자적 정책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음.

— 셋째,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와 예술을 같은 층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문화라는 광의의 층위와 예술이라는 하부 층위가 병렬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문화를 예술과 동일시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렇듯, 문화라는 광의의 개념을 예술로 치환하여 마침내 예술로 편재하는 방식은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5]의 병렬적 사용과 그 성격을 같이 함. 층위가 다른 문화와 예술을 한꺼번에 쓰면서 도리어 시민의 삶의 방식이 제거된 예술이 문화인 양 이해하는 것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으로 정책에서 말하는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시설은 실제 가동 여부와 관련 없는 예술시설일 가능성이 있으며, 명확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문화 예술시설' 혹은 사용자 관점에서 '문화 예술공간'이라고 쓰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그러나 오늘날 시설의 복합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시설'이 아닌, '공간'으로 명칭하며, 예술의 경계가 확장되는 등의 상황을 관찰하는 의미에서 기존의 용어인 문화예술을 병렬적으로 사용함.[6]

■ 공공 문화예술공간의 출현

— 민간의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가운데[7], 마침내 공공정책에서 생활권 내에 작은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문화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이 있음.

— 문화복지시설로 등장한 문화의집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 활동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책으로써, 시설의 조성방식에서 활동방식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세밀하게 정책설계가 진행되었음.

— 그러나 문화의집이 시설 안에서 발생할 행위를 염두에 두고 조성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음. 즉, 주민 스스로의 행위라기보다는 정책설계 과정에서 "기대되는" 행위를 위해 시설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의미임.

— 그러나 주민 활동에 무게가 실어짐에 따라 실제 많은 문화의집은 스스로 존재하는 생활권에서 자기 정체성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재구성함.

— 문화의집의 경우와 달리, 대부분의 조성정책 중심의 문화시설은 시설을 조성한 후에 관리와 운영 활성화의 과제를 안고 있음.

— 사실 모든 시설은 용도와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구조와 형식도 내용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변적 활동을 염두에 둘 경우조차 가변성을 구조화하기 마련임.

— 다시 말해서 시설이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 등이 고정된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최초의 용도 외에는 사용이 쉽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시설을 재구성하는 유휴공간정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마련임.

---

3) 최혜자, 「2018년 생활문화지원센터조성사업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서울문화재단, 2018, p.9-10 재구성

4)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대규모 문화시설은 2000년대 들어 예술의 전당 혹은 지역의 특징을 실린 명칭으로 전환됨.

5)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에서는 그 목적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중흥에 기여하게 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때, '문화예술'은 '문학·미술·음악·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제2조)으로 규정함으로써 각각 층위가 다른 문화와 예술을 혼재하여 사용하기 시작함.

6) 그런 의미로 본 보고서에서 문화 예술공간이라 쓰는 것 역시 문제가 있지만, 본 보고서는 공간의 복합화, 성격의 혼종성 등을 고려하여 일단 문화예술공간이라고 병렬적으로 사용함. 문화와 예술의 층위가 다른 문제는 본 보고서에서 내용적으로 다룰 것임.

7) 실제 1980-90년대 민중문화의 활성화로 인해 다양한 민간 문화예술공간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공간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대안공간 등이 생성됨.

‹그림Ⅱ-4› 우리나라의 문화정책과 문화공간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정책상징	삶의질	국민화합	자율분권	녹색성장	창조경제	포용사회
문화정책	문화복지	문화산업	창의한국 / 새예술정책	품격있는 문화	문화융성	삶이 있는 문화
대표사업	문화감수성증진	문화콘텐츠사업	문화예술교육	문화나눔 / 재능봉사	문화가 있는 날	문화분권
국민위치	문화향수자	문화향수 / 창의인력	문화주체로 국민호명	문화향수자	문화활동의 주체	문화권의 주체
공간	문화의집	미디어센터	작은도서관 / 생활친화공간		생활문화센터	생활SOC

출처 : 최혜자, 문화의집과 생활SOC, 문화의집포럼 발제문 재구성

2) 문화예술공간의 다양한 확장

■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공간으로의 진화

— 공간(空間/Space)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곳 즉, 비어짐 속에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짐. 비어진 것의 범위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범위이므로 공간은 시설과 달리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임.

— 즉, 공간은 주체의 의지와 욕구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형화, 구조화, 체계화와 달리 비정형적이며 때로는 비대칭적일 뿐 아니라 무정형적인 범위 다시 말해서 시간의 경계를 넘는 것이 가능함.[8)]

— 따라서, 문화예술공간은 구조보다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문화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비어진 영역이며, 문화적 행위가 주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의미에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음.

— 최근 수년 동안, 국민(시민/주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문화시설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문화시설'의 문제를 인식하고 행위 중심의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짐.

— 이에 '문화예술공간'은 공백 즉, '비어진 공간'으로 조성되어 '아직 표현되지 않았던 행위'나 '표현하고 하고 싶은 행위'를 끌어내는 공간 즉, '말을 거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함.

8) 공간이 물리적 시설이나 규정된 활동을 넘을 수 있으며, 비정형 범위는 물론 무정형 범위를 가진다는 것은 시간적 범위를 넘어 장소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초등학교 운동장, 동네 문방구 등의 모든 공간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장소성을 획득할 수 있음.

■ 문화예술공간정책에서 비어진 영역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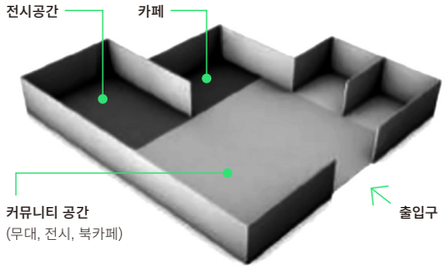
— 문화주체들의 활동을 염두에 둔 공간에 대한 인식이 공공 영역에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이후임.

—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제8조)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생활문화센터[9)] 조성정책을 추진함.

— 생활문화센터 조성정책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은 사업의 구현단계에서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개념화 과정[10)]인데, 이때 진행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마주침'이라는 행위와 그것이 가능한 '마주침 공간'임.

— 이는 문화시설에 마침내 문화공간의 의미를 구조적으로 탑재하기 시작한 개념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정책에는 마주침 공간으로서 커뮤니티 공간을 반드시 조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림Ⅱ-5› 생활문화센터의 마주침 공간에 대한 가이드



출처 : 생활문화센터 공간 가이드북, 생활문화진흥원, 2016

■ 문화예술공간의 진화와 확대

— 생활문화센터에 이러한 공간 규정이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임. 그러나 2015년 논의를 통해 이를 정책적으로 해석하고 사회적 의미를 공유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음.

—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간의 영역 즉, 스스로의 욕구나 결핍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일상의 문화예술공간에서는 흔한 일임.

— 실제 민간의 문화예술공간은 끊임없이 조성되고, 성장하거나 소멸하기도 하는데, 민간 수집가가 박물관을 열고, 유명 작가의 작품 애호가가 미술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허다함.

9) 지역문화진흥원에서는 생활문화센터를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 발표 공간과 함께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커뮤니티공간, 북카페, 공연장 등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이라고 규정함.

10) 지역문화진흥원에 이관된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관한 컨설턴트단의 논의 과정에서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검토와 성찰은 중요한 토론의 바탕이 되었으며, 민간의 새로운 문화 혹은 예술공간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역시 중요한 자원이 됨.

— 그러나 일상의 영역에서 욕구를 가진 개인 혹은 집단이 스스로 문화 혹은 예술적 욕구와 결핍을 사회적으로 구성하여 공간을 만드는 경우는 매우 현대적인 의미를 지닌 행위임. 개인 작가가 스튜디오를 열어 창작활동과 대중적 소통을 구성하는 경우 역시 이러한 경우에 속함.

— 물론 문화·예술적 욕구와 결핍이라는 축과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축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개별 공간의 활동 영역에서 결정되기 마련이며, 이는 각 공간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임.

— 민간 문화예술공간이 일상의 현장에서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 혹은 재구성되는 동안, 이러한 실천 흐름은 공공 문화정책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거나 흡수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기존의 공간과 전혀 다른 문화공간으로 등장함.

— 정책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는 작은도서관[11], 대안예술공간[12] 등이 있으며, 일상의 예술창작이 유통으로 연결되는 문화예술창작공간[13], 마을과 예술활동을 연결한 일상문화공간[14] 등이 있음.

11) 작은 도서관은 공간의 근원을 사람마다 다르게 보고 있는데, 70년대 마을문고운동을 근원으로 잡거나, 80년대 노동서원 빈민운동 역사에서 작은도서관을 바라보기도 함. 그러나 지금과 비슷한 형태는 90년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린이와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 작은도서관들이 전국에서 생기기 시작했고, 주로 386세대 여성지식인들의 일상 속 활동으로 확대됨. 이는 어린이와 지역을 생각하면서 공공도서관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하며 일상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 만들기 활동으로 나타남. (출처 : 박미숙, 강상구, 『작은도서관, 일상적인 지역문화 공간으로 의미와 해석』, 2019 작은도서관 콘퍼런스)

12) 국내 대안 공간(Alternative Space)은 1999년 대안공간 루프에서 출발함. 대안공간은 미술계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진 전위 실험 작가들을 소개하는 비영리 공간을 뜻하는 말로서, 미술관과 상업 화랑이 중진 이상 원로 작가 전시로 신진작가에게 발표 기회를 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스스로 기회를 여는 방식으로 시작함. 2000년부터는 대안공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작됨. (출처 : 미술계 판도 바꾼 '대안 공간' 10년, 중앙일보, 2018.12.18.)

13) 일상의 1인 창작자나 그룹의 창작활동이 마켓이나 일상축제를 통해 유통하는 되는 생태계적 구조를 구상하는 개념으로 대개 작은 공방이나, 마을공간에서 작가의 창작활동과 주민활동이 연결되는 작은 공간을 의미함. (출처 : 일상예술창작센터 홈페이지)

14) 일상의 공간을 마을공동체라는 틀 속에서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서울시의 마을예술창작소이며, 이는 마을예술창작소 연합조직을 통해 집단적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음.

3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이해

1)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다양한 견해

■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되어온 공간이론

— 문화예술공간을 보다 심층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범위의 공간 연구로 접근해야 함. 공간은 오랫동안 죽은 것이거나 비변증법적, 고정된 것으로 여겨왔으며, 반면 시간은 풍요롭고 무한한 것으로 여겨왔음.

— 그러나 1960년대 이래 공간은 사회적 생산[15]의 결과로 인식되면서, 공간이론은 인간의 장소 경험과 장소 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음.

— 이러한 이론에는 현상학의 관점에서 고찰한 인문지리학[16], 공간을 사회 문화 정치 역사의 복합적인 생산물로 분석하는 사회공간론[17], 자본주의적 상품 노동관계의 공간 형성과정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규명한 공간정치경제학[18], 복합성 맥락성 우연성 비판성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던공간론[19] 등이 그것임.

— 이와 같은 이론들은 공간 그 자체는 애초에 주어진 것일지라도 공간조직, 용도, 의미는 사회적으로 생산 해석되며, 변화되는 경험의 산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음.[20]

— 이렇듯, 공간(장소이든, 도시이든)이 비어진 구조가 아니라, 유기적이며, 생동적이라는 발견은 인간의 삶과 공동체에 있어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게 함.

■ 공간이론 담론의 확장

— 공간정치경제학을 대표하는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에드워드 소자(Edawrd Soja) 등의 학자들은 특정한 공간의 생산이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표출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 The Production of Space』에서 공간을 둘러싼 관계는 사회적 개입의 산물이며 생산과 전유의 논리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함.

15) 생산은 헤겔주의 관점에서 보는 광의의 의미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는 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광의의 의미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과 역사, 의식, 세계 등 모든 것을 생산하며, 자연조차도 변형 즉 생산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협의의 의미에서 생산은 생산물로 한정됨.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The Production of Space (1974), 양영란, 에코리브르, 2011, p.127-128)

16) 지리학은 고대로부터 존재하던 학문으로 크게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의 분야로 구분되는데, 계통지리학은 다시 지표면의 어떤 현상을 연구하는가에 따라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으로 나뉨. 인문지리학은 인구, 민족, 도시, 농업, 공업, 상업, 취락, 풍속 등 인간 활동에 의한 모든 현상을 지리적 분포, 지리적 구조, 환경과 관련시켜 연구하는 분야임.

17) 1980년대 이후 르페브르의 공간론에 영감을 받은 영미권의 많은 비판적 지리학자들이 공간과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함. 이들은 공간과 사회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와 공간 사이의 내재적 연관성을 강조함. 특히 소자 (Edward Soja)는 공간과 사회 간의 내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사회-공간 변증법(socio-spatial dialectics)'이란 개념을 제시함.

18) 공간정치경제학은 대도시를 통해 사유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맑시즘적 시각인 메트로 맑시즘의 이론체계임. 마유엘 카스텔, 데이비드 하비 등의 학자에 의해 주장되는 이론으로 마르크스적인 관점에서 도시공간과 신자유주의와의 역학 속에서 분석하여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분야임.

19)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간이 다중들과 상호교차하면서 공간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는데, 1970년대 이후 포스트모던 철학적 사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공간형성과 공간 생산의 다차적인 경로를 규명하면서, 공간을 둘러싼 권력관계와 갈등관계를 파헤치는 논의로 확장되었는데, 포스트모던 공간론은 이러한 흐름의 통칭임.

20) 양은아(2017), 「대학로의 문화예술공간으로의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또한, 신자유주의 질서가 팽배한 현대 사회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상품 세계의 논리와 전략 그리고 자본과 국가 권력의 논리를 포함하는 추상 공간을 생산, 재생산했다고 설명함.[21]

— 이러한 공간 개념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관점이 그러하듯, 매우 정치적이며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푸코는 20세기를 '공간의 시대'로 규정하며, 권력을 억압적 관점에서 보았던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생산적 관점에서 접근함. 푸코는 공간 역시 권력을 생산하며,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훈육시킨다는 관점을 제시함.

—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르페브르는 공간을 생산, 소비, 교환공간이라는 구분으로 읽는 것을 경계함. 즉, 공간은 정치적 도구, 계급투쟁이 각인되는 사회관계의 영역이 형성되는 곳이며, 정치·사회·경제와 문화적 체제를 중재하는 곳으로 해석됨.

— 르페브르는 그의 저서『공간의 생산 The Production of Space』에서 공간 생산의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를 '공간 재현', '공간적 실천', '재현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함.

— 이는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회 속에서 공간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됨.

21) 앙리 르페브르,『공간의 생산 The Production of Space』,(1974), 양영란역, 에코리브르, 2011

2) 세 가지 개념으로 보는 문화예술 '공간'

■ 공간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

— 원어 'Les Représentations de L'espace'를 직역하면 '시공간의 재현들'로서 공간 생산의 세 가지 계기 가운데 공간(의) 재현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현실에 구체화시킨 이념과 개념이 표상된 공간으로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 공간 재현은 도시공간을 만들고 계획하며 공간 개념을 만들어내는 학자들이나 계획 수립자들, 도시 계획가들, 공간을 구획하고 배열하는 관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념화된 공간임.[22]

— 르페브르는 공간재현들에 대해서 '인지된 공간'(Conceived Space), '질서 지워진 공간'(Ordered Space)이라고 정의하며, 이데올로기와 인식을 사회적·공간적 실천 속에 반영했다고 표현함.

— 르페브르는 이렇게 형성된 공간 개념이 한 사회의 지배적인 공간 개념으로서 여겨진다고 보았으며, 이는 도시공간이라는 거대한 공간뿐 아니라 문화예술공간과 같이 특정된 공간도 포함함.

— 이는 정책으로 조성된 문화예술공간에는 '인지되고 질서 있는' 정책 의지와 인식이 재현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22) 앙리 르페브르,『공간의 생산 The Production of Space』,(1974), 양영란역, 에코리브르, 2011 p. 80.

■ 공간적 실천(Spacial Practice)

— 원어 'La Pratique Spatiale'은 해당 공간의 주체들이 활동을 통해서 공간을 점유하며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함.

— 공간의 주체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공간을 지각하면서 개별적으로는 역사적 배경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같은 문화 영향을 통해, 집단적으로는 사회·정치·경제 관계의 영향을 통해 규범화된 행위를 함.

—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과 질서라고 믿고 있는 환경 다시 말해서, 공간 계획가들에 의해 구축된 도시환경이나 건축 환경 속에서 공간적 실천행위를 하며 살아가고 있음.

— 지배적인 공간 개념과 그 속에 존재하는 균형 잡힌 질서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순응함. 그리고 이러한 규범화된 행위는 사회적 삶을 구조화하며 공간을 생산하게 됨.

—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공간을 소비하면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공간 개념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공간 이용 행위를 통해 기존의 공간이 가진 개념과 질서를 전복시킴.

— 따라서 공간적 실천은 한편으로 자본주의 지배전략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저항하는 전복의 노력들을 가시화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재현 공간(Representational Space)

— 원어 'Les Espaces de Représentation'을 직역하면 '재현의 공간들'로서 이는 "체험되고 말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23]

— 이때 공간은 어떠한 과학적 분석이나 논리적 접근, 개체에 대한 실증적이고 원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사람의 감각이나 느낌, 신체의 오감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체화되는 공간이며, 일상의 주체들이 생산해 내는 일상의 경험적 공간을 일컬음.

— 이는 공간을 사용하는 주민들과 예술가들, 그리고 공간에 대해 기술(記述)하고자 하는 자들 즉, 작가들과 철학자들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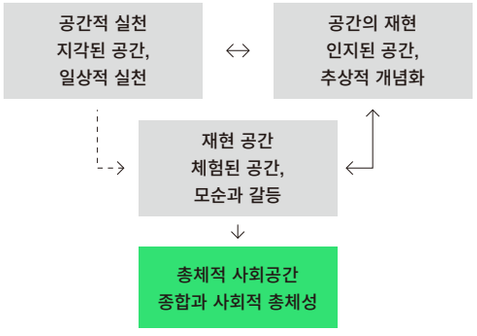
— 이들은 공간을 둘러싼 환경과의 전유(Appropriation)를 통해 끊임없이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게 됨.[24]

— 이는 도시 공간이나 문화예술공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자로서의 주민, 예술가 등에 의해 체험되고 말해지는 공간이며, 새로운 공간으로 끊임없이 창조된다는 의미임.

23) 위의 책, p. 333.

24) 르페브르에게 있어서 전유는 '자신의 육체, 욕망, 시간 등을 스스로 장악하고 주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그것은 소외되지 않은 인간, 자기 존재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의미한다. 한편, 공간의 전유에 대하여 그는 "한 집단의 필요와 가능성을 위해 변화된 자연적 공간에 대해 이 집단이 이를 전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앙리 르페브르,『공간의 생산 The Production of Space』,(1974), 양영란역, 에코리브르, 2011 p. 258.

‹그림II-6› 르페브르가 주장한
공간 생산의 3가지 유형(모멘트)



출처: 최병두,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과 도시 · 공간적 소외,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제2호, 2018, p. 156 재구성

3) 공간과 사회 사이의 상호 역동적인 관계

■ 자본주의 사회의 '추상공간'의 등장과 전략

— 르페브르는 이 같은 세 차원이 펼쳐나가는 삼각 변증법을 통해 공간의 역사를 설명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추상공간(Abstract Space)'이 등장한 역사를 논의함.

— 추상공간은 자본주의의 확장으로 인해 더욱 공세적으로 사회적 공간을 침범하는데, 이는 공간의 상업화와 관료화를 통해 가속화된다고 할 수 있음.

— 그가 문제로 삼았던 것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 추상공간이라고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간 생산의 모순과 갈등이 어느 지점에서 촉발되는지를 밝히고자 함.

— 자본주의적 발전양식은 끊임없이 추상적인 공간을 생산해내는 데 르페브르는 공간의 파편화, 위계화, 동질화를 만들어내는 추상공간적 전략들을 소비, 국가권력, 자본의 논리와 연결시킴.

— 르페브르는 추상공간을 정치적, 제도적 공간으로 발견된 공간이 아니라, 전략이 지정해준 공간이라고 서술함. 공간은 사회적 전략과 전술의 구실이 된다고 할 수 있음.[25]

—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추상공간은 그 공간 안에서 태어나서 그 공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라면 모조리 억누름. 따라서 지배공간(추상공간)은 현실 속에서나 잠재성 속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차이를 부정하게 됨.[26]

— 그것은 해당 공간이 지니고 있던 역사적 조건이나 자신만이 지니는 고유한 차이(내부적, 잠재적 차이)를 없애 버리고 대신 추상적 동질성으로 균질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추상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 간의 대조적인 생성과정과 둘 간의 긴장은 자본주의 사회의 갈등과 모순의 근본적 토대로 작용하며, 추상적 공간의 확장으로 인한 사회적 공간의 침해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개인과 집단의 투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됨.

25) 위의 책, p. 423.

26) 위의 책, p. 526.

■ 대안적 공간인 '차이공간'

— 이런 의미에서 공간은 사회적인 것을 담아내는 틀이자 반영이라 할 수 있는데, 공간과 사회 사이의 상호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서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는 '공간과 사회의 변증법'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킴.

— 이는 공간은 죽은 것, 비변증법적인 것,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반면, 시간은 풍부하고 비옥하며 살아있는 변증법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 푸코의 논의를 확장시키면서, 시간의 지속성을 강조한 기존의 사회과학 풍토에 비판인문지리학을 결부시킨 것임.

— 사회-공간 변증법의 기본적인 문제 설정은 사회관계가 공간을 만들기(Space-forming)도 하지만, 동시에 공간 의존적(Space-contingent)이기도 하다는 것임.[27] 이러한 이유에서 공간은 항상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 르페브르는 산업화는 도시화 속에서 완결되고, 또한 도시화가 산업생산 및 산업조직을 지배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간의 역사적 변천을 구성하는 각 단계로서 절대공간 → 역사적 공간 → 추상공간 → 모순공간 → 차이공간을 제시함.

— 여기서 절대공간은 전자본주의, 추상공간은 자본주의, 그리고 차이공간은 자본주의 생산양식 이후의 공간에 해당하며, 역사적 공간과 모순공간은 각각 이들의 이행기에 형성된 이행적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절대공간이란 대부분 자본주의 이전의 종교적, 정치적 공간이거나 혈족과 토양과 언어가 결합된 산물로서 역사적 공간이자 재현의 공간인 반면 추상공간을 생산해 내는 것은 자본주의라고 보고 있음.

— 자본주의가 도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내적 특성과 상징적 가치를 지니고 있던 절대공간들이 추상공간으로 변신된다고 봄.[28]

— 추상적인 공간은 균질화하려는 경향이 있고 기존의 차이와 특이성을 제거하려 하기 때문에 새로운(대안적) 공간은 차이를 통해서가 아니면 탄생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함.[29]

— 차이를 제거하는 추상공간화는 공간정책에서 매우 민감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닐 수 없음.

27)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Postmodern Geographies』 (1989), 이무용 외 옮김, 시각과 언어, 1997

28) 최병두,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과 도시 · 공간적 소외,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제2호 2018, p. 157

29)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The Production of Space, (1974), 양영란역, 에코리브르, 2011 p.52

■ **공간의 차이를 구축하는 다양성 전략의 중요성**

– 차이공간 개념의 핵심은 공간을 균질화하는 지배체계의 도구적 공간에 대항하여 최대한의 차이를 추구하는 새로운 공간의 생산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자본주의 위기의 공간적 해결이 계속적인 공간 차별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논리에서 비롯됨. 이는 생태, 환경, 생명, 관계 등을 억압하는 기재로 작동하기 마련임.

–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되며 언제나 헤게모니적이라고 할 수 있음. 공간은 특정계급의 지배를 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이자, 이 지배에 저항하며, 삶의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르페브르에게 있어서 대항 헤게모니는 공간의 주체를 통해 새로운 공간이 생산될 때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르페브르는 공간적 실천과 다양한 사회 공간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논하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 일상성의 종식이라는 특유한 변혁전략을 구상하고 있음.[30)]

– 이러한 관점은 거대한 서울이라는 공간에 비집고 자란 각각의 정체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읽는데 중요한 관점을 던져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다양성을 구사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라는 점을 일깨우고 있음.

– 이에 서울 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46개 공간을 사전 선정하였으며, 30개 공간이 실태조사에 참여하였고, 27개 공간이 FGI에 참여하여,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현재적 존재방식을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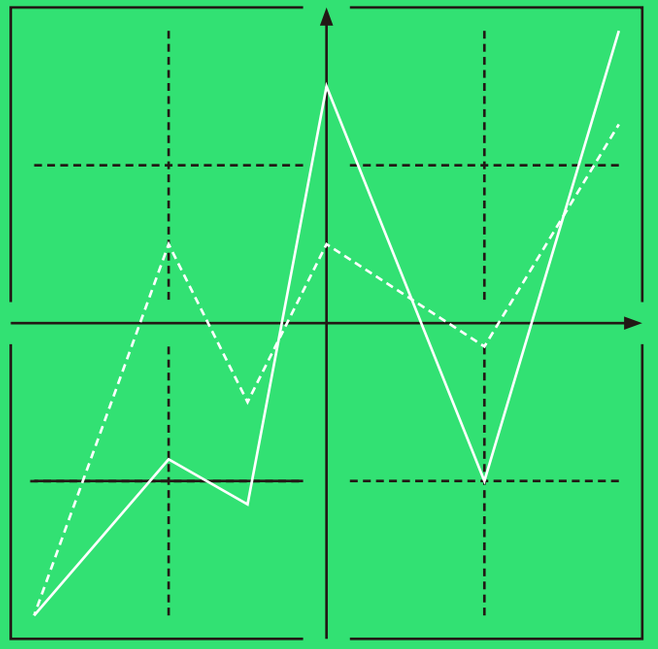
30)서우석, 앙리 리페브르가 바리본 공간, 국토, 1999, p. 86

III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

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의 접근방법

2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의 접근방법

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전개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다시 보기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연구하기 위해 일정한 표본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 일정한 기준으로 46개의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을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나, 그 결과는 명확하거나 충분하지 않았음.

— 실제 표본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만으로는 문화예술공간의 존재방식과 운영원리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드러냄.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일반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문화예술공간의 운영원리나, 사회적 역할, 지속가능성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공간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턱없이 미흡함.

— 사실 이는 연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견된 결과임. 정책 영역에 포섭되어 있지 않은 민간 문화공간은 다양한 존재 양태(르페브르에 의하면 차이공간)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일정한 틀로 이러한 공간을 읽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연구진은 다양하게 서식하며 시시각각으로 생태환경에 맞추어 운영을 변화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예술공간을 파악하기 위해 몇 단계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현황

— 서울에는 수많은 문화예술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립, 시립, 구립은 물론, 민간 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

— 공공 문화예술공간으로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극장은 물론 복합문화공간, 생활문화공간 등 다양한 성격의 문화예술공간이 존재함.

— 공간의 조성과 운영방식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 문화 혹은 예술활동의 정체성에 맞게 전통적인 방식을 탈피해 보다 창의적인 공간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있음.

‹표II-1› 서울지역 공공 문화예술공간의 현황

구분		합계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 미술관		복지시설 · 전수시설	
		시설수	인구 십만 명 당	시설수	인구 십만 명 당	시설수	인구 십만 명 당	시설수	인구 십만 명 당	시설수	인구 십만 명 당
합계		1,483	14.6	1,077	10.6	91	0.9	34	0.3	281	2.8
도심권	소계	154	28.3	79	14.6	29	5.4	16	2.9	30	5.5
	용산구	43	17.6	28	11.4	6	2.4	2	0.8	7	2.9
	종로구	63	38.4	31	19.1	13	8.0	9	5.5	10	6.2
	중구	48	35.7	20	14.9	10	7.4	5	3.7	13	9.7
동북권	소계	430	13.6	314	9.9	21	0.7	7	0.2	88	2.8
	강북구	66	20.1	49	14.8	3	0.9	0	-	14	4.2
	광진구	48	12.9	35	9.4	3	0.8	1	0.3	9	2.4
	노원구	59	10.6	40	7.0	3	0.5	1	0.2	15	2.6
	도봉구	54	15.6	38	10.8	4	1.1	1	0.3	11	3.1
	동대문구	38	10.4	30	8.1	0	-	1	0.3	7	1.9
	성동구	45	14.4	30	9.8	2	0.7	2	0.6	11	3.6
	성북구	66	14.5	50	10.8	5	1.1	1	0.2	10	2.2
	중랑구	54	13.1	42	10.1	1	0.2	0	-	11	2.6
서북권	소계	177	14.7	139	11.5	4	0.3	4	0.3	30	2.5
	마포구	55	14.3	41	10.5	2	0.5	1	0.3	11	2.8
	서대문구	40	12.3	28	8.6	1	0.3	2	0.6	9	2.8
	은평구	82	16.7	70	14.1	1	0.2	1	0.2	10	2.0
서남권	소계	450	14.5	349	11.1	12	0.4	3	0.1	86	2.7
	강서구	85	14.0	65	10.8	1	0.2	2	0.3	17	2.8
	관악구	65	12.5	52	9.9	1	0.2	0	-	12	2.3
	구로구	89	20.2	77	17.1	2	0.4	0	-	10	2.2
	금천구	31	12.2	21	8.2	3	1.2	0	-	7	2.7
	동작구	60	14.7	46	11.1	0	-	0	-	14	3.4
	양천구	61	12.8	46	9.5	2	0.4	0	-	13	2.7
	영등포구	59	14.7	42	10.3	3	0.7	1	0.2	13	3.2
동남권	소계	272	12.8	196	9.2	25	1.2	4	0.2	47	2.2
	강남구	65	11.6	44	7.7	4	0.7	1	0.2	16	2.8
	강동구	50	11.4	40	8.9	3	0.7	0	-	7	1.6
	서초구	71	15.9	47	10.4	11	2.4	2	0.4	11	2.4
	송파구	86	12.8	65	9.8	7	1.1	1	0.1	13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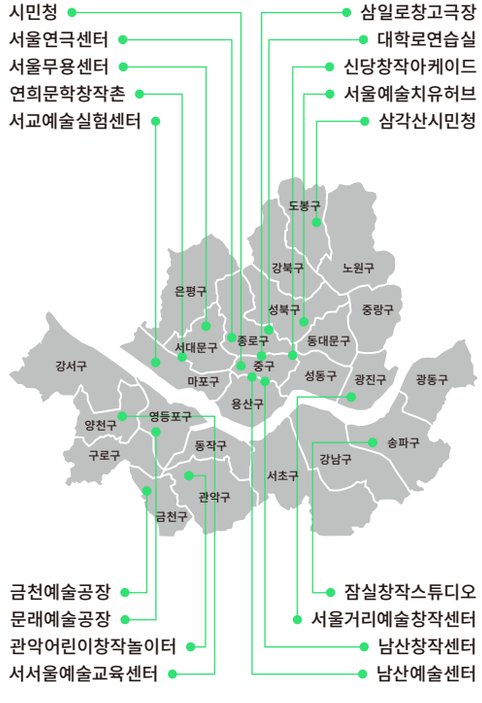
출처: 서울문화재단, 「2017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서울문화재단, 2018, p. 61

■ 서울문화재단의 공간운영 현황

— 서울문화재단 역시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거나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예술활동과 관련된 시설로서, 운영 방식과 시민과의 소통방식 등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음.

— 또한 예술가들의 연습과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은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창작자 지원의 일환으로서 지속적인 확장이 이뤄지고 있음.

‹그림III-1› 서울문화재단 운영 문화예술공간의 현황



출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 서울지역 민간 문화예술공간 현황

— 공공 문화예술공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에는 민간 문화예술공간이 다양하게 존재함.

— 이를 ① 공공 문화예술공간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② 공공 문화예술공간의 역할이 활성화되지 않은 탓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③ 주체의 욕구와 사회적 배경에 의해 다양한 공간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을 강조함.

— 다시 말해서, 문화예술공간은 공공의 영역에서의 존재방식과 민간 영역에서의 존재방식이 다르며, 공공의 문화공간조성이 확장되더라도 민간공간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

— 서울 지역의 민간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정확히 수치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민간 문화예술공간의 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조사 작업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임.

— 그동안 민간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전수조사가 존재하지 않은 것은 ① 민간 문화예술공간 전체를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었거나 ② 설사 민간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생태계 속 민간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조사의 실효적 지속성이 미비하다는 점에 있음.[31)]

— 공공정책에서 최초로 민간의 문화예술공간에 주목한 때는 참여정부시기로서, 이 때 시행한 생활친화문화공간과 작은도서관 등의 조성 사업은 공공주체와 민간 주체 모두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 대상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에 해당됨.

— 서울시 차원에서 민간 문화예술공간에 대해 주목한 것은 2012년 마을공동체 사업 등 사회적 혁신이 정책 의제로 떠오르고 난 이후임.

— 그 후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서 민간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과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민간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정책적 위상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에 대한 문화예술공간정책은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임.

‹표 II-2› 2012년 이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구분	공간명	담당부서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시민문화팀
	생활문화센터	
	에너지자립마을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지원팀
	마을기업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시종합마을지원센터)
	마을활력소 / 마을배움터	지역공동체담당관 공동체공간조성팀
	마을미디어센터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미디어기획팀
	청년공간지원 (청년활력공간)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사업팀
	마을소극장 조성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화시설1팀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센터	문화시민본부 생활문화팀
	청년예술공간지원	예술지원본부 예술기획팀
	창작작업실 / 연습실지원	

■ 민간 문화예술공간이 공공정책에 결합하는 방식

— 민간 문화예술공간은 민간에 의해 조성되고 운영되는 문화공간 혹은 예술공간임. 이러한 공간들은 서울시 혹은 서울문화재단의 공간조성이나 운영지원과 연결되어있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음.

— 대부분 민간 문화예술공간은 자생적인 구조를 가지고, 공간 리모델링 비용(조성지원)이나 공간에서 운영할 프로그램 비용(운영지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에서 포착한 민간 문화예술공간의 모습임.

— 대부분의 운영지원사업은 단년도 지원으로 운영되며, 공공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확인되기 어려우며, 공공에서 정책적으로 공간조성을 한 경우라도 지속적인 공간 유지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유형(마을예술창작소)이나 공공에서 정기적인 시설파악을 하고 있는 유형(작은 도서관)을 제외하고 공공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이 연구의 대상이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등장한 공간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공 구조에서 드러나지 않는 문화예술공간은 현재 파악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2)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전개 실태조사 설계

■ 실태조사 개요

- 설문 목적 :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문화생태계적 환경 분석
- 설문 기간 : 2019년 10월 29일-11월 25일 (28일)
- 설문 대상 :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46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 설문 방법 : 조사대상 46개 공간운영자의 협조를 통한 조사지 작성 후 E-Mail 회신
- 설문 내용 : 공간의 운영목적과 현황, 지역과 공간의 관계, 공간운영자의 비전 등

■ 실태조사의 목적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의미와 도시정책으로서의 문화예술공간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 실태조사의 결과는 서울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의 현황과 문화생태계적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실태조사 대상 공간 선정 과정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 공간 선정의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공간을 선정하여 대상을 확정함.

— 공공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와 서울시의 서울서베이 보고서,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등으로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 문화예술공간을 제외하고 민간 문화예술공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공간 중에서 물리적 공간(시설기반)을 가지고 있는 민간 문화예술공간을 조사의 1차 선정 대상으로 함.

— 서울지역에 분포되어있는 민간 문화예술공간 중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공간 관련 공모사업(공간조성이나 운영)에 지원 신청한 민간 문화예술공간을 대상으로 2차 선정하였음.

31) 그러나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부여되었다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민간 문화예술공간을 일정한 주기에 맞게 조사했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함.

‹표II-3› 2차 대상 공간 선정현황

구분	지원사업명	2차선정	비고
서울문화재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65	2017-2019년 사업운영 단체 중 민간이 운영하는 공간을 보유한 단체 및 공간
	지역특성화 사업	77	
	생활문화 지원센터	157	2017-2018년 지원사업 신청 공간
	청년예술 공간지원	239	2017-2019년 지원사업 신청 공간
서울시	마을예술 창작소	64	2019년 기준, 마을예술창작소
	계	702	

— 위의 2차 선정된 공간 중에서, ① 지역기반 ② 활동 커뮤니티의 존재 ③ 3년 이상 공간 유지 ④ 공간의 다양성이 담긴 유연한 운영 구조 ⑤ 변이가 가능한 공간을 기준으로 81개의 3차 연구대상 공간을 선정함.

— 81개 연구 대상 민간 문화예술공간을 두고 연구진은 ① 유사 공간은 오래된 공간 우선 ② 최근 3년 내 활동의 명확성 ③ 자기 정체성의 명확성을 중심으로 최종 46개 문화예술공간을 선정함.

‹표II-4› 최종 연구대상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선정대상
1차	공공 문화예술공간 배제	서울지역 민간 문화예술공간
2차	2017-2019년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공간 관련 공모사업 대상 민간 문화예술공간	702개
3차	① 지역기반 ② 활동 커뮤니티 존재 ③ 3년 이상 공간 유지 ④ 공간의 다양성이 담긴 유연한 운영 구조 ⑤ 변이가 가능한 공간	81개
최종 대상	① 유사 공간은 오래된 공간 우선 ② 최근3년 내 활동의 명확성 ③ 자기 정체성의 명확성	46개

3)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 진행

■ 실태조사 방법

—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는 서울문화재단의 협조를 통해 이메일로 진행함.

— 다만,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협조 요청은 유선상으로 진행함.

‹표II-5›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 기본 개요

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19년 10월 29일-11월 25일 (총28일간)
조사 대상	기준에 의해 선정된 46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조사 방법	서면 실태조사서 작성 후 E-Mail

■ 실태조사의 주요내용

—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운영현황, 공간현황, 프로그램 현황, 주체현황, 공간 이용자 현황, 지속가능한 공간운영을 위한 필요한 요소로 나누어 조사함.

— 각 현황은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서식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내용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예술창작소 실태조사서를 문화예술공간 조사에 맞게 재구성한 내용임.

‹표II-6›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의 내용

구분	조사내용
운영현황	공간명, 공간 주소, 설립연도, 운영단체/회사, 단체대표자명, 연락처/이메일, 단체운영목적
공간현황	공간 특성, 소유/비용방식, 주된 공간 목적(3가지), 공간 구성, 공간운영비, 조달방식 비중, 공간 규모, 공간공유여부
프로그램현황	주된 영역(3가지), 프로그램 기대효과(3가지), 프로그램기획방식
주체현황	주체가 생각하는 공간의 비전, 공간운영위원회 여부, 주요운영자(운영위/직원 등 3인), 주요운영자의 역할
이용자	이용자연령층, 이용자 지역
기타	공간 지속운영을 위한 필요한 요소

■ 실태조사 참여 공간 현황

— 최종 선정된 46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응답한 공간은 30개이며, 응답률은 65.2%임.

‹표II-7› 실태조사 참여 현황

	구분	대상 공간 수	참여 공간 수	참여율(%)
1	강북구	4	3	75.0%
2	관악구	2	-	0.0%
3	도봉구	1	-	0.0%
4	동대문구	1	1	100.0%
5	마포구	12	11	91.7%
6	서대문구	3	2	66.7%
7	성동구	2	1	50.0%
8	성북구	5	1	20.0%
9	송파구	1	-	0.0%
10	양천구	1	1	100.0%
11	영등포구	2	2	100.0%
12	용산구	4	3	75.0%
13	은평구	5	3	60.0%
14	종로구	2	1	50.0%
15	중구	1	1	100.0%
	계	46	30	65.2%

2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기본 현황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지역적 분포

— 본 연구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4단계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을 선정함. 이에 따라 선정된 46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오로지 기준에 적합성만 반영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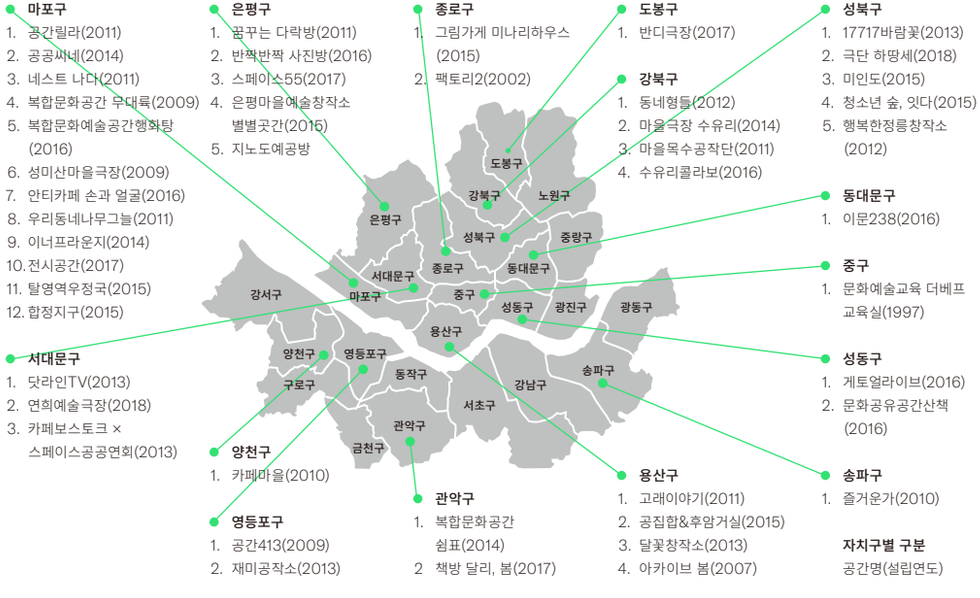
— 그러나 선정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보다는 특정 자치구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에 분포되어 있음.

— 특히, 마포구,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용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마포구의 경우 압도적인 분포를 보임.

— 이는 문화예술공간이 지역적 환경(지대, 접근성 등)과 지역과의 소통(주민의식, 네트워크 등)의 관계 속에서 생산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 환경이나 의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III-2› 실태조사 대상 공간 자치구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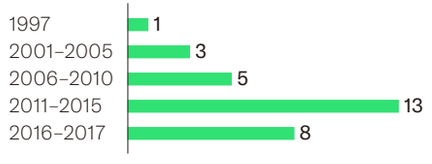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시기

— 실태조사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조성은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13개의 공간이 조성되었으며, 조사 시점인 2019년 11월, 조성된 지 1-2년 정도의 공간도 8개 공간임.

— 반면, 급변하는 서울의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공간을 10년 혹은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9개 공간도 포함되어 있음.

‹그림III-3› 공간 조성 시기(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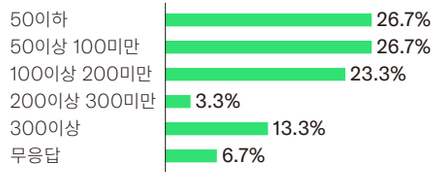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규모

— 실태조사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규모는 50평방미터 이하(15평 이하)가 26.7%를 차지하지만, 50-100평방미터(15-30평) 규모 역시 26.7%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100평방미터(30평) 이상의 중대형 문화예술공간 39.9%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의 지대 대비 비교적 큰 규모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개, 200평방미터 이상의 문화예술공간은 커뮤니티 활동을 겸하는 카페와 사무 공간 등이 함께 있는 공간이거나 극장이나 공연장, 전시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분적으로 공유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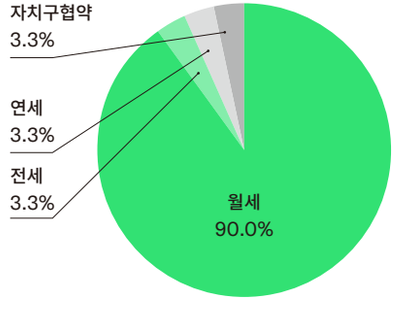
‹그림III-4› 공간 규모(단위: 평방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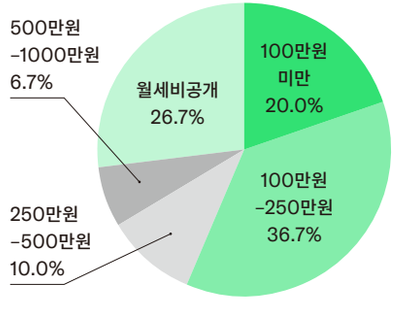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소유 형태와 임대료 현황

— 실태조사에 참여한 30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중에서 27개 공간은 월세를 부담하는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전세와 연세, 자치구협약에 의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은 각 1개씩이 존재함.

‹그림III-5› 공간 소유 형태



‹그림III-6› 공간 임대료



— 이들 공간의 임대료는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 36.7%로 가장 많으며, 100만원 미만이 20.0%, 25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10%이며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도 6.7%를 차지하고 있음.

— 대부분의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월세 부담을 안고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의 부동산값 상승,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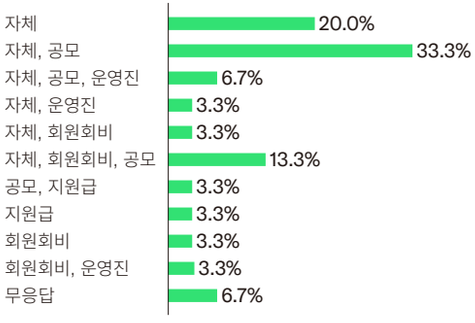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운영비 조달 방식

— 실태조사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공간운영비 조달방식은 자체수익사업방식과 공모사업, 운영진의 출자, 회원회비 등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체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6개 공간으로 20.0%를 차지하며, 지원금 혹은 회원회비로 운영되는 공간은 각각 1개 공간임.

— 나머지 공간(13.3%)[32]은 여러 가지 수입창출을 통해 운영진이 부족한 수입을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III-7› 공간 운영비 조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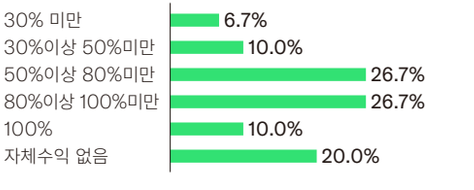


— 자체수익사업과 공모, 운영진 출자, 회원회비 등 기타방식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문화예술공간 중에서, 자체수익사업과 기타방식의 비중을 보면, 자체수익사업이 운영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36.7%로 나타났으며, 50-80% 자체수익을 가진 공간은 26.7%로 나타남.

— 반면, 자체 수익의 비율이 30% 미만인 공간이 6.7%, 자체 수익이 없는 공간이 20.0%로 나타남.

— 그러나 자체 수익이 없지만 구성원 전체 회비로 운영되는 공간이 1개 공간으로 3.3%를 보이고 있어 운영방식의 특성을 보임.

‹그림III-8› 공간 운영비 중 자체수익사업의 비중



32) 실제 F.G.I과정에서는 운영진의 공간운영비용 조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문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구성과 특징

— 실태조사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공간을 비워둠으로써 이용자 또는 운영자의 사용 내용에 따라 다채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가변성을 가진 공간 구성을 취하고 있음.

‹그림III-9› 공간 구성

— 30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이 공간의 구성 내용을 설명한 응답 결과를 토대로 한 공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거론되는 언어와 내용이 공간의 “가변성”임.

— 공간에 대한 구성으로는 68개의 설명이 등장하는데, 응답자에 따라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가장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가변적 구성과 용도를 열어둔 공간 구성임.

— 또한, 내부적인 구성에는 공유공간, 전시공간, 카페공간, 공연공간 등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간의 운영자나 주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공간으로 재배치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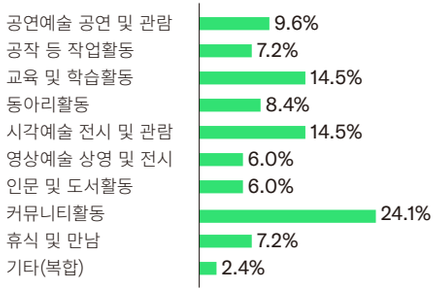
— 이에 따라 가변적 설치구조를 해체하기도 하고 재배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수용인원의 가변성과 성격이 다른 회합의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2)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운영 현황과 주체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운영의 목적

— 실태조사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운영 목적은 3개를 선택하는 항목에서 ‘커뮤니티 활동’이 24.1%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 및 학습활동’, ‘시각예술 전시 및 관람’이 14.5%로 나타났음.

‹그림III-10› 공간 운영의 목적



— 이는 ‘모든 공간에서 커뮤니티활동을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한다.’라는 해석보다는 ① 커뮤니티를 가장 목적으로 하는 공간 ② 고유의 문화 혹은 예술 활동과 더불어 커뮤니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구별된 결과는 아님.

— 다만,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중에서 주된 목적으로 커뮤니티를 선택하지 않은 공간은 9개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선택에는 교육 및 학습활동, 인문 및 도서활동, 휴식 및 만남 등을 선택하고 있음.[33]

33) 본 설문을 통해 커뮤니티활동이 예술가 간의 커뮤니티, 주민커뮤니티, 활동가 커뮤니티 등 다양하게 해석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미세화되고 전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설문에서는 보다 세밀한 범례사용이 필요한 것임.

— 그럼에도 대부분의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공간의 1차 목적 혹은 2,3차 목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되고 있음.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운영 방식과 운영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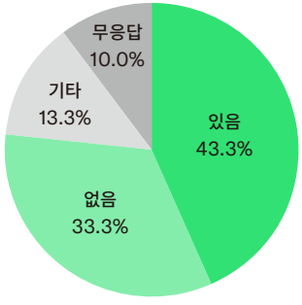
— 공간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 운영방식은 중요한 공간 이해의 영역임. 실태조사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가 43.3%에 이르는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공간도 33.3%에 해당함.

—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는 공간의 성격, 수익구조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간 주체들의 운영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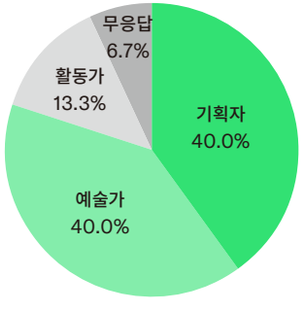
— 공간이 가진 특성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 중 자체수익이 50-80%인 8개 공간 중 2개 공간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며(25.0%), 자체 수익이 80% 이상인 11개 공간 중 8개 공간에 운영위원회가 있음(72.7%). 반면, 자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4개 공간 중 4개 공간 모두 운영위원회가 존재함.

— 공간 운영위원회는 기획자(40.0%)와 예술가(40.0%)의 직업군이 가장 많으며, 활동가(13.3%)로 나타났음.

‹그림III-11› 공간 운영위원회 여부



‹그림III-12› 공간 운영위원회 직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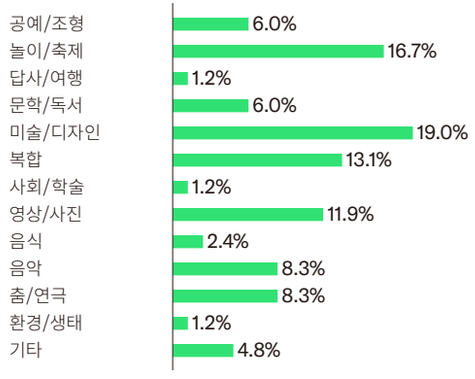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주요 프로그램 영역과 기획방식

— 실태조사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에서 주요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영역은 '미술/디자인' 영역이 19.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놀이/축제' 영역은 16.7%, '복합' 영역은 13.1%, '영상/사진' 영역은 11.9%로 나타나고 있음.

— 미술/디자인 영역이나 영상/사진 영역의 분포가 많다는 것은 예술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공연예술분야는 예술의 특성상 공연 문법을 해체하기 쉽지 않은 영역인 반면, 시각예술분야는 개별화된 작업이거나 해체가 용이한 영역이라는 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 반면,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에서 기존의 예술 활동 외 인문, 학술, 생태, 음식 등 커뮤니티성이 강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됨.

‹그림III-13› 주요 프로그램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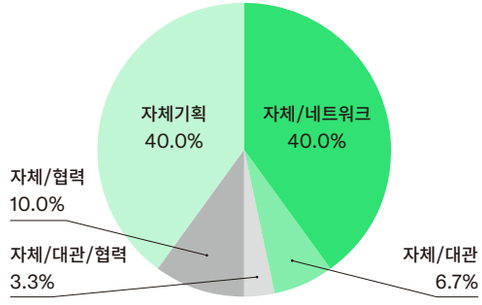


— 위와 같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식은 자체기획 40.0%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체기획이 40.0%로 동일하게 나타났음. 또한, 자체와 협력 기획을 결합한 방식이 10.0%, 자체기획과 대관을 통한 협력기획방식을 취하는 공간은 6.7%로 나타났음.

— 이는 실태조사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거의 자체 기획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으로 타 분야와의 실험적인 활동을 일상적으로 즐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또는 실태조사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자체 기획은 물론, 다양한 주체와 다종결합된 기획을 스스로의 기획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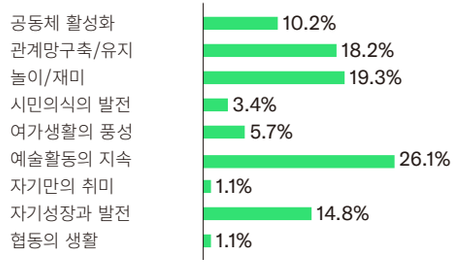
‹그림III-14› 프로그램 기획방식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 실태조사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프로그램과 스스로 선택한 기획방식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예술활동의 지속'이 26.1%로 나타났음. 또한 '놀이/재미'가 19.3%와 '관계망구축/유지'는 18.2%로 나타났음.

‹그림III-15› 프로그램 기대효과



— 이는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예술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예술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 공간 운영 목적에서 커뮤니티 활동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과 연계하여 볼 때, 예술활동과 커뮤니티활동 그리고 지역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운영자들의 활동 내용으로 진단됨.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과 지역의 관계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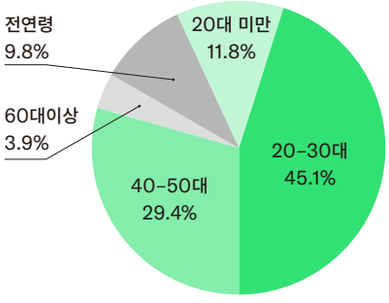
— 실태조사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을 이용하는 연령층은 20-30대가 45.1%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50대가 29.4%, 20대 미만이 11.8%를 차지함. 공공 문화예술기관이나 생활문화공간에서 흔하게 접하는 연령대가 아니며, 매우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함.

— 또한, 지역-커뮤니티를 기반하고 있는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음에도 이용자들이 서울전역(66.7%)과 기초권(16.7%)인 반면, 동네권이 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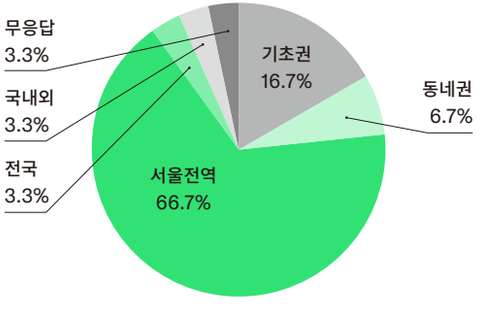
— 이는 생활권(生活圈)[34] 범위를 넘어 이용자가 원하는 공간이라면 스스로 찾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행정적 의미의 지역분포는 의미가 없으며, 취향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함.

— 또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서울 전역을 공간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III-16› 공간 이용자 연령층



‹그림III-17› 공간 이용자 지역분포



■ 주체가 생각하는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비전

— 실태조사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는 공간을 '공유 공간', '창작활동 플랫폼', '예술가와 주민소통'으로서 인식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공간의 비전을 생각하고 있음

— 공간은 공간 주체에 의해 새로운 공간이 생산된다고 볼 때, 주체는 공간을 공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4) "행정 구역과는 관계 없이 통학이나 통근, 쇼핑, 오락 따위의 일상생활을 하느라고 활동하는 범위"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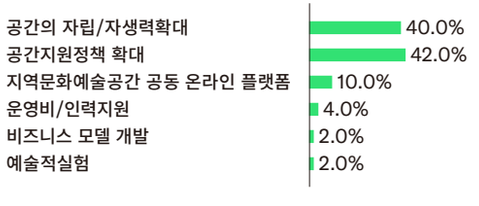
— 공유, 플랫폼, 소통의 매개로 인식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은 공간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공간을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음.

‹그림III-18› 주체가 생각하는 공간의 비전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요소

— 실태조사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운영주체는 공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공간지원정책 확대(42.0%)'와 '공간의 자립/자생력확대(40.0%)'를 필요한 요소로서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

‹그림III-19› 공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소



—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는 '공간의 자립정도'가 중요한 요소임. 때문에 공간은 각각의 수익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서울지역의 지대,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의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공간의 자립은 운영주체와 공공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공간지원정책 확대'와 공간의 사회적 쓰임새를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예술공간의 공동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비/인력지원' 등의 의견이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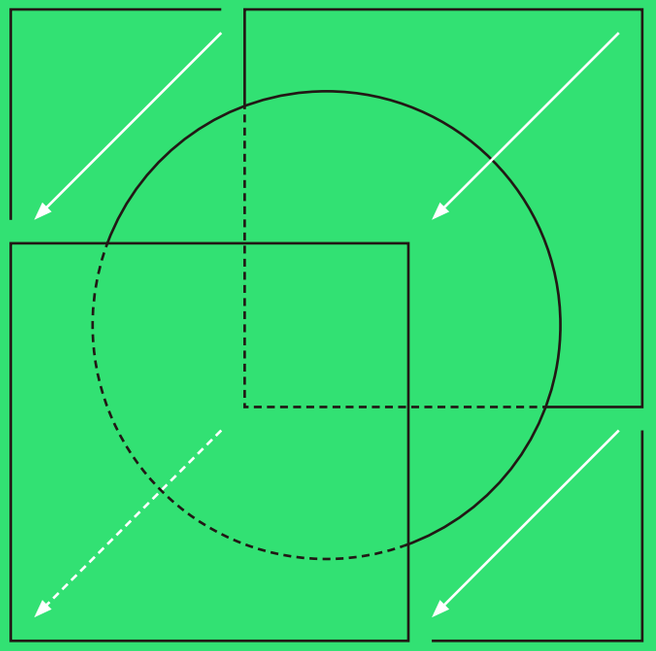
— 반면, 문화예술공간의 운영자립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예술적 실험'의 확장을 제기하기도 함.

— 이는 문화예술공간의 사회적 쓰임새를 높이고, 보다 특성화, 특색화 하는 가운데,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의 의견임.

IV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분석

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진단의 관점

2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내용적 분석



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진단의 관점

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관점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분석의 1차적 어려움

—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분석을 위해 실태조사는 공간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냄.

— 이는 단지 시설의 구성, 규모, 운영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운영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수준임.

— 즉, 공간 조성의 '동기', 운영의 '다양성', 공간과 지역과의 '결합방식'의 다양성으로 인해 전체를 읽는 조사양식 개발이 어려웠으며, 그렇게 조사된다면 조사서의 양은 매우 방대하고 세부적일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현대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의 분출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연계된 문화예술공간의 분화과정을 이해한다면 이는 당연한 결과임.

■ 공간연구로부터의 기본 관점구성

— 상기 공간 연구에서 검토된 내용인 '공간은 사회적인 것을 담아내는 틀이며 사회적 역동을 반영하기에, 공간과 사회 사이에 상호 역동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어느 공간이든 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을 연구하는 데 있어, 공간 정체성과 공간을 기반 한 실천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질적 조사의 필요가 있음.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이 자본주의적 균질화 된 질서에 포획되지 않고, 일상의 다양성에 기반한 공간의 다양성(르페브르의 표현으로는 차이공간)을 유지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이 겪는 어려움의 유사성을 추출하는 것은 공간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르페브르의 표현으로는 추상공간으로 지배받지 않기 위한) 투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표III-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분석을 위한 기본관점

구분	내용	분석의 유의사항
공간에 대한이해	· 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되며 공간적 실천을 통해 공간적 차별성을 획득함.	
문화예술공간의 이해	· 사회적 소통의 결과이며, 공간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본질적으로 문화공간임. · 새로운 예술은 일상 속에서 존재방식으로서 공간을 취하고, 공간적 실천은 곧 예술적 실천을 의미함.	공공문화예술공간과 다른 생성 및 존재 방식 인식 필요
문화예술공간의원리	· 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되며, 공간과 사회는 상호성을 가지고 있음. · 공간은 특정 가치를 표현하고 배치하는 전략으로 작동함.	민간문화예술공간은 정책의 틀로 구획되지 않는 인식 필요
문화예술공간의 위기	· 공간은 지배공간으로 전환되는 위협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구현됨. · 자기 정체성과 차별성을 가진 공간은 사회적 위협, 상업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음.	민간문화예술공간의 존재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공통성 여부 확인 필요
문화예술공간의 사회적 의미	· 기술의 혁신이 자본주의적 질서를 보다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함. · 개인화, 양극화 등 사회적 변화에서 공간은 삶의 다양성, 도시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출구로 작동함.	

2)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관점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운영자 FGI 실시

— 이러한 기본 관점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46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을 대상으로 대면 그룹 인터뷰 요청함.

— 인터뷰에는 27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전체 46개 선정 대상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중에서 58.7%가 참여한 수준임.

‹표III-2› 공간 운영자 FGI 개요

구분		내용
FGI 목적		· 서울 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운영 실태와 원리에 대한 분석
FGI 기간		· 10/31–11/5 (6일간)
FGI 주요내용		· 문화예술공간 조성 취지, 운영원리에 대한 조사 · 문화예술공간 사업 내용과 재정 운영 상황 · 문화예술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FGI 참여공간	1회	17717, 공간릴라, 성미산마을극장, 아카이브 봄
	2회	재미공작소, 반디극장, 별별곳간
	3회	카페보스토크×스페이스공공연희, 이너프, 탈영역우정국, space 55
	4회	마을극장수유리, 무대륙, 동네형들, 달꽃창작소, 우리동네나무그늘
	5회	즐거운가, 문화공유공간산책, 네스트나다, 안티카페 손과얼굴, 미인도, 행화탕
	6회	공간사일삼, 연희예술극장, 책방 달리 봄, 카페마을, 꿈꾸는 다락방
	총 27개 공간	

2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내용적 분석

1) 다양성과 정체성을 가진 문화예술공간

■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상호 유사성

— FGI에 참여한 27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공간 간의 일정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음.

— 공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산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공간 간의 유사성은 우리사회가 가진 맥락이나 공간이 생산한 사회적 해석과 관련이 있음.

—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이 가진 가장 두드러진 유사성은 활동이나 공간 운영의 유연성 혹은 다양성이라는 성격임.

— 비록, 각각의 공간은 자기만의 형식을 가진 공간으로 존재하지만, 공간 혹은 공간에서의 활동은 매우 가변적이고, 때때로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함.

— 특히 이들의 기획방식은 예술가, 기획자, 동네 주민은 물론 다양한 이질적 요소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음.

> "...17717은 연령대로 보면 20-50대 작가의 작품 전시를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한편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동네 주민이자 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시집을 출간하면 출간기념회 장소로 사용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복합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
> **17717**

> "...명확한 정체성을 띠고 서점을 했을 때 공격하러 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약간의 두려움과 아예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들었는데, 다행히 좋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같이 일을 많이 했어요. 둘이서 운영하는 공간인데 저희가 기획하고 행사를 열고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강연자, 작가, 학자들, 활동가들이 찾아와서 이런 일들을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어요. 덕분에 다양한 워크숍, 강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 공간이 저희만의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간이 된 것 같아요."
>
> **책방 달리, 봄**

— 이는 공간 운영자가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연 공간일지라도, 이에 호응하는 시민들과 결합되면서 독특성이 공간의 특성 혹은 정체성이 되는 과정을 겪음.

— 이러한 정체성으로 인해 인터뷰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원칙이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자유로움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으며, 주변에 끊임없이 말을 거는 과정(메시지를 발화하는 과정)을 통해 주변과의 소통은 물론 일종의 지원자를 획득함.

— 이는 우리사회가 가진 변화와 불안정에 대응하는 공간의 자기 방어 혹은 새로운 예술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공간의 자기 생산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간 전반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유지하는 방식일 수 있음.

"...작년과 올해 '시공간집'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작년에는 12명의 시인, 올해는 10명의 시인과 했는데요. 시인 별로 2편의 신작 시를 받아서 작년에는 8일, 올해는 10일 동안 시를 전시했어요. 이 전시의 특징이라면 전시에 오는 사람들에게 근접 촬영을 금지시킨 거였어요. 마음에 드는 시가 있어서 공간 밖으로 갖고 나가고 싶다면 나눠드린 노트에 필사를 하거나 녹음을 해야만 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시인분들도 만족하고 관람객들도 만족했지요. 요즈음은 전시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역발상으로 사진을 못 찍게 하면 어떨까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시인의 경우 보통 문예지를 통해 신작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창구를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 했던 것도 있었는데 시인분들이 좋아했어요."

재미공작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배운 다음에 뭘 한다는 것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경험이 가장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실패를 하게 만들어요. 나이가 들면 실패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쉽게 이뤄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든 만들어봅니다. 하나가 망가지면 또 다른 것 하면 되니까요. 열심히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곳이 있어서 된 것이죠. 반면에 정말 못했는데 붙는 공모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운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관이 어떻게 될지,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 해외에 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해보고 벌려보고 아니다 싶으면 접고 그것에 대해서 유연합니다."

꿈꾸는 다락방

■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 그렇지만, 대부분의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임. 본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되었지만, FGI를 통해 스스로 드러낸 공간의 정체성은 크게 3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음.

— 이러한 범주화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동력을 섣부르게 일반화하는 우려가 있지만 명확하게 유사한 공간적 특성이 발견되었음.

‹표III-3›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자기 정체성 유형

성격	FGI 대상 문화예술공간
대안공간 혹은 새로운 예술공간	17717, 아카이브봄, 재미공작소, 탈영역우정국(리니어콜렉티브), space55, 네스트나다, 행화탕, 안티카페손과얼굴, 무대륙, 동네형들, 공간사일삼, 연희예술극장, 책방달리봄, 카페보스톡 ×스페이스공공연희 (무소속연구소)
일상적 예술창작 공간	공간릴라, 반디극장, 평마을예술창작소별별곳간, 이너프라운지, 미인도, 마을극장 수유리, 카페마을, 성미산마을극장
문화적 키움과 돌봄의 공간	즐거운가, 문화산책공유공감, 달꽃창작소, 우리동네나무그늘, 꿈꾸는다락방

— 물론 이러한 공간의 정체성은 하나의 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형적 형태로 끊임없이 변화에 대응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유지되는 등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음.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의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왜 중요한가 생각하면 이것이 지속할 힘이거든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형태가 바뀌면서 만드는 것이죠. 형태를 짜놓은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면서 만드는 것이 기획이 되는 것의 특성이고, 구성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공간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이 사람이 활동을 할 때는 이런 색깔로 보였다가, 책방 프로그램을 할 때는 애들이 바글바글해서 '여기는 뭐하는 곳인가'라고 다양한 형태로 보여요. 각각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공간을 바꿔가면서 활용합니다."

카페마을

"...공간을 근거지로 일어나는 작업 외에도 축제나 창작 사업 같은 외부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외부단체와 연계해서 저희 공간에서 활동을 하기도 해요.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건이 일어나고 기억이 공유되어 관계 맺음을 갖고, 이 관계는 또 다른 것들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때그때 진행합니다. 가장 밑바탕은 개인의 욕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죠. 올해는 개인 작업은 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교육, 리서치, 기획자들과의 모임, 아티스트와의 만남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공간에서 매일매일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 개를 하는 데도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람은 뭘 모르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다 싶어서 네, 네 하고 넘길 때가 있어요. 저는 공간이 때론 비어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비어있어서 발견하는 것도 있어요. 2017-2018년 공간지원사업과 프로젝트지원사업 등을 진행한 바 있는데, 올해는 아무 지원사업 및 자체 기획 프로젝트를 안하다 보니 그냥 살아가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화탕

2) 욕구와 결핍에서 비롯된 공간의 사적 동기와 공적 성격

■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게 된 계기

— FGI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대개 사적인 욕구 혹은 결핍으로부터 구체적인 문화예술공간을 고민한 것으로 드러남.

— 여기에서 사적인 욕구는 1인 개인일 수도 있지만, 집단일 수도 있는데 다만, 거대하고 사회적인 동기라기보다는 개인 혹은 집단의 욕구를 드러냄으로써 사회적인 환경과 만나게 됨.

"...지역의 문제를 참여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실험을 해보자 해서 의제들을 리서치 하는 중에 미아리 고개 고가도로 밑에 재활용 쓰레기를 적재하고 청소하는 공간을 발견했어요. 그 공간에 청소도구 같은 것들을 적재해 두다 보니 우범지대가 되어서 실제로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죠. 그 문제에 주목해서 어떤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일본의 요쿠하마의 집창촌의 다리 공간을 문화로 재생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고가다리 밑을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자치구 구청장의 적극 지원을 받아서 시작했어요. 예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프로젝트 1억 지원사업을 성북문화재단과 공탁에 참여하고 있는 건축가 그룹, 스페이스 오뉴월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했어요. 기획은 공탁 안에서 준비했지만 사업지원은 컨소시엄으로 했지요."

미인도

"...나무그늘을 만들 즈음에 지역 정치를 고민하던 분들이 많았고, 마을공동체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어요. 성미산마을의 경험을 갖고 있던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해보고 싶고,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모임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더해져서 장소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드는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욕구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동네 나무그늘

"...청소년을 만나다 보니 그 친구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활동하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나도 더불어 내 지인들과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공간을 만든 지는 10여 년이 되었는데, 서울시 마을공동체 초기 사업 중에서 청소년 휴카페가 있었어요. 휴카페 지원을 받으면서 정체성이 조금씩 만들어진 것 같아요. 청소년 중에도 특정 대상들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 대상이고 특별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도 있고요. 그런 구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뭘 하기보다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꿈꾸는 다락방

— 또한 사적인 결핍도 욕구와 유사하게 조성동기로 작동하는데, 개인 결핍이나 집단이 공유한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조성하고 사회적 행위를 도모하게 됨.

"...처음은 컬렉티브팀으로 활동하는 기획을 하던 팀이었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물질이 없는 작업이다 보니 허무감이 있었어요. 앞으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저희가 20대에 활동을 하다 보면 중간에 여러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공간에 와서 이런 일을 하라는. 이런 일의 제안과 수락이 구두로 되다 보니 어그러지기 쉬워요.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이었고 이럴 거면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우리가 더 재미있게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안티카페 손과 얼굴

■ **개인 혹은 집단의 욕구나 결핍이 표현되는 방식으로서의 문화예술공간**

— 그러나 이러한 욕구와 결핍이 왜 문화예술공간으로 표현되었는가라는 문제는 문화예술공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렛대가 됨.

—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개인의 욕구나 결핍이 자기로 환원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즉, 자신의 욕구를 위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복권을 사는 방식 혹은 결핍으로 인해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방식과 거리가 있음.

— 이들이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 데에는 이들의 활동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 운영자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III-4>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 결과 운영자의 직업군

직업군	해당자(명)	비율
기획자	12	40.0%
예술가	12	40.0%
활동가	4	13.3%
무응답	2	6.7%
계	30	100.0%

— 때문에 참여자들은 문제의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했고, 대개는 유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욕구를 채우거나 해소하는 방식을 선택함.

"...처음 어린이도서관 시작할 때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 엄마 대상으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책 문화를 만들고 또 엄마가 성장해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는 과정을 만드는 공간을 위해 시작했어요. 마침 2001년에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어서 지역 내 엄마들과 아이들 중심으로 동아리들이 형성되었어요.."

문화공유공간 산책

"...행화탕은 본래 공간 운영을 하려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 혼자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누군가와 같이 하려면 나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이 합쳐져서 하나의 비전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존재할 수 있냐고 내게 묻는다면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태초부터 존재한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 작업하는 이들에 의해 등장한 것이니까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재고 그 치수에 맞는 조직형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행화탕

— 시각분야 예술가들은 보다 뚜렷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 작품을 전시하거나 대중과 공유할 기회조차 쉽지 않은 상황[35]으로 인해 스스로 공간을 창출하기도 함. 대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이에 따라 욕구를 채우거나 해소하는 방식을 선택함.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작업실은 구해야 하는데 시장은 작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실제로는 작업실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작업실을 구하다 보니 프랑스에서 스쿼팅이라는 운동이 성행했고 우리나라의 스쿼팅 활동을 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이 문래동에 있었어요. 도시연구도 하고 빈 공장에 들어가서 작업도 했어요. 도시사회연구소라는 팀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문래동이 그런 곳인가 해서 찾아갔어요. 서울에 이런 낡고 외딴섬처럼 소리를 지르고 뚱땅 만드는 소리를 내도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월세도 저렴해서 40평 복층 공간의 공장을 친구 3-4명과 작업실로 얻었어요."

공간사일삼

■ **개인 혹은 집단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으로서의 문화예술공간**

— 이러한 문화예술공간은 공간으로서 자리 잡는 과정 즉, 공간을 조성한 후 지역과 연계되어 지역 생태계 안에 자리하게 됨.

— 이 과정을 통해 초기의 문화예술공간의 사적 동기는 사회적 필요와 연결되어 공적이지만 다양한 성격을 생산하게 됨.

— 이는 사적 소유의 민간 문화예술공간이 공공성(commons)을 획득하는 과정이며, 공간 자체가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생산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마을예술창작소 공간지원으로 2년을 보내고 프로그램 지원으로 2년을 보내다가 3번째 이사를 간 2017년 2월에 저희는 완전히 결정을 내렸어요. '자, 이제 이 공간은 우리 세 사람의 작업실이 아니다', '여기는 마을예술창작소 공간릴라라는 곳이니까 이제 개인 짐들은 정리를 하자', '그리고 같이 공간을 나눠서 쓸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쉐어하자'고요. 마술소라는 지원사업이 저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지역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공간을 하다 보니 공간이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게 성장해버린 것이죠."

공간릴라

"...대중들이 다양한 예술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상의 빈곤'이라고 진중권씨가 말했고 요즘은 체험의 시대잖아요. 거꾸로 남다른 뭔가를 가지고 대중이 봤을 때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 체험하고 보는 것의 중요성, 그것이 저희 공간의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사업이 되니까 포기하려던 것에서 기운을 내서 하나라도 더 시도를 해보고 싶고 거기서 다시 물꼬가 터지고 후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타이밍에 아티스트와의 연결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방방곡곡, 로컬문화가 있는데 지역 특유의 보수와 편협한 시각이 있어요. 좋은 양식, 컨텐츠를 디벨롭하면 그 보수성을 깨는데 기여하게 되고 그것이 공공성이 아닐까요.

연희예술극장

3) 지역에서 상호작용함으로서 얻은 생명력

■ **공간의 메시지와 반응하는 사람의 변화**

— 대개의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마을주민과의 네트워크도 있지만, 예술가 혹은 기획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간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있음.

— 공간에 참여하는 예술가나 마을 주민들은 공간을 통해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공간이 있음으로 활동이 촉진되는 경험을 통해 공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

— 문화예술공간의 이러한 개인 혹은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 공간의 구성력과 관계의 힘을 강화하고 변화를 촉발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극단과 지역이 관계 맺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성미산 공동체 주민과 지역의 다른 주민의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갭입니다. 이런 거리감을 해소하는 방법과 기여할 수 있는 곳은 지역의 문화예술공간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과 어르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은 마을과 공동체를 만나고, 마을은 마을대로 극장에서 새로운 지역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새로운 주민들은 마을공동체를 대하는 느낌이 조금은 달라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마을극장을 중심으로 만난 마을과 저희 극단은 서로 기여하고 있고 마을에서 받은 것을 지역에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을 분들과 너무 많이 만나게 되고 어우러져 살게 되니까 휙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움직이기 어렵지만 그 만큼의 책임감도 생깁니다."

성미산마을극장

"...운이 좋게도 연희동에 아티스트가 너무 많아 살아서 만나게 되었고, 이런 살롱 문화가 익숙한 분들이 많아서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요. 그런 분들과 자체 기획을 위해 연극을 만들면 홍대 패션디자인과와 관련 있는 분이 홍대 학생들을 콜라보를 시켜주세요. 컨텐츠만 개발하면 예산이 엄청 들어요. 근처 뮤지션과 지역주민이 많이 가는 고기집에 가면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신연출, 이렇게 저를 부르면서 만나서 저희 극장가서 또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올해에 우리 기획 공연 2개 잡자라고 해요. 디자이너, 작가들과의 협업은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만들지는 세분화하기 힘들어요. 각자 일이 있기

35) 시각 예술가들은 전시 공간의 대여가 상당히 고가이고, 그나마도 대관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공간을 열고 자유롭게 기획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음. 이들은 인사동이나 평창동과 같은 지역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의 공간을 다양한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스스로의 기회도 만들고 다른 작가와 협력하기도 함.

때문에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연희예술극장

■ **공간 운영을 통해 운영 주체의 성장**

— 대개 인터뷰에 응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운영 주체들은 공간을 구상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을 통해 문제에 직면하고 또 이를 해결해 왔으며, 현재도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인터뷰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대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운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

— 어떤 형태이든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은 공간 운영의 의미를 스스로 확인하고 공간의 변화와 성장에 따라 함께 성장하고 있음.

"...이너프살롱은 누구나 주인이 되어 운영해볼 수 있는 가게로 유형, 무형의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는 공간이었고, 가게 주인이 된 분들과 손님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서로 함께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게)를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굉장한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어요. 그 안에서 제 역할은 단순한 스케줄러이자 청소 아줌마로 규정했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백업하는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이구나'라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 저도 그렇지만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분들도 점점 더 주체적으로 개입하면서 공간을 활용하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이제는 공간이 사라지면 안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졌구요. 결국에는 협동조합이든, 마을 기업이든 어떤 형태로 주민분들과 공간을 독립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인 것 같아요."

이너프라운지

4) 가변적 운영과 유지방식의 비정형성

■ **공간의 필요와 운영의 어려움**

— 대부분의 공간이 욕구와 결핍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공간이 이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데에는 운영자의 의지가 반영되기 마련임.

—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망이 확장되고 지역 혹은 네트워크 속에서 일정한 "자리"를 마련하게 됨.

— 그러나 지대가 높고 급격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에서 문화예술공간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님. 이는 자본주의적 상업화와의 전면전을 치러야 하는 것을 의미함.

— 또한,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 소음이나 다수 참여자의 출입은 지역과의 마찰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때 영토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

"...멤버쉽, 그룹운영체제, 후원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사공이 많아지거든요. 운영진의 경우도 취합과 모으는 것 자체가 일이고요. 사람의 힘을 빌리려다 더 큰 일을 벌이는 꼴이 됩니다. 의도와 방향은 맞지만 당장 벌리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해요."

탈영역우정국

"...저는 민원을 가치 측정으로 봅니다. '이 지역에서의 포용도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기준인 거죠. 민원을 처음 받을 때에 속상해하니까 선배들이 '야, 한강공원에서 해도 민원은 들어와'라고 해요. 민원을 보니까 그냥 한국사회가 과도기적 권리와 의무의 착각 속에서 나온 현상이라 봐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민원이 '들어왔다' 혹은 '안 들어왔다'를 놓고 활동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서울이 바뀌고 있는가를 보는 부분에서 민원의 유무가 리트머스이기도 해요."

카페보스토크 × 스페이스공공연희

— 지역마다 공간마다 제각각 이에 대처하는 각각의 공간 경험치를 높이는 과정은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과정임.

—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예술공간은 지속적으로 운영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최적화되기 마련임.

"...밴드를 찾아서 공연을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쓰는 데 비해 결과물이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나중에는 하는 분들이 상설로 매달 마지막 주, 두 번째 주 공연을 진행했어요. 그분들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장르나 목적에 부합하는 밴드들을 모아서 매달 다른 라인업으로 공연을 했어요. 일단 처음 상주 공연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저희의 방향성과도 맞고 검증이 된 분들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대륙에 원하는 것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부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라인업을 만든 것들이 좋은 공연으로 나왔습니다. 매달 한번 공연을 7년 동안 기획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요. 쉬고 있는 분들도 언젠가는 기회가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많이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제안을 받고 저희와 맞으면 공연을 결정합니다."

무대륙

"...저희는 명확한 것은 상근직원이 6명인데 제가 이름만 대표이고 각자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입니다. 이런 것이 운영구조라고 보는 것인데 프로젝트를 각자 책임지고 하는 것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은 논의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과정과 사업은 그 사람이 책임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스스로 주도하고 본인이 재미를 느끼지 않으면 정말 직원이 되어버리잖아요. 저희는 담당자가 주민과 소통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의 니즈가 있는 경우에만 소통해서 프로그램 기획하고 진행해요. 그 니즈가 있는 주민들이 사람들을 모았을 때 세팅을 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기획자가 먼저 세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결정되고 나면 그 사람이 책임져요. 담당자의 성향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대신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운영구조인 것 같습니다."

마을극장 수유리

5) 지배 정책에 포섭되지 않는 거리두기

■ 문화예술공간의 두 가지 위협

— 대부분의 문화예술공간은 두 가지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하나는 상업주의의 위협과 월세로부터의 위협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공공지원과정에서 타자화 혹은 정책 논리로부터의 포획되는 위협임.

—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월세부담에 시달리고 있음. 대부분의 공간이 월세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조달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 대응할 정도의 운영 유지력을 확보하였다고 해도,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 거의 모든 공간은 위협을 받고 있음.

"...저희는 문래동4가 큰 공장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고 임대료가 오르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공간 건물주를 만나서 제 그림을 선물했어요. 재계약을 할 때도 그동안 작업한 소품을 갖고 가서 걸어드리고 활동한 리플렛도 드렸어요. 알고 보니 건물주 자녀가 미술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더 와 닿았는지 월세를 올리지 않고, 보증금 없이 재계약을 10년 했고요. 앞으로의 기간도 또 재계약을 했어요. 문래동의 다른 공간은 월세가 많이 올라서 문 닫은 곳들이 많죠."

공간사일삼

"...매달 말이면 정신이 나가죠. 저희는 암튼 초창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알고 시작했고 정착하게 된 느낌인데요. 저희가 공익을 위해 개방한 공간이 협동조합이 아닌 상업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자립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지하공간의 수익이 없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공연장의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유지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너무 마이너스이니까 쌓이면 부담이 되더라고요. 1층 공간이 잘되면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 텐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무대륙

— 이에 따라 일부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운영자들은 공간의 자립이라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운영자들은 공공지원정책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공공정책은 민간 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정책의 필요로 사용한다는 시각임.

— 또한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공공지원의 개념과 인식이 천편일률적이거나 시설 중심으로 공간이 가진 다양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

"...공간 지원사업이 나왔을 때 3년 안에 자립하라고 해요. 어떻게 자립을 하죠? 공간에서 차를 팔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립을 하는 경우도 못 봤고요. 그런데 컨설팅 와서는 자립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죠. 임대료 지원이 되는 사업도 나왔는데 초반에는 임대료, 인건비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지원사업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초창기에 우리가 잘하면 계속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한 것일 뿐이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지원사업과 관계부처와는. 그냥 룰인거죠. 오래오래 우리랑 하면 안 되는 것이었던 거죠. 오랫동안 비영리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동네형들

"...저는 국가 정책 중에서 영리와 비영리 부분의 실질적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수익에서 최저임금과 운영비를 뺐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를 영리라고 해야 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관으로 돈 벌잖아요', '영리공간이잖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들 말합니다. 최저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간은 작가와 상생할 수 있는 영리공간이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했어요. 비영리 공간으로써 작가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전시밖에 없어서 사실상 작가와 공간의 공생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요. 작품을 팔 수 있으면 좀 더 현실적인 유대관계가 이뤄지거든요. 젊은 콜렉터들이 작품을 구매해준다면 공간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금 등을 받으려면 영리 여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겠죠."

Space55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서 벌어지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지원은 공간에 대한 물리적 지원이 아니라 활동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데 물리적 공간으로만 한정하니까 공간에 대한 지원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이라면 창작지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활문화라던가 네스트나다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지원입니다. 공간지원이라고 해도 공간에서 하는 활동을 보면서 구조화하면 창작지원은 광역지원, 국가지원이 훨씬 적절하고요,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죠."

미인도

6) 지속가능성을 위한 탐색

■ 공동의 문제의식과 공감에 대한 인식

— 인터뷰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운영자들은 문화예술공간 운영의 필요성, 활동의 의미를 공유할 뿐 아니라,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인터뷰 과정을 일종의 네트워크 과정으로 인식함.

— 많은 참여자들은 도시에서의 공간 담론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문제를 제기함.

— 실제 개별화되고, 획일화되어 가는 도시에서 다양성과 생동감을 확장하는 동력으로서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음.

> "...획일적이고 덩어리의 느낌에서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 것을 로컬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요. 로컬을 지역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다양성이라고 맞겠다 싶어요."
>
> **카페마을**

> "...우리가 공공지원사업으로 공간을 운영하면 공공 공간이 되는 거죠. 행정에서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주는 공간을 비영리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비영리공간이 되면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의 공공을 서비스와 연결하는 태도 자체에서부터, 그 방향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퀄리티의 문제, 컨텐츠의 확장성, 이상한 것에 담기는 아무 곳에서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어야 하는데, 서비스의 영역을 말한다면 '너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살아남지'라는 요구가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자본을 투여해서 만드는 문화예술의 확장성과는 다른 별개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별개로서 담을 수 있는 예술성도 있고 그런 작업을 통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차원이 아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
> **공간사일삼**

■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모색

— 따라서 문화예술공간을 통해 예술적 실험과 사회적 역할을 하는 예술가 혹은 기획자의 문제의식과 서울시의 도시정책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물론 그에 앞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운영자들이 경험한 공간실천의 사회적 의미가 재구성되고 다양한 상상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인터뷰에 참여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운영자들은 문화예술공간의 생존과 관련된 고민을 공유할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음.

> "...공간지원사업은 규모에 따라 인건비를 적정 규모의 액수로 예를 들어 1-2인, 2-3인의 지원 등을 해주면 공간은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세는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의 대관비나 프로그램 참여비 같은 것으로 충당이 됩니다. 또 인건비를 지급하면 정산도 깔끔합니다. 영수증도 필요 없고요. 활동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차라리 지지부진한 영수증 증빙 처리하는 시간에 공간을 오가는 사람, 활동, 작업을 기록하고 모아서 일년에 한번 서울시 단위, 지역 단위로 아카이빙을 전시로 하면 엄청난 공간과 지역, 사람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고 그것 자체가 지원사업의 결과물이자 예술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강력히 공간지원은 사람으로 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
> **공간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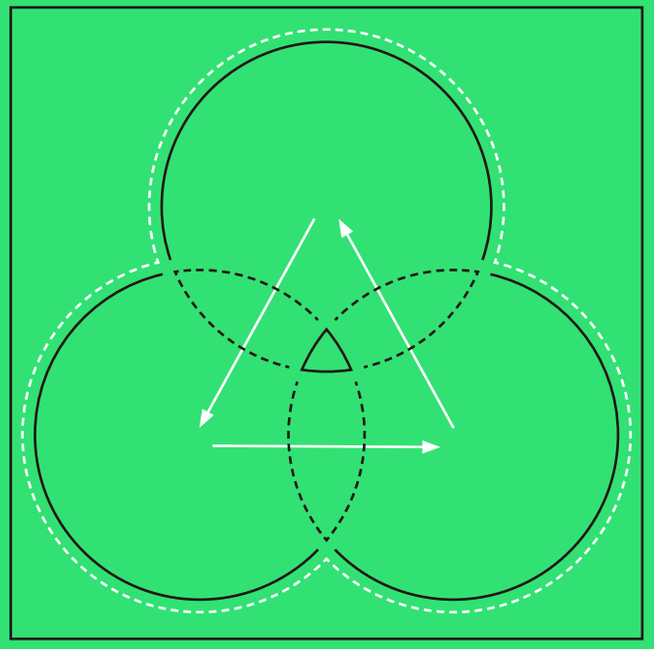
> "...서울문화재단이나 광역 재단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추동하고 기초에서 이런 공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게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오신 선생님들도 주민자치회 가게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치를 증명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 필요 없다고 하면 순수한 의지로 그 공간을 운영해야겠지만 지원사업의 구조에서 운영하려면 그 공간의 가치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
> **미인도**

V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연구의 의미와 과제

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진단의 관점

2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의 과제



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진단의 관점

1)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의미와 연구의 시사점

■ 도시에서의 문화예술공간

— 현대사회의 변화는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기 속 개인과 사회의 대응 전략이 요구됨.

— 특히, 기술의 혁신과 인구 구조의 변화는 도시의 삶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데, 서울시민의 삶과 공동체에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 이에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한 삶의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문화적 접근방식을 의미함.

— 이러한 개인과 집단의 노력은 일상의 다양한 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간 문화예술공간은 이러한 실천과 탐색의 중요한 장(場)임.

— 또한, 변화하는 삶을 표현하고 새로운 문화를 구성하는 일상에서의 예술활동은 이러한 실천의 중요한 영역임.

■ 미래사회 문화예술공간의 확장성

— 문화예술공간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되는 사회적 산물이며, 상업적 도시 환경으로부터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공간임.

— 기술의 혁신, 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 우리사회는 '노동 없는 사회'에서 인간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가치의 노동'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임.

— 따라서 지역과 일상에 자리한 문화예술공간은 삶의 정체성과 관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며, 문화적 돌봄과 키움의 방식을 공유하는 전환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위협

— 현재는 물론, 미래사회 문화예술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문화예술공간은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르페브르가 제기하였듯이, 지배 권력과 상업화에 의한 추상공간화의 위협은 공간지원정책의 획일성, 월세부담, 젠트리피케이션과 무관하지 않음.

— 따라서 지배권력의 방식을 강요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재구성, 상업화로부터의 위협에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탐색과 성찰이 요구됨.

2)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연구의 시사점

■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확대

—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서 문화예술공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진행됨.

— 서울에는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공공정책으로 조성된 문화예술공간 뿐 아니라, 민간 문화예술공간은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

— 공공분야 문화예술공간은 공간의 미션과 비전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규칙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만, 삶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오늘날 삶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수요는 민간 문화예술공간의 확장 배경이 되고 있음.

■ **서울지역 민간 문화예술공간의 다양화**

— 민간 문화예술공간은 사적 영역이면서 공적 성격을 발화하고 있고,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음.

— 이러한 민간 문화예술공간은 다양한 운영 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예술가, 문화기획자, 활동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이들에 의해 구축된 네트워크는 조직의 형태보다는 자발적 관계망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시민네트워크에서 예술가네트워크까지 경계를 넘어 각 공간의 정체성에 맞게 구축됨.

— 이러한 관계망을 통해 각 공간의 자기정체성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장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공간의 활동 위협**

— 서울지역에 문화예술공간이 각각의 네트워크를 구동하면서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크고 작은 문화생태계가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대부분 월세 구조로 존재하고 있으며, 공간 존속과 관련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공공지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공간지원정책은 각 공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다양성을 지원기준에 맞게 획일화하는 경향이 있음.

■ **연구의 결론**

— 연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한 점은 ① 서울지역에는 많은 민간 문화예술공간이 존재하며 ② 이러한 문화예술공간은 지역을 기반으로 각각의 생존방식을 가지고 있고 ③ 생존방식의 다양성과 유연성으로 집약될 수 있으며 ④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문화예술공간은 ⑤ 지속가능한 공간 활동을 위해 다양한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⑥ 항시적으로 상업화의 위협과 준비되지 않은 공공 지원정책에 훼손될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따라서 ⑦ 문화예술공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場)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⑧ 공간의 자립 모델에 대한 탐색과 함께 공공의 역할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음.

2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의 과제

■ **연구의 의의**

— 이 연구는 다소 막연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모호성과 혼동을 겪었음.

— 그럼에도 이 연구는 서울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의 실제적 의미를 탐구하고, 존재방식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도출함으로써 예술가와 기획자의 사회적 역할을 확인하였고, 문화예술공간이 지역 생태계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이 연구는 서울시의 도시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공간 특히,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예술공간을 정조준 하여 탐색하고 존재의 의미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특히 관 주도적 정책관행이 뿌리 깊은 우리사회에서 민간 문화예술공간을 사회적으로 호명하기 위한 준비라는 점에서, 그것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정책적 의미를 가짐.

■ **향후 연구의 과제**

— 본 연구는 민간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1단계 연구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음. 민간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간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은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진보된 독해과정임.

— 그러나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개별의 민간 문화예술공간은 여전히 가능성과 의미로 남아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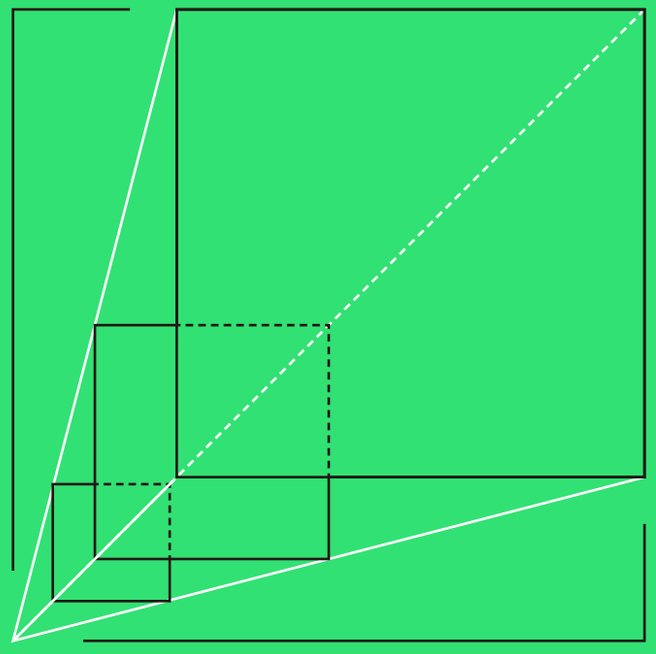
—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과제는 서울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민간 문화예술공간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공간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는 것임.

— 또한, 민간 문화예술공간을 비롯하여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사회적 의미와 정책적 중요성을 탐구할 후속연구가 요구됨.

‹표IV-1› 문화예술공간에 관한 후속 연구과제

	후속 연구 과제	주요 내용
1	**민간 문화예술공간의 문화생태계 탐구**	문화예술공간이 구축하는 관계망을 통해 작은 문화생태계 사례 연구
2	**새로운 예술실천으로서의 공간 연구**	새로운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예술적 방법, 공간 실천에 대한 연구
3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정책 개발**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방식 개발 연구
4	**공공 문화예술공간 운영방안 연구**	지배담론으로부터 공간적 생산이 구현되는 공공문화공간 운영방안 연구
5	**도시정책으로서의 문화예술공간**	전환기 도시정책으로서 문화예술공간의 사회적 역할 연구

참고문헌



— 토마스 쿤(Thomas Samuel Kuhn), 홍성욱 옮김,『과학 혁명의 구조』, 까치글방, 2013

—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양영란 옮김,『공간의 생산 The Production of Space』(1974), 에코리브르, 2011

—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 이무용 외 옮김,『공간과 비판사회이론 Postmodern Geographies』(1989), 시각과 언어, 1997

— 박미숙, 강상구, 작은도서관, 「일상적인 지역문화 공간으로 의미와 해석」, 2019 작은도서관 콘퍼런스

— 최병두,「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과 도시·공간적 소외」,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제2호, 2018

— 최혜자, 「2018년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사업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서울문화재단, 2018

— 최혜자,「문화의집과 생활SOC」, 문화의집포럼, 2018

— ---,「2017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서울문화재단, 2018

— 양은아,「대학로의 문화예술공간으로의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 최진,「'미적 판단'에 주목하는 인문적 예술교육의 접근을 위한 일고찰— '정치적'인 것과 '인문적'인 것의 개념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 11(2), 2017

— ---,「생활문화센터 공간 가이드북」, (재) 생활문화진흥원, 2016

— 서우석,「앙리 리페브르가 바리본 공간」, 국토개발부, 1999

— 「문화예술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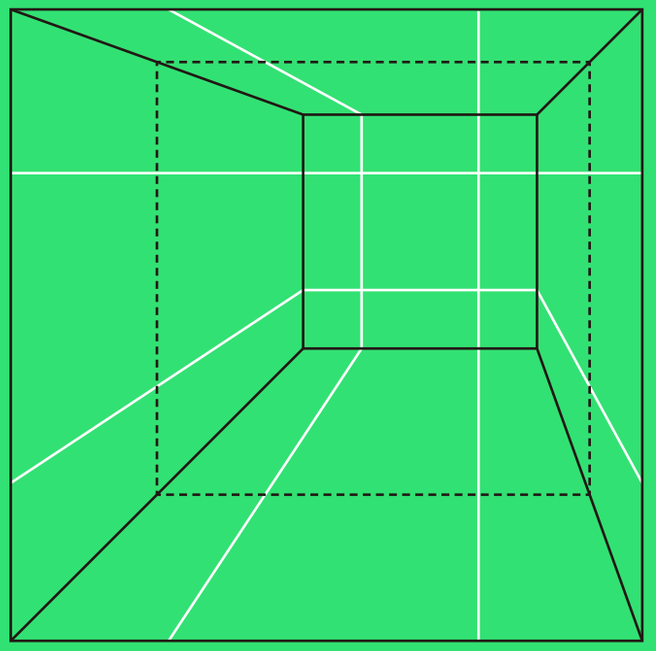
—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 서울문화재단 https://www.sfac.or.kr

— 일상예술창작센터 http://www.livingnart.or.kr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3424554 (미술계 판도 바꾼 '대안 공간' 10년, 2018.12.18.)

부록



부록목차

부록1	연구 에필로그	92
부록2	공간운영자 1차 라운드테이블 녹취	102
	공간운영자 2차 라운드테이블 녹취	116
	공간운영자 3차 라운드테이블 녹취	134
	공간운영자 4차 라운드테이블 녹취	152
	공간운영자 5차 라운드테이블 녹취	186
	공간운영자 6차 라운드테이블 녹취	212
부록3	2019 지역현장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서	246

부록1 연구 에필로그

1. 왜 연구의 에필로그가 필요한가?

모든 연구는 연구의 가설을 두고, 연구방법을 설계하여 진행합니다. 문화 분야 연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 분야 연구는 자연과학적 실험과는 다르지만, 정량이나 정성적 방법 혹은 두 가지를 혼합한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담아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연구가 부족할 수는 있으나 진행된 연구의 결과와 한계를 차분히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연구가 끝나갈 무렵, 모든 연구자들이 심하게 "찜찜한" 기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각은 연구 과정에서 뭔가가 충분히 도출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끝나고 마무리할 즈음,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의식을 언어로 담아낼 만큼 정리되어 있지 못하였고, 변죽만 울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말았습니다. 좀 답답하지만, 그런 수준으로 정리하고 연구를 마무리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연구는 종료되었습니다. 그 찜찜함을 남긴 채.

그래도 연구 에필로그라는 방식으로 찜찜함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문헌연구였다면, 덮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문화예술공간의 운영자를 생각하면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구진은 이 글이 동일한 주제를 고민하는 연구자에게 생각의 간식처럼 작용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2. 생각지점 하나,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을 읽는 언어의 혼란

우리 연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정책적 방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다만, 쉽사리 정책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서울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이 어떻게 서식하는지를 살펴보고, 해석하는 과제에 집중할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연구라는 틀 속에 있는 우리 연구는 서울지역의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정책지원에 관한 담론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공간지원정책이 있지만, 현재의 정책적 한계(정책이 지원 대상을 행정적 절차와 방식으로 묶어두고야 마는)를 뛰어넘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자면, 정책 결정과 예산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탐색하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는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 즉, '세금을 쓰는 것이 마땅한' 이유를 만들려고 했고, 이에 문화예술공간을 관통하는 '공적 성격'으로부터 탐색해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적 성격 다시 말해서, '공공성'이라는 말은 첫째,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official) 것을 의미[36]하거나 둘째, 모든 사람들과 관계된 공통적인 것(common)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셋째, 누군가에게나 열려있음(open)의 의미가 있습니다.[37]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명백하게도 두 번째.

그러나 이 공공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공공성은 권력의 의지 영역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심지어 권력 영역에 있지 않아야 한다고도 합니다). 또한, 공공성은 '공공성 = 공동체'라는 등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성은 조직이나 형식이라기보다는 가치를 가진 상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등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성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시대정신과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36) 국가의 행정 활동으로서의 공공성은 공익의 의미가 강한 공공성(publicness)을 사용하기도 함.

37)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18쪽

그러나 이 말장난같이 모호한 공공성 즉, 정책의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에 접근하고 서술하는 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사회 언어와 가치의 인플레 속에 공공성, 공적 영역, 공동체, 공론장 등은 제각각 이해하는 수준에서 통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38] 우리가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앞으로 걸으면서 뒤로 후퇴하는 묘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언어를 헤치고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가?

38) 공공성은 시대적 맥락에 따라 그 내용과 원리를 달리하고 있음. 우리는 여전히 공공성이라는 것을 근대적 가치관의 틀에서 사유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음. 아직도 공공성을 시민, 공공복리, 의사소통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정부 영역에 속하지 않고, 사적(비지니스) 영역에도 속하지 않으면서도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그 합의를 정부 영역에서도 구현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문제의식과 차이가 있음.

3. 생각지점 둘,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공공성을 구체화하는 어려움

이러한 공공성을 읽기 위한 도구로서 연구진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시선을 빌려오기로 하였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산업사회에서 흔하게 있는 공공성의 부재에서 문화의 소외를 읽고 이를 “문화의 위기”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아렌트가 문화의 위기로 삼는 시대는 20세기 중후반의 미국이며, 문화의 위기라고 생각한 지점은 ‘소비되고 없어져 버리는’ 문화 향유방식과 ‘세련되고 교양 있는’ 문화를 소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비되거나 소유되는 문화향유 방식은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사라지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렌트에게 있어 사유의 부재는 전제주의가 발호하는 지점이며, 문화가 위기에 빠지는 지점일 뿐 아니라, 개인이 소외되는 지점입니다. 심각한 상황인거죠.

아렌트는 문화의 영역을 ‘일상적인 삶에서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사유와 판단의 영역’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 영역에서 사유하고 판단하는 활동은 자기 자신과의 합의 상태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단순한 추론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의견을 고려하는 활동입니다(이 얼마나 근사한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사유와 판단은 타당성을 가지게 됩니다.[39] 물론 이때 타인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의 타인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상상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스스로에게 물으며 타인의 의견들을 검토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이 얼마나 굉장한지).

이처럼 문화의 영역에서 사유와 판단을 통해 소통이 가능한 것은 사람들 간에 공유되어있는 ‘공통감각(common sense)’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나 예술에 대한 사유나 판단은 주관적인 평가이면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공통감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때의 보편성은 불변하는 진리나 옳고 그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될 수 있는 ‘소통가능성’에서 획득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39) 한나 아렌트, “문화의 위기” 실린 곳: 『과거와 미래사이』, 서유경 역, 2005년, 푸른숲. p. 294

그렇다면 아렌트는 왜 사적이고 고립된 자기완성으로서의 예술 경험이 아닌, 공통감각을 통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읽고 있을까? 문화가 인간의 더 나은 삶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체의 행위 양식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문화는 일상의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만들어지고 판단되는 공동의 대상을 보면서 경험되고 이야기되며 소통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서를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 문화예술공간은 지역과 일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이나 참여자를 만나고, 이들은 느슨한 관계망 속에 쉼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간 운영 주체들이 가진 공간 운영 의지와 활동의 다양성은 좀 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참여한 문화예술공간들은 그들의 활동과 의미를 분석하는 틀로서 설문구조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연구진은 실제 현상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된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공공성을 읽는 방식으로서의 조사 방식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각 문화예술공간과의 인터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4. 생각지점 셋,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을 읽는 방식의 혼선

최근 10년간 문화예술공간은 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서울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을 살펴본 연구자들은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 공간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과거 시민단체들의 공간이나 공부방, 작은 도서관, 대안 공간 등 많은 민간 문화예술공간이 존재하였지만, 연구진이 만난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은 다양성과 존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연구진은 아렌트의 공공성 혹은 공적 영역의 개념으로 읽는 것이 혹시 '섣부른 일반화'의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 간의 회의를 통해 27개 문화예술공간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하나의 틀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공간을 세밀하게 읽고, 이 공간의 활동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공간에서의 활동을 '공공성'으로 정리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문화예술공간 그 자체에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문화예술공간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또는, 무엇을 피하고 더 나아가 탈주를 시도하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을 탐구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에 의해 '생산되어진' 공간에서의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흥미로우면서도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은 이들의 공간을 탐색하기 위해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공간이론에 기대기로 하였습니다. 1960년대 이래 서구사회에서는 공간을 사회적 생산의 결과로 인식하면서, 다양한 공간이론이 형성되었고, 인간의 장소 경험과 장소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담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은 무한하게 생각하면서, 공간은 주어진 것, '단지' 물질적인 것으로만 여겨왔다는 것은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코믹하기도 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러한 문제의식이 확대된 것은 수십 년에 불과합니다.[40]

40) 담론화되었다는 말임. 서양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우리사회를 비롯하여 아시아권 사회에서는 장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서울 도성을 구축하는데, 입지 선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음. 개인의 집터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 내가 흐르며, 문은 남쪽으로 두고, 안방과 부엌을 기기묘묘하게 연결하는 등 구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구성은 대가족의 형성과 이웃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공간이론 중에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르페브르는 공간은 사회적 개입의 산물이며 생산과 전유의 논리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르페브르는 공간을 생산, 소비, 교환공간으로 구분하는 것을 경계하고, 공간을 (정치적 도구, 계급투쟁이 일어나는)사회관계가 형성되는 곳이며, 정치·사회·경제와 문화적 체제를 중재하는 곳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르페브르는 공간 생산의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를 '공간 재현', '공간적 실천', '재현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공간 재현'은 만들어지고 개념화된 공간으로 우리로 하여금 공간의 질서를 저절로 알게(지각하게) 합니다. 산업도시의 공간, 정부 청사 등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것을 르페브르는 이데올로기적 질서라고 읽었습니다. '공간적 실천'은 공간 계획가들에 의해 구축된 도시나 건축 환경 속에서 행동을 규범화하는(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이나 외국에서 왔을 때 서울에 들어오자마자 몸의 속도가 빨라지고 경쟁적 행동을 하는 등의 인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재현 공간'은 사람의 감각이나 느낌, 신체의 오감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체화되는 공간이며, 일상의 주체들이 생산해 내는 일상의 경험적 공간을 말합니다. 이런 곳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연구진들은 도시공간이든, 문화공간이든 규모와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보고, 그것을 서울지역의 민간 문화예술공간에서 읽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간이라는 게 태생부터 쭉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공간이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르페브르는 공간의 양상으로부터 공간의 성격을 추출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상업화와 지배논리에 의해 도시나 일상의 공간들이 점점 '추상공간'으로 변모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추상공간'이라는 것은 각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조건이나 고유한 특성과 그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공간적 정체성이 사라지고, 대신 추상적 동질성으로 균질화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추상공간"은 일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사건들이 만들어내는 "재현" 등으로 인해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모순은 공간의 주체를 통해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간이 바로 "차이공간"이며, 이는 공간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과연,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특히 근대화와 상업화로 일상의 공간이 획일화된 공간에서 '사람의 감각이나 느낌, 신체의 오감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체화되는 공간이며, 일상의 주체들이 생산해 내는 일상의 경험적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서울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은 획일화된 통제권 밖에서 지속적으로 일상의 영역에서 관계를 만들고,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산된 공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간조성정책으로 조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적 문법에 맞지 않더라도 뭔가 새로운 전환적 성격을 가진 공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것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못 본 척하고 두는 것이 더 나은 일일까요?

이러한 질문으로 인해, 연구 초기 "공공성"으로 서울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을 읽으려고 했던 시도를 멈추고, 연구의 뒷부분을 "더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섣부른 결론이 그 생동감 있는 다양성을 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정한 모종의 범주들로 '아무것도 읽을 수 없다'가 아니라 '그 범주를 넘나드는 복합적인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조심스러워졌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짐작하는 것보다 현실의 생동감은 더 급진적으로 현상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여러 사유 갈래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소위 추구한다고 말하는 공간의 지향성, 이를테면 지속가능성, 자생성, 지역성, 소통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주체는 어쩌면 인간만이 아닌 물리적 공간, 혹은 둘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것일 수 있다는 애매한 결론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5. 이 많은 생각 지점을 어떻게 할까?

사실, 연구 초기 서울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운영자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임대료/인건비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거대하고 획일적이며, 경쟁적인 도시에서 다양성과 풍부함을 만들고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에 맞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후퇴하고 나니 연구의 마무리가 개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의 고민을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울문화재단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이 원리와 가치에 맞는 정책적 시선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며, 문화재단이 이러한 문화적 시선을 가지고 문화예술행정을 보여주어서 고맙기도 합니다.

우리 연구진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탐색되지 않은 이 "찜찜함"을 이후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를 통해 기록을 남깁니다.

연구진 일동

연구공간운영자 1차 라운드테이블 녹취

일 시	2019년 10월 31일 10:30-12:30
장 소	문화디자인 자리
참석자	공간운영자 : 공간릴라(허선희), 성미산마을극장(전세훈), 17717(김선문), 아카이브 봄(윤준혁), 연구진 : 최혜자, 김성진, 최진, 이라선영 서울문화재단 : 한민지

■ 사회자 오프닝

최진

— 문화예술공간의 지원 정책을 위한 연구 사업입니다. 공간 선정을 위해서 논의를 했고 몇 차례 선정 논의를 했습니다. 미리 범주화는 하지 않았고 어떤 특성, 어떤 공간을 지원할지 정하기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현황,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소개해주시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민지

— 지역의 공간은 한정된 영역을 넘어서 하는 것 같아요. 공간 지원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을 기대하고 자리를 마련했고, 공간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경험까지 포함해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공간 소개

177171

— 공간에 국한해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성북동에 빈집이 나와서 '초록옥상'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운영하였고,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라는 잡지를 펴내는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만들면서 활동했습니다. 이후, 놀이터 같은 공간이 필요했는데 자신의 건물 지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지역주민의 제안을 받아서 '17717'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500만원 보증금에 38만원 월세면 6명만 모으면 시작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든 성북동의 첫 공간이었던 '초록옥상'에 이어 두 번째 공간인 '17717'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시작한 걸음을 멈추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나눌수록 커진다는 신념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 ‘17717’은 연령대로 보면 20-50대 작가의 작품 전시를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한 편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동네 주민이자 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시집을 출간하면 출간기념회 장소로 사용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복합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6년 전 초록옥상에서는 또래 청년들과 함께 『뿌리깊은나무』 잡지 읽기 모임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그때의 공부 모임이 '17717'로 이어져 '뿌리깊은나무·샘이깊은물 소장 전시'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 해를 시작으로 해마다 지역의 문화유산과 예술 자산을 활용한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 2013년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주측으로 진행된 '성북동 마을학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동네에 필요한 것을 찾는 과정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사업이 마을잡지였고요, 그 뒤에 청년허브의 '청년활력공간 우리동네 무중력지대사업'을 2년간 수행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 지원해서 지원사업을 받기도 했고요. 17717 공간이 6년째 운영 중인데 건물주인 주민이 제안했기 때문에 월세를 낮게 계약을 했고, 지금까지 인상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저는 전시를 진행할 때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지 않아요. 작품 이전에 그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함께 어떻게 전시를 준비하고 시작하면 좋을지를 먼저 구상합니다. 인건비는 외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기관이나 재단의 심사 혹은 컨설팅을 하면서 받는 사례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간 운영 비용은 현재까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봄

— 아카이브 봄은 또래 사람들의 커뮤니티로 만들었다가 점점 일을 많이 하면서 공간의 성격이 정립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목표가 뚜렷하게 있어서 만든 것은 아니고 공간을 기반으로 사람들과 전시, 상영, 세미나 등을 했고, 필요하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 처음에는 복합문화공간에 가까웠는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간을 중심으로 일을 하면서 각자의 전문성이 생겼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쪽으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 패션, 영화, 요리를 한 사람들이 성장해서 자기 브랜드나 전문성을 가지고 서서히 독립을 했어요. 다들 독립하고 나선 저의 전문성과 관련된 미술 관련 성격이 남아서 2015년 이후 갤러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 용산구로 이동하면서 다른 기능과 분리하면서 갤러리로 공간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는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층을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용산으로 이주한 후, 주로 20-30대 작가들의 개인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용산에서는 3년째 운영 중인데 6명의 작가들의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 3년 전의 고민은 ‘비평과 기록을 제대로 남기면서 돈을 들여 만드는 괜찮은 개인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3년 전에는 작업물이 쌓인 작가들이 제법 있으니 전시를 기획하면 좋겠다는 현실의 반영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에 문화예술 쪽에서도 작가 지원사업이 있어서 마침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개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욕구들은 해소되었어요. 그리고 개인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져서 지금은 제대로 된 기획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중입니다.

공간릴라

— 저희는 마포의 성미산마을에 만난 세 사람이 개인 작업을 연결하는 공동 작업실이자 주민들과 워크숍을 하는 공간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해서 시작했어요. 저는 문화예술기획자이고, 한 사람은 음악을 하는 대안학교 교사, 한 사람은 부모교육과 여성 인문학에 대한 고민이 있는 테라피스트이자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였어요. 모여서 술을 먹다가 겁도 없이 시작했어요. 이렇게 등에 공간을 지고 사는 느낌인 줄 알았으면 시작을 안했을 것인데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질렀어요. 내년이면 10년이 되고 벌써 4번째 공간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2년은 지원사업 받지 않고 해보자고 하다 보니 등이 휠 것 같았어요. 정작 하고 싶어서 계획한 기획은 시작도 못하고 운영비를 버느라 각자 바빴어요. 어느 날 제가 '안 되겠다, 지원사업을 작게라도 하자,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알아보는 중에 동네 마을예술 공간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마을예술창작소(이하 마술소)였습니다.

— 예술이 좀 더 일상에 내려와서 누구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숨어있던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래서 저희 공간 이름도 산스크리트어로 신의 놀이, 우주의 놀이터라는 뜻입니다.

— 올해 이사한 공간은 처음 시작한 공간과 완전히 달라요. 앞의 3개의 공간은 저희가 돈이 너무 없어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 공간을 빌렸거든요. 좀 더 다정하게 모임을 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쉬어가기도 하고 경계 없이 음악과 시를 섞어보기도 하고, 청소년들과 시 쓰기도 하는 등 주택이라는 그릇에 담아도 충분한 내용들이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고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성미산마을극장

— 성미산마을극장은 2009년에 지어져 10년이 되었어요.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원금이 있으니 직원도 있었어요. 예비사회적기업 기간이 끝나고 2012년부터는 대관비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다들 퇴사를 했고 마을주민이었던 스텝 한 명이 2년간 대관 관리만 했어요. 그 분도 본업이 있다 보니 도저히 안돼서 그만두게 되고 빚도 해결이 안돼서 동네에 하소연 대회를 했습니다. 5년 동안 내 아이의 무대였다는 등 주민들의 추억이 쌓여 있어서 닫지는 못하고 2013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출자를 받았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극단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이 있었어요. 관객 없는 공연이 주는 허무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유대감을 가져가서 창작을 하면 극단이 성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모으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을극장이 협동조합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후에도 운영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너 건너 아는 분이 너희들이 와서 상주하면서 공간 관리를 하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운영위원회가 경계를 해서 일반조합원으로 있으면서 많이 친해졌을 무렵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도 극장 근처로 이사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4년 다 되어갑니다. 극단은 극단대로 성장했고요.

— 극장은 상주단체 지원 규정에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게 되었고, 서울시 소극장 지원은 대학로가 아니어서 안 되거든요. 시민 공간 나루에서 내준 공간이어서 월세 130, 전기 7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인건비는 없어요. 초기에는 협동조합에서 기획 회의도 하고 설비도 같이 살폈는데, 저희 극단이 상주하게 되니까 일이 전부 극단과 나에게 얹혔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2017년 청년예술공간지원사업 등 여러 지원을 받았습니다. 극장 자체가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하며 출발했지만 다 채워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대관료만으로는 유지가 안 되어서 예술가 베이스를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 예술가들은 오지 않아요. 입지 조건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창작작품을 인큐베이팅 하는 자리로서 기능하고 있어요.

■ **심층 그룹인터뷰**

김성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고민되는 지점은 어떤 것일까요?**

성미산마을극장 — 공간 운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공간이 비영리 시민단체 공간의 지하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영리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원금 개념으로 월세를 기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증빙이 안 되어서 결국 관리비로 처리했는데, 문제가 생겼는지 결국 다음 해에는 관리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2년 전에 생활문화사업이 시작되고 마을극장이 생활문화지원센터가 되었어요. 주민들에게는 생활문화지원센터의 방향으로, 전문극단에는 대관비 할인을 통해 작품의 인큐베이팅을 돕는 방향으로 지원하자는 방향이었습니다. 한층 위의 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첫해에는 잘 받고 좋았는데 작년에는 너무 늦게 9월에 지원금이 나와서 두 달 만에 모든 사업과 예산을 집행해야 했어요. '다음 해를 지원을 받으려면 늦게라도 안 받을 수 있겠나' 해서 부랴부랴 꾸역꾸역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적정하게 지원사업이 진행되어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봄 — 작품을 판매할 때 큰돈은 안 되지만 그 자체가 작가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구입하는 사람은 한번 작품을 소장하게 되면 이후 작업이라던가, 작가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그런 관심이 작가의 활동 지속을 하게 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는 같은 업계에 있는 콜렉터들, 작가들이 작품을 많이 구입했는데, 가끔 동네 분들이 구입하는 경우가 생겨요. 보면 그게 단계가 있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금해해서 주민들이 작가의 페이스북 주소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면 작품은 얼마냐고 진짜 가게처럼 이 작품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구입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런 작품 판매를 지원기관들에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탈락 사유가 됩니다. 대관을 하고, 도록을 판매하거나, 개인사업자로 하는 행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나, 저희보다 더 작은 공간은 보통 단체 등록,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무겁고 문턱이 높아서 등록하기도 어렵고 저희 같은 공간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 아르코의 경우 필터링을 위해서 2년 이상 지원 규정을 두는데 사업자가 등록된 날짜와 업태가 바뀌는 등 변화에 따라 오래된 공간인데도 지원 자격에 미달되기도 했어요. 자생, 자립이 애매하다고 느낍니다. 자립이 큰 목표였을 때 펀딩을 해서 공간을 사서 들어갔어요.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하니까 월세를 아껴서 전시에 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자립에 가까워 보이니 지원시스템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애매하게 하우스푸어가 된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다시 임대 형태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 아시겠지만, 영리를 추구해도 돈이 잘 안 벌립니다. 정책상에서 세밀하고 면밀하게 연구를 해야 합니다. 지원사업 안에서는 상업화된 갤러리와 소공간들 사이의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단체 지향과 상황을 읽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그냥 상업 갤러리라고 생각해버려요.

김성진 **주민들과의 연결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카이브봄 — 사실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넣어요. 나름 품격 있는 동네의 품위를 해친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최선이었고요. 공간을 오래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지역과의 통로가 생기긴 해요. 사실 저희 공간의 전시 내용이 주민들이 보기에 좀 불편함을 주는 작업도 있는데도 지나가다 보기도 하고요. '여기서 예술활동이 벌어지고 뭔가 재밌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가끔 할머니들이 들어와서 관람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좋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작품은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들과 들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작품을 보면서 애들과 대화를

하기도 해요. 저희가 그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는 않지만 공간이 지역 주민을 딱히 거부하지도 않아요.

17717 — 저희 같은 경우는 동네 근처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그 말이 또 고맙죠.

공간릴라 — 예술 소모임들이 독립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모임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어락 번호를 아니까 그냥 들어와서 잘 쓰고 잘 정리하고요. 지역의 커뮤니티들이 필요하면 대관비를 내고 사용합니다. 마을의 커뮤니티와 릴라의 친구들이 대관하면 1시간에 만원, 외부에서 대관하면 15,000원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모임은 기본적으로 4회 6만원이라는 기준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공간릴라에서 기획하고 시작해서 3년차 이상 되는 악기모임이 3개가 있고, 보통 동호회 활동으로만 진행하는 탱고를 조금 더 커뮤니티성이 짙게 진행해보자고 해서 마을 탱고 모임을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 진행하고 있어요. 2013년부터 6년째 금요일 1시에 인근 거리에 나가서 공연하는 '금요일에 슬그머니'는 이제 주민들이 지나가다 저희를 보고 "아,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하십니다.

공간릴라 — 지역과의 관계를 가져가면서 성장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첫 해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았던 것에 비해 지금은 절반 이상 채워줍니다. 극단이 공간에 있다 보니 창작 자체도 지역주민들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게 되고, 지역의 이야기를 끌어오기도 합니다.

최진 — **공적 공간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더욱 확대된 의미로 해석하고 더 넓게 봐야 하는 것 일까요?**

아카이브봄 — 공공성에 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작가적, 사적인 예술은 공공적이지 않은가, 시민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공공성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피드백이 긍정적이지 않거나 불편해하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러한 분란으로 인한 피드백이 예술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술의 전 과정을 모두 공공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지역 공간의 자립, 자생이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 현실을 외면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것보다 안 된다고 선언하고 포기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공간 운영을 위한 여러 기반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입장료를 받으려고 고민했는데 그 인건비가 표로 들어오는 수입보다 더 듭니다. 이런 공간을 지원하는 것은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 비용 아닌가요? 예술 공간 운영의 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통념과 정서에 기대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어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어떤 고민으로 사업을 집행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최진 — **공간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성미산마을극장 — 단과 지역이 관계 맺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성미산 공동체 주민과 지역의 다른 주민의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갭입니다. 이런 거리감을 해소하는 방법과 기여할 수 있는 곳은 지역의 문화예술공간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과 어르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은 마을과 공동체를 만나고, 마을은 마을대로 극장에서 새로운 지역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새로운 주민들은 마을공동체를 대하는 느낌이 조금은 달라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마을극장을 중심으로 만난 마을과 저희 극단은 서로 기여하고 있고 마을에서 받은 것을 지역에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을 분들과 너무 많이 만나게 되고 어우러져 살게 되니까 휙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움직이기 어렵지만 그 만큼의 책임감도 생깁니다.

공간릴라

— 마술소 공간지원으로 2년을 보내고 프로그램 지원으로 2년을 보내다가 3번째 이사를 간 2017년 2월에 저희는 완전히 결정을 내렸어요. '자, 이제 이 공간은 우리 세 사람의 작업실이 아니다', '여기는 마을예술창작소 공간릴라라는 곳이니까 이제 개인 짐들은 정리를 하자', '그리고 같이 공간을 나눠서 쓸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쉐어하자'고요. 마술소라는 지원사업이 저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지역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공간을 하다 보니 공간이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게 성장해버린 것이죠.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아이를 키우고 돈도 벌어야 하는 숨가쁨의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예술로 자기 자신을 만나기를 바랬어요. 어느 날 우쿨렐레 모임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삐삐, 내가 여기 와서 우쿨렐레 모임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나를 위한 차를 마시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

■ **추가질문**

최진

실태조사에서 바라는 점에서 공통을 체크하신 것들이 공간지원확대인데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하는지 지원 방향을 제시해주세요.

17717

— 저는 공간이 사회진입장벽이 없이 잘 놀다 가는 곳이었으면 했고 나아가 어떤 제약이 없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북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간들을 보며 아쉬움이 드는 순간이 많았어요. '인력도 있고, 재정도 안정적이고, 여유도 있는데, 작업이나 운영이 왜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우리에게 인건비를 주고 공간사업을 맡기면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구요. 지역 안에서만 진행하고 협력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지원사업들이 실적을 쌓는 협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또 기존의 커뮤니티의 문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시각예술 지원할 때 대관비를 지원해주는데요, 공간 상주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면 다른 지원 요소가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임대료 중심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성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공간릴라

—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간지원 받는 사람들, 즉 다른 마술소 사람들과 공간지원사업은 어때야 하나를 물어보고 생각해본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공간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겨서 영리를 할 만한 곳들은 거의 없어요. 심사를 받을 때 심사하는 선생님들도 다 문화연구를 하시거나 기획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되려 이렇게 물은 적도 있어요. '지속성 말씀하시는데 선생님들 지원사업 완전 지속성이 확보되던가요? 되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고.'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 공간운영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자잘한 다과 이런 것 정산하는데 품이 많이 들어도 인건비는 또 그나마 해결되어서 좋다고는 하지만 지원 규모가 적정 규모가 아니에요. 공간은 결국에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기획자는 가장 뒤에서 존재를 지워가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것으로 과정이 남도록 하는 그림자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 공간의 상상을 열고 어떤 때는 버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공간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공간은 칼라가 더해지게 됩니다.

— 결국은 공간지원사업은 규모에 따라 인건비를 적정 규모의 액수로 예를 들어 1-2인, 2-3인의 지원 등을 해주면 공간은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세는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의 대관비나 프로그램 참여비 같은 것으로 충당이 됩니다. 또 인건비를 지급하면 정산도 깔끔합니다. 영수증도 필요 없고요. 활동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차라리 지지부진한 영수증 증빙 처리하는 시간에 공간을 오가는 사람, 활동, 작업을 기록하고 모아서 일년에 한번 서울시 단위, 지역 단위로 아카이빙을 전시로 하면 엄청난 공간과 지역, 사람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고 그것 자체가 지원사업의 결과물이자 예술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강력히 공간지원은 사람으로 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미산마을극장

— 마포지역에서 공간 지원 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공간 지원사업으로 얼마 지원해주고 결국 무료로 서비스 운영해주길 바랍니다. 공간 운영에 투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획비, 인건비나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되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 사회자 마무리

최진

— 공간 운영과 운영자의 관계와 지원이 입체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앞으로 있을 5번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짚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주셨어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연구공간운영자 2차 라운드테이블 녹취

일 시	2019년 10월 31일 14:00-16:00
장 소	문화디자인 자리
참석자	공간운영자 : 재미공작소(이재림), 반디극장(정희영), 별별곳간(선경희) 연구진 : 최혜자, 김성진, 최진, 장혜령, 김지영, 이라선영 서울문화재단 : 김진환, 한민지

■ 사회자 오프닝

한민지

— 서울문화재단에서 연구를 시작한 이유는 시설지원 연구는 있는데 민간 공간에 대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파악을 하고, 향후 공간정책사업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지원할 것인지 설계하기 전에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기초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영

— 저도 현장에 있다 보니 지원사업이 내려오면 공간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정책에 맞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장 공간과 기획자들에 대한 지원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철학, 방향성, 지역 안에서의 공간의 의미와 가치들,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다음 지원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공간 소개(배경, 현재 하고 있는 일 등)를 부탁드립니다.

■ 공간 소개 및 인터뷰

반디극장

— 반디극장은 2년 반 정도 되었고. 2017년 5월 오픈했어요. 도봉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 원래 공간이 없이 마을 주민 센터, 마을 카페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을 했어요.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크고 공간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도봉구가 서울 중심부에서 멀긴 하지만 그나마 접근하기 좋게 버스 중앙차선과 가까이 있고 역에서도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봉구는 다른 서울 지역에 비해 월세가 저렴합니다.

— 반디극장의 이름은 주민, 예술가 등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불을 밝힌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작업도 하고, 극장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주민모임, 마을예술창작소 사업 지원도 받아서 그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생활문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관계성을 맺기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연습장, 극장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한 공간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기가 어떻게 극장이냐며 당연히 지하 공간인 줄 알고 지하에 갔다가 올라오시기도 합니다. 대대적인 큰 공연은 할 수 없지만 소규모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재미공작소 — 2011년 상수역 근처에서 운영자 둘이서 시작했어요. 둘 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작업실로 시작했는데 공간을 통해 이익도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중에는 당시 익숙하지 않았던 공유 작업실로 주말에는 운영자들이 하고 싶은 재미있는 일을 벌이는 곳으로 운영을 했죠. 운영을 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쉽지가 않았어요. 오픈 후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할 때가 됐는데 더 이상 홍대 인근에서 버틸 수 없어서 지금 있는 문래동 공간으로 2013년 이전했어요. 이전 후, 상수동에 있을 때처럼 공동 작업실로는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 주말에만 하던 재밌는 일 위주로 운영 방식을 바꾸었고 지금까지 두 사람이 기획하는 공연/전시, 젊은 창작자와 워크숍, 팝업숍, 문학행사 등으로 만 7년차 운영하고 있어요.

별별곳간 — 2013년에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사업으로 민관협력형 지원사업 모델에 선정되었어요. 3억을 3년 동안 지원해서 수도가압장(서울시소유)을 리모델링을 해서 조성했습니다. 민관협력형 모델이라 3년 동안 지원사업을 하는데 매년 자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그 자부담 부분을 은평구청이 지원했어요. 종료되는 시점에서 구청이 구보조금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실행이 가능했던 것은 은평구 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가 협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 역량이 있는 민간이 구청과 같이 축제를 열고 문화예술위원회도 요구해서 만드는 등 협치라는 단어가 있기 전부터 계속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 2017년부터 정식으로 구보조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구보조금 운영 3년차입니다. 그 사이에 생활문화지원센터 사업비도 받아서 현재는 연회비, 구보조금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에서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구보조금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라 구의 생활문화 조례를 만드는데 '공간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넣으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곤란해하고, 우리는 '민관거버넌스로 만들어진 공간이니 보조금 없이 어떻게 운영하냐'며 강제하고 있는 항상 불안한 상황입니다.

■ 심층 그룹인터뷰

장혜령 — **공간들의 주체로 참여자가 늘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왔는지 궁금합니다. 공간을 채우는 것은 사람이고 창립자인 선생님들만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궁금합니다.**

재미공작소 — 운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 사람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장혜령 — 두 분의 작업하는 시간과 공간의 운영의 관계는 어떤가요?

재미공작소 — 어렵게, 어렵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는 현대미술작업, 저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김지영 — **공간을 운영하는 데 힘을 더해 줄 사람, 간섭하거나 참견하는 사람들, 내 공간처럼 인식하면서 다음 방향성까지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그런 분들을 찾고도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재미공작소 — 저희 공간 자체가 두 운영자의 취향과 관심에 기반해서 운영되다 보니 다른 분들의 참여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또 두 사람밖에 없다 보니 공간으로 돈이 안 벌려도 각자 생활비는 알아서 해결하면서 공간을 운영할 수 있어요. 여러 명이 있으면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공간 운영의 경우, 주중 오후 시간은 운영자들의 작업 시간으로 사용하고 기획행사는 보통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을, 장기 워크숍은 주중 저녁 시간을 활용합니다. 평소에 외부에 오픈된 공간은 아닙니다.

별별곳간 — 우리는 문화를 매개로 만나는 마을마당이고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서의 마술소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더 방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초동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이 반, 반은 계속 공간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주민들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매월 회의도 하고 일 년에 2번 워크숍도 합니다. 현재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문화예술동아리, 주민모임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것 위주입니다. 예술 동아리들의 활동이 있으니 문화예술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6시간씩 근무하는 상주직원이 있고, 인건비는 구보조금에서 지출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실무자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 책임대관으로 실무자가 없는 밤시간, 주말 운영을 합니다. 주말에도 공간 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원래 꿈꿨던 것은 인근 지역 주민이 마을회관처럼 사용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이 이용했으면 했는데 그것보다는 은평구 전반적인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혜령 — 은평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좋은 케이스인가요?

별별곳간 —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구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구의회에 서울시에 내는 연월세, 500백만 원 예산으로 올라갔다는데, 그 말은 나머지 예산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말이죠. 실제로 그런 공간이 은평구의 다른 가압장에 생겼어요. 그러니 더욱 더 압박이 되지만 저 스스로도 고민이 됩니다. 마술소 지원사업이 끝난 운영자들과 얼마 전 FGI 테이블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곳은 두 곳 밖에 없고 나머지는 진짜 어렵게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어렵긴 하겠지만 부럽기도 했어요. 운영자들과 공간에 오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돈 모아서 지원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이 괜찮지 않은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자치구로부터 압박도 크고 보조금과 지원사업을 받게 되면 그것을 행정 처리하는 것도 품이 많이 들잖아요. 특히 은평구는 오늘까지 뭘 제출해달라고 하면 그날 해줘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대표가 다 해야 하는데 항상 그 일을 꿰고 있는 것이 아니니 공부하면서 지원사업을 처리해야 해요.

장혜령 — **행정은 기관의 목적에 맞지 않게 실무에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치구에서 자립을 요청하고 있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별별곳간 — 올해 12월 워크숍에서는 운영위원들과 그 얘기를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근하는 대표가 있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습니다. 실무자들은 예산과 행정 페이퍼링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보다 주민들과 잘 소통하는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급여도 최저시급이라 큰 가치를 갖고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기에 1년 넘는 실무자가 2명밖에 안돼요.

장혜령 — 그래도 별별곳간에는 지역주민이 있는 거네요.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운영상에 어려움은 숙제로 갖고 있지만 이 공간에 대한 구상을 하는 사람들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큰 기반입니다. 사람이 있으니 자치구에 제안이나 압박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고요.

별별곳간 — 그렇죠. 회비 내는 회원은 1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연 회원 100인, 그것만이 기반이죠.

김지영 — 저희도 양천구에서 활력소 공간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희는 임대료를 내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요즘 사업들이 대부분 자치구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점은 지역에서

기득권화된 세력에게만 지원이 내려가지 않을까입니다.
관의 공간을 사용할 때 자율성은 얼마나 보장될 것인가에 대한
지역의 인식이 낮은 편이라 고민을 길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디극장 — 저희는 상근인력을 두고 공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극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비용을 만들지는 못해서 어렵습니다.
상근인력을 두거나 같이 하자고 하기에는 좋은 구조가
아니니까요. 다행인 것은 배우들이 공간을 사용하면서
사람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 돈은 아니지만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따서 공간을 사용한다던가,
다른 활동을 통해 공간에 필요한 비용을 발생하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첫해에는 없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전히 공동대표 체제이지만 예전에 비해 숨통이 트이는 것은
지금은 이용하는 사람, 주민들이 예산이 있는 지원사업을
땄을 때 '대관료를 줄 수 있게 되었어'라며 도와주는 것 등이죠.
그전에는 무료로 제공했거든요. 공식적으로 대관료가 쓰여
있긴 하지만 대관료가 있는 예산이냐, 만약 있다면 지급을
하시고 예산이 적으면 그냥 쓰라고 합니다. 마을에서 하다
보면 '이만큼 주세요'라고 칼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조금씩 보탬은 되지만 항상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보릿고개가
옵니다. 1-4월이 난방비도 들고 보릿고개라 짜내서 지내야
버틸 수 있어요.

장혜령 — 공간이용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연극단체라고 하면 공간이
따로 없는 사람들인가요?

반디극장 — 저희는 연극단체도 있고요, 생활문화동아리도 있고, 청년도
있고요. 연습공간으로도 쓰고 발표공간으로도 쓰고 있어요.

김지영 **선생님께서는 현재 운영하는 방식으로 충족이 되세요?
운영위(대표자/임원/주요활동가)만이 공간 운영의 고민을
하기보다, 실제적인 고민을 함께할 사람들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요?**

반디극장 — 운영의 측면에서는 마음을 비우면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쓰는데 너는 돈을 안내고 나는 돈을 내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파요.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언젠가
갚아주겠지.'라고 멀리 보려고 해요. 연극의 특징인 것 같은데
저희도 그랬지만 공간에 대한 고픔, 연극에 대한 배고팠던
경험이 있어서 공간을 차리면서 남들이 공간을 빌릴 때 칼같이
이 시간까지만 쓰라고 자르지 말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오픈해서 갚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에게 갚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갚지 않겠어요? 그리고 배우는 6명 정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객원으로 체인지 되고 같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공동대표도 6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혜령 **생활문화 베이스도 있는데 공간이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비율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연극을 자기
비중으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려는지요?**

반디극장 — 도봉구는 연극 보러 대학로에 가는 것도 무겁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가볍게 슬리퍼 신고 올 수 있는 극장을
지향합니다. 엄청난 공연이 아니더라도 낭독극부터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마을에 있구나라고 느끼면 좋겠어요.

장혜령 **재미공작소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서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나요?**

재미공작소 — 방향성만 보고 판단하면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재정적인 부분은 계속 고민입니다. 공간의 색깔 자체는 7-8년
하면서 확립은 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근처 주민을 대상으로
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희
공간을 거쳐 갔는데 재미공작소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를테면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은 공연장으로 기억할
것이고 전시를 보러 온 사람은 전시공간으로 기억하겠죠.
아니면 소설가분이나 시인분이 진행하는 문학행사나
강독회에 온 사람은 문학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기억하겠지요.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러 왔느냐에 따라 다르게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겹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인디' 뮤지션을 좋아하면서 재미공작소에서 하는 문학행사의 호스트 작가 분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홍대 인디 씬에서 공연을 보러 다니는 분들에게는 재미공작소가 한잔의 룰루랄라, 제비다방처럼 내가 좋아하는 인디뮤지션들이 공연하는 공간 중의 하나일 수도 있겠죠.

장혜령 —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이 역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없나요?

재미공작소 — 이전에 공작소에서 공연했던 뮤지션들이 대관을 해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페이는 공연의 경우 총 입장료 수익을 똑같이 배분해서 관객이 많을수록 저희나 아티스트의 수익이 커져요. 한 달 지출이 한 달 수입보다 크지 않게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혜령 — 그건 경우의 사업은 대관이라고 구분하시는 건가요?

재미공작소 — 아티스트 쪽에서 먼저 대관 문의 후 대관료를 지불하고 공간을 사용하면 그것이 대관인데 전체 공간 운영 비율 중에 대관의 비율은 거의 없고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기획한 행사들 위주로 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민지 **상시 오픈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일까요?**

재미공작소 — 상수에 있을 때는 공동 작업실 콘셉트였기 때문에 주중에는 매일 출근을 했거든요. 2년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언제 올지 모를 손님을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어요. 애초 운영자들의 최우선 목표인 작업공간으로의 의미도 퇴색했고요. 지금은 주중 낮 시간, 혹은 워크숍이 없는 날에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대신 월세를 내려면 주말에는 열심히 해야지요. 월세 내는 날은 정말 빨리 돌아오니까요.

김지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개방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만들고자 하는 선생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미공작소 — 두 운영자 다 문화예술에 영역을 가리지 않고 관심이 있고 좋아하니까 저희가 좋고 즐거운 것들을 꺼내놓죠. 음악을 듣다가 새롭고 좋은 뮤지션을 알게 됐는데 '우리 공간에서 공연이 가능하겠다' 싶으면 빠르게 섭외를 추진하죠. 연차가 쌓이다 보니 관계가 생긴 아티스트들, 함께 성장한 아티스트들도 있고요. 저희 공간이 드럼이 있는 편성으로는 공연을 할 수 없어서 주로 포크 음악이나 전자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과 공연을 많이 해 온 편이에요.

장혜령 — 예술가들이 소속이 없지만 안정감을 갖는 것, 약간의 온도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재미공작소가 기댈 언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공작소 — 저희가 그런 존재가 된다면 정말 뿌듯하겠죠. 아티스트들에게도 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작업 결과물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꺼내서 보여주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온라인에서의 소통으로 끝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소통하기 위해서요.

김지영 **별별곳간 같은 경우는 많은 운영진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문제 발생 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별별곳간 — 별별곳간은 두 공간과 달리 규칙이 많아요. 우리가 문화센터가 아니지만 아무 때나 개인이 마음대로 쓰는 공간이 아니라서 대관규칙이나 시간과 금액도 정해져 있고요. 갈등이 생기면 규칙은 계속 늘어나요. 그것도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회의감이 들어요. 실무자들은 공세적인 입장에서 대표나 운영위원처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과 규칙이 세분화되어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정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관 같은 경우도 동아리들이 쓰다가 뒤에 일정이 없으면 조금 더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이 실무자들에게는 혼란스럽지요. 여기서 자치구를 대리해서 운영하는 공간처럼 빡빡하게 하려고 이 공간을 만든 것이 아닌데, 실무자 없이 알아서 열고 닫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면 자치구에서 다른 것을 만들자고 휙 가져가 버릴 것 같아요.

장혜령 **회원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어떤 룰이 생기고, 공간을 공공의 것으로 분위기가 전환 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상식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성원들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단계가 있지 않나요?**

별별곳간 — 그 단계에는 이른 것 같아요. 동아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임에서 활동시간 만큼은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만큼의 책임이 따르는데 지금은 자치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니 개별 동아리들에게 책임이 없지요.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소모임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연회원(연회비 5만원)에 가입해야 소모임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도록 정해놨어요. 연회비를 내면 소모임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강좌에 참여할 때 50% 할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의 혜택이 있고요.

김지영 **공간 운영에 선생님의 욕망을 투여하고 계시나요? 내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책임감과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지'라는 마음이신가요?**

별별곳간 — 후자가 커져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제가 합창을 지휘하고 있는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이 곳간 소모임이지 원래부터 있던 합창단이었죠. 별별곳간이 생기면서 '우리 이제 여기서 활동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연회원 가입했어요. 저에게는 그런 면에서 소중한 공간이긴 하지만 제가 올인해서 상근하며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힘에 부치고 후자 쪽으로 기울어요.

반디극장 — 공간이 생김으로써 나의 욕망이 많이 충족되고 있어요. 반디극장 한편에 사무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의 소중함을 매 순간 느낍니다.

한민지 **공간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은 뭘까요?**

별별곳간 — 공간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죠. 별별곳간에서는 소모임활동이 있고요. 아이들이 하교해서 6시까지 자유롭게 신발을 벗고 마루바닥에서 뒹굴거리며 놀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학교와 학원, 집 사이에 안전하게 무료로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해요. 중고등학생들은 아랫 공간에 거울 달린 곳에서 춤추고 가기도 하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보통 애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신청하잖아요. 올해 처음 시도한 것인데 놀러 온 애들이 여기서 뭔가를 하면서 놀 수 있게 일주일에 두 번을 만들었어요. 어른 한 명이 있지만 프로그램을 짜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뭘 할지 몰라요. 요리를 해 먹기도 하고 몸 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올해 60여 차례 진행을 했어요. 실험적인 활동을 했는데 '이 공간은 같이 모여서 노는 것이 예술이 되는 것이다'라는 처음 공간 만들면서 가진 우리의 미션에 방점을 찍어보려 했어요.

반디극장 — 떠돌이 신세를 탈피했다는 것이 공간이 갖는 중요성인 것 같아요. 연극을 하다 보면 소도구, 대도구들을 둘 곳이 없어서 폐기하고 새로 만들거든요. 이제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그러면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단체에도 그렇고,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망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예술인을 포함하여 청년 그룹과의 관계망도 거점이 있으니 더 편하게 갖고요, 주민모임도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관계망을 갖는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공간에서 할 수 있어요'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믿음과 편안함, 안정감이 함께 온다는 점이 공간의 중요성입니다.

재미공작소

— 듣다 보니 저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이 생각났어요. 출판등록을 해서 2013년부터는 단행본도 일 년에 한 권 꼴로 내고 있는데 재고를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공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입장에서 작업공간으로서의 의미는 차치하고,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재미공작소는 기획하면서 저희 스스로 재미를 느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간 운영이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월세 내기 정말 쉽지 않지만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거든요. 정말 좋아하고 응원하는 아티스트들의 작업물을 계속 보고 싶거든요. 뮤지션들은 공연할 공간이 필요하고, 시각 작업하는 사람들은 전시와 작업물을 판매할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공간의 중요성은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민지

오시는 분들이 약간의 취향중심으로 왔다가 프로그램 참여를 왔다가 다른 영역의 프로그램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지역의 의미가 있을까요?

재미공작소

— 저희는 굳이 문래동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행사를 진행했을 때 오는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다면요. 예를 들면 '지하철역에서 두 블럭 정도의 거리에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지역 자체는 어디가 됐건 저희에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문래동에 있어서 좋은 점이라면 문래예술공장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공간, 아티스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몇 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어서 고마움도 있고요.

장혜령

혁신적이고 다양한 것을 시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재미공작소

— 작년과 올해 '시공간집'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작년에는 12명의 시인, 올해는 10명의 시인과 했는데요. 시인 별로 2편의 신작 시를 받아서 작년에는 8일, 올해는 10일 동안 시를 전시했어요. 이 전시의 특징이라면 전시에 오는 사람들에게 근접 촬영을 금지시킨 거였어요. 마음에 드는 시가 있어서 공간 밖으로 갖고 나가고 싶다면 나눠드린 노트에 필사를 하거나 녹음을 해야만 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시인분들도 만족하고 관람객들도 만족했지요. 요즈음은 전시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역발상으로 사진을 못 찍게 하면 어떨까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시인의 경우 보통 문예지를 통해 신작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창구를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 했던 것도 있었는데 시인분들이 좋아했어요.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청년예술공간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할 수 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인들에게 원고료로 40만원씩 드려서 원고료만 400백만원이 책정되었어요. 지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었지요. 작년에는 무료입장으로 진행했고, 올해는 3천원 입장료를 받았는데 70여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400백만 원의 원고료를 벌려면 입장료를 2만원으로 해서 200명을 모객 해야 하는데 가능했을까요. 올해 3천원의 입장료를 받은 것도 큰 실험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기획은 지원사업이 없으면 진행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 2011년에 공간을 오픈 하고 청년예술공간지원사업은 2017년에 처음 받았는데 저희가 전문 전시장이거나 공연장이 아니어서 그때까지는 지원할만한 지원사업도 없었어요. 2015, 2016년 즈음에 신생공간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런 흐름을 반영해서 '청년예술공간지원사업'을 만들지 않았을까 짐작만 했었어요. 그때가 저희 공간이 재정적으로 위태위태하던 때였는데 청년예술공간사업이 산소마스크 역할을 했죠.

김지영

각 공간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지원사업이 나온다면 지원정책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면 말씀해주셔요. 기존의 공간지원사업에서 '어느 부분에서 힘들었다, 좋았다'라는 것도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별별곳간 — 생활문화지원센터에서 받았는데 공고가 늦게 나서 재작년에는 10-11월 동안 800만원 가까이, 작년에는 하반기에 3천만 원을 몰아 써야 했어요. 1년 동안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계획한 일을 못하고 있다가 2달 만에 다 했어요. 마술소처럼 3년, 5년 이렇게 중장기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지원인 것 같아요. 3년을 약속한다 해도 중간보고, 결산 보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시 지원하기 어렵다 하면 지원하기 힘들겠지만 기간 자체를 장기로 해놔야 사업과 예산을 상정하고 멀리 보고 계획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은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면 그에 맞는 예산과 계획을 꿈꿔보고 싶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조금을 받지만 사업비로 쓰다보면 시설이 노후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으면 좋겠어요.

반디극장 — 자투리돈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 증빙을 해야 하니까요. 시설비도 훨씬 싸게 할 수 있는데 벽돌을 열장 살 수 있지만 증빙을 할 수 없으니까 인테리어 업체에 크게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비용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사라져버려서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투리 예산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사람을 지원하는 정책을 다른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안하셨다 했는데 저도 정말 찬성입니다.

— 제가 개인적으로 청년지원사업의 청년반장을 맡고 있는데, 반디극장에서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반디극장과 계약을 한 것은 아니라 사람으로 계약해서 책임을 지는 구조여서 저 자신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그 공간에서 만나는 청년들에 대한 마음도 더 쓰이게 되고, 그러면서 연결성을 갖게 되어서 모임이 끝나도 '이 공간으로 와서 놀아요'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이렇게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센터 내에 있는 직원들과 정말 이름을 알면서 호칭을 불러가면서 함께 고민하고요. 다른 지원사업의 경우 교류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 혼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망이 구축이 되어서 아이디어도 얻고,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처럼 교류의 장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라선영 **연구보고서가 파는 책은 아니지만 내년에 출간기념회라도 열어야 될까요. 문화예술공간과 네트워크에 대한 욕구가 있나요?**

재미공작소 —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에 대한 욕구는 없고요. 오늘같이 새로운 분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자리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한민지 **하고 있는 공간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별별곳간 — 문화를 매개로 한 마을 마당

반디극장 — 일상을 예술로, 소풍 가는 설렘을 담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은 곳이라 열린 문화공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미공작소 —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곳, 운영자가 재미있는 일을 벌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것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창작자들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이니 연락 주세요.

김진환 **별별곳간은 마을이라는 정체성이 명확한데, 두 공간은 자신들의 방향성이 더 뚜렷해서 다양하고 넓은 것 같아요. 공간을 볼 때 공간의 파사드가 뭔가 개방되거나 돌출되어 있거나 해서 눈에 잘 띄는 공간과 조금 찾아서 가야 하는 공간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반디극장은 2층으로 올라가야 하고 별별곳간은 잘 보이고, 재미공작소는 작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간인데, 각 공간에서 우발적으로 마주치는 케이스가 있는지 찾아와야 하는 공간이라 자신들의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미공작소 —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젠트리피케이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전시나 판매행사가 있을 때는 블라인드 다 올리고 진행하고요.

반디극장 — 저희끼리 갖출 것은 갖춰서 커피를 잘 대접해드리자 싶어서 부엌을 셋팅을 했는데요. 저희는 2층이긴 하지만 대로변이라 오다가다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하는 공간인지 궁금했다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옥상에서 벼룩시장을 하거든요.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픈 행사를 하고 있어요.

■ 사회자 마무리

김지영 — 25분을 초과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투리 예산, 인건비 부분 실제 지원사업에서 실현화될 수 있었으면 하네요. 기획비, 아티스트비가 예전에 있다가 다 없어졌잖아요. 다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담 10% 이상, 대표자 및 전무는 안 됨. 이게 오래된 문제인데 교육문제를 뒤집듯이 사실 가려고 하면 쉽지는 않지만 인식도 바뀌어야 하지요.

장혜령 — 현실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지역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들 안의 활성화이고 뜨거울 수 있거든요.

김지영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구공간운영자 3차 라운드테이블 녹취

일 시	2019년 11월 5일 10:30-12:30
장 소	문화디자인 자리
참석자	공간운영자 : 이너프라운지(김정은), 탈영역우정국(김선형), 카페보스토크×스페이스공공연희(임성연), space55(안종현) 연구진 : 최혜자, 장혜령, 지휘석 서울문화재단 : 이주영

■ 사회자 오프닝 및 연구소개

장혜령

— 저는 공간연구자 사람잇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각자 소개를 하면서 시작합시다.

최혜자

—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연구 사업을 진행합니다. 공공공간의 경우 룰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운영비를 중심으로 지원하면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민간공간의 경우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라운드 테이블을 하게 되었어요.

— 공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는데 깊은 관심과 이해는 아직 더 필요합니다. 공간에 대한 지원은 거의 다 사라지고 있어요. 지원비용도 적어요. 마술소 지원사업은 8년차에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케이스입니다.

— 서울문화재단과 상의하면서 공공공간은 보지 않아도 빨리 답이 나올 텐데, 민간 공간은 각자가 아는 측면만 보기 때문에 전체를 조감하기 어려워서 한번이라도 공공지원을 받은 400개의 공간을 대상을 펼쳐놓고 연구원들이 모여서 예술/문화 공간, 커뮤니티, 2-3년 이상의 지속적인 공간, 지속문화교육 하는 공간,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공간, 적어도 사적 취향의 공간이 아닌 곳들을 리스트를 정리했어요. SNS가 있는 곳들 찾고, 탐문해서 자료를 보고 나서 50공간을 추려 실태조사지를 보냈습니다. 작성해준 곳들 중심으로 공간의 인구통계학적 성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FGI는 3번째 자리인데 공간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정리한 후에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할 예정입니다. FGI 참석한 분들, 연구진들, 서울문화재단 분들도 너무 재미있어해서 끝나고 파티를 할까 얘기도 했습니다.

— 어떤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지 기본 소개와 주로 하는 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공간소개 및 인터뷰

이너프라운지

— 이너프라운지는 6년째 운영 중인데 1층은 그림가게, 2층은 카페로 운영하고 있고, 지역 안에서 함께 일하는 친구들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2년 진행하고 올해 마을예술창작소 신규지원을 받았어요. 그 외 공간 지원을 받았던 경험은 2년 전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으로 두 달 간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이너프라운지는 제가 대표로 있는 1인 법인의 사무공간이자 지역분들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라탄, 뜨개, 공예, 독서모임, 보드게임, 요가 등 10여 팀의 다양한 소모임이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2층은 카페구조로 근무시간 내내 개방을 하고 있고, 1층은 이태리어, 스페인어 등 어학 스터디나 독서모임 등을 위해 일부 시간을 예약제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간 안에서 다양한 자발적인 모임이 운영되고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차 활동이 이루어지고 가끔은 여러 팀이 연합해 큰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혜령

— 처음 시작은 갤러리가 먼저였는지 커뮤니티가 먼저였는지요?

이너프라운지

— 현재 공간 말고 그 이전의 공간 운영 경험에서 시작하자면 2005년 이태원에서 그림가게(갤러리) '한집한그림'과 무인 음악 감상실 '숨'을 5년간 운영하다 이사를 하게 되면서 갤러리는 회현동으로 이전하고, 마포에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공간 '이너프살롱'을 만들어서 4년간 운영했어요. 그 이후 공간이 합쳐지면서 지금 자리에서 6년을 운영 중이고요.

— 이태원에 있을 때도 전시나 그림판매 외에도 동네 아이들과 앞마당에서 함께 영화를 본다든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는 디제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아주 자연스럽게 지역분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회현시범아파트에 있을 때도 주민분들과 함께 벼룩시장도 진행하고 가깝게 지냈고요.

— 현재 공간으로 이전하면서 아이도 낳아 자연스럽게 사는 곳도 이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은 그간 거쳐간 동네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재개발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런지 주민분들끼리 교류도 거의 없고, 때마침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비슷한 느낌을 서로 아쉬워하며 이야기하다 '예술로 내가 사는 지역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2층 공간은 40평 규모인데 처음엔 카페로 운영을 시작했다가 1년 만에 접고, 이후 사무공간 및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위한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전환해 사용할 겸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넓은 공간을 거의 저 혼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워 공간을 개방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이런 저런 팀들이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커뮤니티를 일부러 만든 건 아니었지만 공간이 있다 보니 운이 좋게 이런 활동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카페보스토크×
스페이스공공연희**

— 저희는 8년차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문화예술공간이 아니라 카페로 시작했어요. 8년 전에는 무소속연구소에 대한 인지도가 없어서 단순 대관 외에는 공간 운영이 불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공간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나서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대표 운영자인 우리는 부부입니다. 변하지 않는 멤버는 부부인 우리 두 사람이고, 프로젝트마다 사람들이 바뀌고 오고 갑니다. 처음부터 갤러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까 고민했습니다. '우리 전시해요'라고 홍보하는 것은 유치하다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커피와 맥주를 마시는 공간에 사람을 모아서 '여기 뭔가 있구나'로 연결되도록

구성했습니다. 평가는 이뤄져야 하겠지만 자연스러운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문화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좋은 것 보러 와' 식의 어색한 것, 작위적인 것들이 싫었어요.

탈영역 우정국

— 탈영역 우정국이라는 마포구 창천동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각예술에 치중되어 있긴 하지만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벌어지기 때문에 갤러리라는 말 대신에 프로젝트 스페이스, 문화예술플랫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이 있었던 대안공간과도 취지가 조금 다르기도 한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원래 우체국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2015년에 임대해서 시작했고, 현재 5년 된 공간입니다. '탈영역' 우정국이라고 지을 때부터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려는 방향을 잡았어요. 전시, 워크숍, 미디어 아트, 전통예술,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의 다양한 작업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space55

— 은평구는 어린 시절 자란 동네이고 지하공간은 아버지가 봉제공장으로 사용하시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3년 정도 방치한 상태였어요. 이 공간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공간을 시작했습니다. 토탈 미술관에서 같이 기획해도 재밌겠다 싶어서 단체를 만들었어요. 토탈 미술관이 월요살롱을 하는데, 미술관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작가님들과 전시를 만들었어요. 원래 시각 미술 공간으로 시작했는데 연극, 클래식 공연하는 분들이 연락이 와서 공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3년차이고 그동안 54개의 시각예술 전시를 했어요. 주로 시각예술이죠.

■ 심층 그룹인터뷰

최혜자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은 주로 시각예술 중심의 공간을 운영하시고, 연수가 꽤 높은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처음에는 왜 시작했는지, 동력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했는지 여쭤봅니다. 처음 시작한 마음과 같이 한 사람들,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의 변화, 앞으로의 방향에 올라타서 가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어서 멈췄는지, 변화를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주세요.

카페보스토크× 스페이스공공연희

— 부부가 되기 전에 작은 사업을 하다가 부부가 되면서 큰 사이즈의 공간을 하게 되었어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부부가 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겠다' 싶었어요. 큰 공간을 운영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전에 작은 스튜디오 수준이었을 때도 친한 친구들이 대학로에서 일하고 있었고 가까우니까 작업실에서 같이 놀았어요. 자연스럽게 성대 친구들, 대학로의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다가 연희동으로 왔어요. 서울은 정주하지 않으니 연희동으로 이사 온 사람들도 생기고, 홍대와 가까워서 원래 알던 사람들도 많았고요. 연희동에서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 카페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청년 수급 창고가 카페알바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주변 대학의 친구들이 주로 알바를 하는데 알바와 연결된 친구들이 같이 일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알바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스티커 붙이는 것부터 프로젝트에 필요한 일들, 전시 지킴이 하다 보면 1년만 지나도 전시 공간에서의 자신의 자세, 위치 텐션을 갖추게 됩니다. 그중에서 좀 더 이 일을 하겠다는 친구들은 고정의 일을 하게 되고요. 사람은 들쑥날쑥하고 프로젝트를 많이 할 때는 최고 5명 정도 결합합니다.

이너프라운지

— 저희도 남편과 공동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트딜러로 활동하며 전시도 하고, 작가 매니지먼트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연애하던 시절엔 남편이 이태원에서 그림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일반적인 회사원으로 퇴근 후에 매일 갤러리로 놀러가던 사람이었구요. 결혼하면서 본격적으로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그 때 이너프살롱이라는 공간을 제가 담당해 운영하게 되었어요.

— 이너프살롱은 누구나 주인이 되어 운영해볼 수 있는 가게로 유형, 무형의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는 공간이었고, 가게 주인이 된 분들과 손님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서로 함께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게)를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굉장한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어요.

— 그 안에서 제 역할은 단순한 스케줄러이자 청소아줌마로 규정했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백업하는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이구나'라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 사실 남편은 본인이 집중한 한 가지 일에 에너지를 쏟는 성격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며 일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행정적인 일은 싫어해서 이너프살롱을 운영할 때까지만 해도 지원사업은 받으려고 시도해본 적도 없고요.

— 반면에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시작과 끝이 보이는 일을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지원사업도 후자의 성격이 동기부여가 되어 시작했어요.

— 성격은 이렇게 다르지만, 예술을 통해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가치에 공감하며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남편과 저 외에도 함께 일하는 친구들과는 공간 운영보다는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때론 밀접하게 때로는 느슨하게 만나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들 예술이 삶에 주는 가치를 믿는 친구들이니 이렇게 오래 꾸준히 함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사실 저와 남편이 하고 있는 본업은 예술 플랫폼 사업이어서 이너프라운지 공간의 성격과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이너프살롱이라는 공간을 운영하며 좋았던 경험과 지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건 너무 아깝다'라는 지극히 단순한 저의 개인적인 욕망에서 시작한 일이 지금은 주객이 전도가 되어 공간의 특성이 되었어요.

— 사실, 지역기반의 공유공간을 운영하며 공간의 성격이 점점 본업과는 멀어지고 건 아닐까, 자생이 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한 고민으로 작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람도 크지만 결국은 희생으로만 되는 것인가'라는 회의감도 많았고.

— 우연히 때마침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을 받게 되며 공간 운영 방향을 조금 더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공간지원이라고 해서 임대료나 지원 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외부적으로 공간에 정확한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또 마을예술창작소 운영하는 분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자생에 대한 고민이나 다양한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 저도 그렇지만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분들도 점점 더 주체적으로 개입하면서 공간을 활용하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이제는 공간이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졌구요. 결국에는 협동조합이든, 마을 기업이든 어떤 형태로 주민분들과 공간을 독립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인 것 같아요.

탈영역 우정국

— 오래전부터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의 사례를 보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시도도 여러 번 했어요. 처음에는 지금 공간인 우체국 옆에 작업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체국이 입찰이 나왔어요. 보스토크도 큰 곳인데 저희도 100평이 넘은 큰 규모라 임대비가 400만원입니다. 국가 공간이니까 민간위탁으로 싸게 운영하는 곳으로 오해를 많이 받아요. 다양한 워크숍을 하면서 작가들의 수업을 진행하면 수업에서 들어오는 비용이 수입원이 되고, 커뮤니티도 형성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능성만 보고 시작했고, 덜컥 겁이 나서 친한 친구들도(문화예술관련)에게 얘기했더니 같이 해보자는 피드백이 있어서 모여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요즘에는 1년 스케줄이 꽉 차있는 편인데 1년은 다른 계획으로 갖고 있던 개인자본을 공간개보수와 임대료로 들이부었어요.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문화예술의 장을 만들고 싶은 마음과 공간에 대한 그림을 갖고 시작했는데 공간에서 이윤이 안나니까 외부에서 돈을 벌어다가 우정국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3년을 운영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공간 바깥의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 리니어콜렉티브는 우정국을 운영하기 위해 만든 개인사업자로 만들었는데, 사업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우정국은 노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 큰 공간입니다. 시간을 들여 노동한 것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을 두기로 했어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란 없다고 생각해요.

— 저희는 협력대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나 작업의 결이 맞는 작가들과 협력대관으로 운영이 되는 편이고 자체적으로는 연간 2-3개 정도의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매니저와 저 둘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상업적 역량을 이용해 디자인, 영상제작, 책자 작업, 영화홍보 등 다양하게 발휘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역량이 쌓여 공간 운영과 기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대관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시나 공연 관련된 디자인, 홍보 등을 협력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기획사로 역량을 갖춰야겠다 싶어요. 전시, 공연 주변을 매니징해주는 주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내 개인을 위한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장혜령 **민간공간에서 나 자신을 갈아 넣는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탈영역우정국은 자체 기획 메인행사와 기획이 따로 있나요?**

탈영역 우정국 — 저희 쪽에서 자체 행사는 주제보다는 공간을 활용한 기획으로 형식과 포맷에 대한 실험과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포스트사이드 워크숍이 있고 리얼타임아트라고 실험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공연+전시의 중간 즈음 되는 작업 등 2-3 가지가 있어요. 초창기에는 다른 아티스트들과 협업해서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어요. 공간을 위해서 리니어콜렉티브를 만들었는데 다른 일을 너무 많이 하느라 원래 하려고 한 일의 시도를 많이 못했어요. 요즘은 하려던 일을 하고 싶긴 한데 내 개인의 삶도 중요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space55 — 대관을 하더라도 작가들과 같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전시를 같이 준비하고, 공간 설치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전시 전경 사진을 찍어드려요. 그런 네트워크로 다양하게 만나고 있어요. 작가님들과 즐겁게 공간 기획을 하면서 제가 이런 일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외부 기획도 들어와서 작가 활동을 하면서 기획을 병행하게 되었어요. 전시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죠. 스페이스55뿐만 아니라 외부 기획 일도 요청이 와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혜령 **자신의 공간을 지키면서도 매몰되지 않고 한편으로 이름을 외부로 알리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체 일에서 개인 일과 공간 일의 비중은 어느 정도이고 같이 할 사람이 늘었습니까?**

space55 — 내년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뭐, 운이 좋았고, 외국에서 전시할 기회들이 생겼어요. 토탈미술관과 대만연합 전시도 했어요. 올해는 클리어마인드 예술회사와 연결되어서 일본 Kogarecho(KAMC)에서 먼저 전시하고 다시 한국에서 교류전시를 하고 있어요.

장혜령 — 병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공간 지키기, 사람 응대하기, 홍보, 설치, 청소까지 노동의 양을 생각한다면 공간이 빌 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소홀하게 되거나 하는데요, 좀 더 말씀해주세요. 또 외부에서 일할 때 사용하시는 이름은 뭔가요?

space55 — 안 그래도 공간에 대해 요즘 소홀한 것 같아서 좀 더 공간에 집중해야겠다 싶어요.

장혜령 — 지속가능성은 운영비용을 어떻게 구하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이 자신을 갈아 넣는 방식은 계속할 수 없고, 지원사업을 장기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용자로 왔던 사람이 같이 운영진으로 참여하거나 하는 등 사람이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탈영역 우정국 — 이너프 라운지처럼 오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커뮤니티가 생기면 그것이 가능한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은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카페보스토크× 스페이스공공연희 — 저는 공짜로 일하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장혜령 **사적 공간이긴 하지만 지역 안에서의 공적 역할이 있는데, 비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탈영역 우정국 — 멤버쉽, 그룹운영체제, 후원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사공이 많아지거든요. 운영진의 경우도 취합과 모으는 것 자체가 일이고요. 사람의 힘을 빌리려다 더 큰 일을 벌이는 꼴이 됩니다. 의도와 방향은 맞지만 당장 벌리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해요.

space55 — 직원을 둘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어요. 저는 국가 정책 중에서 영리와 비영리 부분의 실질적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수익에서 최저임금과 운영비를 뺐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를 영리라고 해야 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관으로 돈 벌잖아요.', '영리공간이잖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들 말합니다. 최저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간은 작가와 상생할 수 있는 영리공간이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했어요. 비영리 공간으로써 작가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전시밖에 없어서 사실상 작가와 공간의 공생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요. 작품을 팔 수 있으면 좀 더 현실적인 유대관계가 이뤄지거든요. 젊은 콜렉터들이 작품을 구매해준다면 공간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금 등을 받으려면 영리 여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겠죠.

장혜령 — 이윤이 생기기 전까지는 비영리인데, 상업적인 잣대를 문화예술, 기타 영역에 들이대는 것은 무리입니다. 평가는 간단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면 비영리이죠. 세무사가 말하는 것과 공공에서의 비영리, 영리의 정의, 개념이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카페보스토크× 스페이스공공연희 — 저희는 양쪽을 취할 수 있게 구성했어요. 비영리는 지원사업으로 요구했을 때 무소속연구소 명칭을 사용하고, 영리를 요구하는 쪽은 영리 자격을 제공합니다. 비영리 쪽에서 한 일들을 정리하면 세무사가 엄청 난감해해요. 국세청에서 카드단말기를 할 때 규정이 없어서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0원으로 정산해야 하는 사업은 비영리로 하고, 세금을 증빙해야 하는 사업은 영리가 편합니다.

— 이 모든 사업을 합쳐서 영리법인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공간을 운영하면 영리와 비영리의 오묘한 간극을 오고 가야 하는데 이다음의 세계가 용역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업자로는 충분한 조건이 안 됩니다.

space55 — 국가에서 말하는 비영리는 부자이거나 권력이 있는 경우이고 그게 아닌 비영리는 생존하기 힘들죠.

**카페보스토크×
스페이스공공연희** —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몰랐다가 몇 년 사이 세금이 확 뛰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하게 됩니다.

최혜자 — 이너프라운지는 '자연스럽게'라고 말씀을 해요. 커뮤니티성이 있으면 뭔가 모임을 하고 관계를 맺고 공간과 결합을 하는 등 새로운 작업이 이뤄질 수 있는 촉진제가 됩니다. 다른 공간은 작가들과의 네트워크와 기획이 들어간 공간, 무소속은 두 개의 성격이 섞인 공간인 듯합니다.

이너프라운지 — 말씀하는 것을 듣다가 문득 내가 뭔가에 취해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용자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공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따로 운영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운영 취향이 다르거든요. 화장품 만드는 사람들 오면 다른 사람들이 공간을 못 써요. 나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싶어요. '이걸 왜하냐', '봉사활동 하냐'라는 이야기도 들어요. 우리가 벌어서 월세 내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이런 부분을 너무 접고 있었나 하는 온갖 회의가 드네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서 찾은 제 가치와 맞는 1%일지 모르는 단물에 계속하는 것 같아요.

장혜령 **인사동에 오래 있으면서 영리 간판을 들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매하다는 것이 10-20년이 넘으면 영리, 비영리가 자립을 가능케 하는 시기가 오는데,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 궁금한 것 같아요. 각자의 공간이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로서 혹은 간헐적 주체로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space55 — 다세대주택으로 은평구가 다 바뀌고 있어요. 저는 오래된 건물이고 모든 것이 추억인데 주변에서는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인터넷 보고 찾아와요. 70-80% 작가분들입니다.

이너프라운지 — 1회성 방문객이 많던 첫 1-2년은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현재 워크숍, 커뮤니티 공간 사용하는 90%는 지역 사람들, 10%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하던 곳은 한 달에 월세가 2백만 원이었어요.

장혜령 —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어서 공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지역기반이라는 것이 참 허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포진되어 있는 것이 힘이 되지 않나요?

탈영역 우정국 — 처음부터 지역에 대한 마음은 비웠어요. 아파트는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크고, 불을 환하게 켜놓는 것,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자기들이 듣기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민원이 빗발쳐요. 지난번에 아트마켓을 하면서 음악을 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분위기를 풀려고 음악을 틀었던 적이 있어요. 경찰이 왔는데 민원인이 폭언을 해서 울었다고 할 정도였어요. 제가 예전에 민원을 해결해보려고 사과문을 붙이고 그랬는데 저희 건물주가 국가여서 민원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카페에서 민원을 모아서 쫓아낼 수 있다고 하기도 해요.

— 초기에 공동체 사업을 하기도 했는데 서로의 취향이 맞지 않았던 것도 있고, 공모 사업에 참여해도 심사에 가면 저희의 활동과 작업을 이해받기가 어려웠어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원사업은 저희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보류했습니다.

장혜령 — 먹고 사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공공건물이면 민원을 더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카페보스토크×
스페이스공공연희** — 저는 민원을 가치 측정으로 봅니다. '이 지역에서의 포용도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기준인 거죠. 민원을 처음 받을 때에 속상해하니까 선배들이 '야, 한강공원에서 해도 민원은

들어와’라고 해요. 민원을 보니까 그냥 한국사회가 과도기적 권리와 의무의 착각 속에서 나온 현상이라 봐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민원이 ‘들어왔다’ 혹은 ‘안 들어왔다’를 놓고 활동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서울이 바뀌고 있는가를 보는 부분에서 민원의 유무가 리트머스이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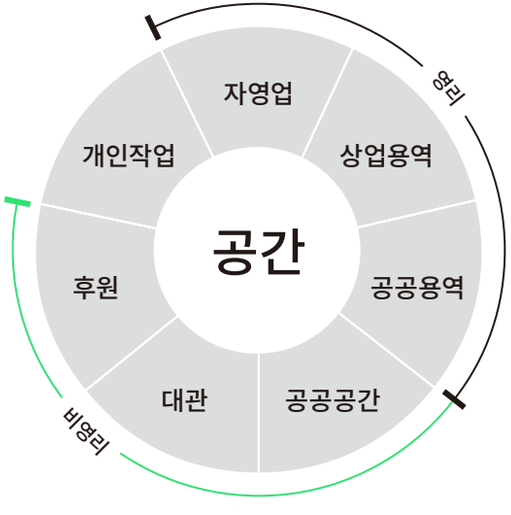
탈영역 우정국

—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집단 민원이 가능한 아파트 옆에 위치한 것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골목과는 상황이 다르죠.

이너프라운지

— 저희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마술소로 넘어갔어요. 마포구의 주민 모임을 받아서 했는데 공간을 운영하는데도 공간 운영비를 주지는 않으면서 우리가 단체이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지역 모임의 총무가 어렵다 해서 선의를 갖고 도와드린 적도 있는데 이너프에서 다 하는 거 아니냐 타겟팅이 되기도 했어요.

■ **사회자 정리**



최혜자

— 공간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개설자의 의지, 기본적인 포인트가 중요하다.

— 월세 구조가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오게 되고, 지역 둥지 내몰림 상황으로 사람이 빠져나가는 등 굉장한 가변성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이 노마드화 되어 취향중심이 더 강하게 됨.

— 민원에 대해 대응하고 납득시켜 가는 과정을 겪어야 지역공간으로 남음.

— 공간에 한사람이 있어서 코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봤을 때, 후원구조와 대관구조를 생각하지만 현실은 공공대관과 공공용역을 하거나, 자영업, 상업용역, 개인 작업을 하게 됨.

—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공간 자체의 힘이 있으면 후원과 대관을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공간이 힘이 없으면 외부의 비용을 모아서 운영하게 됨.

— 공간에 힘을 주기 위해서 후원, 대관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개인은 중간에 쉼이 필요함.

— 비영리와 영리의 경계에서 문화예술, 공간지원사업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생각해봐야 함.

— 캐나다에서는 4공공:3펀딩:3공간발생이익 구조로 보통 운영을 하는데, 공간은 대부분 매우 크고 커뮤니티로부터 만들어짐. 4의 공공은 꼭 정부기관만이 아니라 북미대륙의 큰 후원조직 등으로부터 받음. 50%는 공공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됨.

— 한국은 커뮤니티가 깨진 상태에서 공간을 시작하기 때문에 50%까지 공간의 힘이 없음.

— 공간을 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를 고민하고, 정책은 위의 것들을 고민해야 함.

---

space55 — 지원사업을 통해 아르코에서 온 사람이 아트마켓을 하는 거면 영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에 따라서 영리, 비영리 기준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카페보스토크× 스페이스공공연희 — 비영리에서 발급하는 계산서를 내면 받아주지 못하는 곳들도 많아요. 정산을 위해서 이치에 편하게 가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비영리가 되기를 바라면 그에 맞춰서 전체 집행하는 것들이 바뀌어야 해요.

장혜령 — 증빙하지 않아도 영리가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다 알아요. 소비패턴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최혜자 —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면 전국에서도 따라옵니다.

이너프라운지 — 그렇지만 서울문화재단은 담당하는 사람이 너무 자주 바뀌잖아요. 갤러리여서 전시를 한다고 해서 이윤이 날 정도로 대관비용이 들어오는 공간이 아닌데 저희를 상업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공간이라서요. 저희는 작가들을 위해서 그림 한 점이라도 더 팔아서 콜렉터를 늘리는 것이 목표거든요.

—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생활문화사업 차년에 생활문화지원센터 공모에 지원을 안했어요. 안 한 이유를 메일로 보내 달라고 해서 장문으로 보냈어요. 공간이라고 하면 운영되는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는 임대료를 지원을 안 해줘요. 마술소도 인건비 20% 이런 식으로 지원되어요. 그걸 위해서 사업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space55 — 그건 영리라고 볼 수 없어요. 진짜 영리는 작품을 파는 큰 갤러리에나 해당해요.

■ 사회자 마무리

최혜자 — 이런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온 얘기들을 어떻게 공유할까, 상호학습을 할까 고민이 됩니다. 아마 이런 과정을 많이들 기다릴 것 같아서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야기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공간운영자 4차 라운드테이블 녹취

일 시	2019년 11월 5일 14:00-16:00
장 소	문화디자인 자리
참석자	공간운영자 : 행화탕(서상혁), 미인도(하장호), 안티카페손과얼굴(정혜진), 네스트나다(김하나), 문화공유공간산책(우미선), 즐거운가(갈승근) 연구진 : 김성진, 이라선영 서울문화재단 : 김진환, 이주영

■ 사회자 오프닝

김성진

— 이번 자리는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공간과 관련된 정책개발을 위해, 당장은 아니지만 실제 공간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고 올해, 내년에 걸쳐 계획을 세워서 차후 지원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 사업입니다. 참여하다 보니 저는 이런 자리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 필요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업을 통해 공간 운영자와 중간에 모니터링 하는 형식으로 마주하게 되면 서로가 가진 긴장감 등 관계가 달라서 자유롭게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문화디자인 자리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그런 긴장감 없이 실제 현장의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를 같이 만난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재단이나 정책에서 설계되어 있는 지원사업들을 향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어떤 것들이 새로 생기길 기대하는지 이야기를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니까 편안하게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녹취는 '주제별로 어떻게 했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돌아가면서 구체적으로 공간별 소개와 활동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공간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와 현재의 진행과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공통의 화제로 얘기를 더 했으면 합니다.

■ 그룹인터뷰

안티카페손과얼굴

— 처음은 컬렉티브팀으로 활동하는 기획을 하던 팀이었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물질이 없는 작업이다 보니 허무감이 있었어요. 앞으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저희가 20대에 활동을 하다 보면 중간에 여러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공간에 와서 이런 일을 해라는. 이런 일의 제안과 수락이 구두로 되다 보니

어그러지기 쉬워요.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이었고 이럴 거면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우리가 더 재미있게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 관객 참여적인 작업을 주로 하니까 대중적인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고, 저와 같이 하는 친구가 홍대, 합정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 고려를 해서 합정에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월세를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픈 작업실의 형태를 생각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배웠네요. 월세를 버는 것이 아니라 월세의 배를 벌어야 운영이 된다는 것을 몸으로 부딪치면서 체득했죠. 안티카페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기존 팀명과 합쳐서 안티카페 손과 얼굴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4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 펍의 형태가 쉬운 줄 알고 펍을 유지했는데 본업과 전업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이 들었어요. 처음의 취지, 컬렉티브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해서 작업자들과의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펍의 형태로는 잘 안되었어요. 이런 고민이 있던 찰나에 청년허브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어요. 낮에는 작업실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단순 공유를 넘어서 기획,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번 발표를 하거나, 전시 전의 프리뷰·데이터를 쌓는 등 여러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손발이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 그리고 하나는 2019년에 예술인 복지재단의 기관으로 들어가서 공간이 가진 키워드를 정해놓고 가고 싶었습니다. '2019 작업과 생업, 생존의 기술'을 어디서 연마하는가, 작가 대 작가, 공유 대 공유를 어떻게 구성하고 무형의 것들을 나눌 수 있을지 생각했고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그 단계를 밟아가는 사업입니다.

— 첫 번째 생존의 기술로는 '근력강화' 즉 다치지 않기 혹은 '부상방지' 즉 몸을 아끼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기획서 어떻게 쓰는가, 세 번째는 퍼포먼스의 전 단계에서 DB 구축하는 방법과 리서치하는 방법, 네 번째는 예술가의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입니다. 각자의 기술을 나누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 원래는 저희가 그냥 기획해서 하던 작업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자기 고민을 그냥 같이 워크숍으로 만든 것이라 그런 것 같아요.

미인도

— 미인도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와본 사람들의 느끼는 독특함이 있어서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인도는 사실 공유원탁 성북회의를 만들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곳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참여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실험을 해보자 해서 의제들을 리서치 하는 중에 미아리 고개 고가도로 밑에 재활용 쓰레기를 적재하고 청소하는 공간을 발견했어요. 그 공간에 청소도구 같은 것들을 적재해 두다 보니 우범지대가 되어서 실제로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죠. 그 문제에 주목해서 어떤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일본의 요쿠하마의 집창촌의 다리 공간을 문화로 재생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고가다리 밑을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자치구 구청장의 적극 지원을 받아서 시작했어요. 예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프로젝트 1억 지원사업을 성북문화재단과 공탁에 참여하고 있는 건축가 그룹, 스페이스 오뉴월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했어요. 기획은 공탁 안에서 준비했지만 사업지원은 컨소시엄으로 했지요.

— 지역 건축가가 조성해서 작업했고요. 2015년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플로어를 가는 것에서부터 만드는 작업에 참여해서 공간을 조성했어요. 나무 구조물이 고가다리 아래에 들어가는 모양으로 조성했죠. 구청에서 진행 허가를 내주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민간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자치구 시설물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했어요. 공간은 성북문화재단의 위탁 아닌 위탁이었는데 정식 등록한 시설물이 아니기때문에 정식 위탁도 아니었어요. 관리를 성북문화재단이 하게 되었는데 이런 행정의 느슨함을 이용해서 성북문화재단과 지역의 민간운영주체들이 공동운영하는 모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아리 고개 중심으로 미아리고개 예술마을만들기 그룹에서 성북문화재단과 MOU를 체결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워킹그룹이 협동조합 고개마을을 만들었어요. 미인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죠.

— 지금은 공동운영하는 형태인데 실제로는 저희가 거의 다 운영하고 있고요, 재단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지만 시설 예산(전기세 등 1년에 4백만 원)만 투입이 되고 시설보관, 기획사업을 진행하는 등 1년에 필요한 4-5천 예산은 저희 조합에서 다른 지원사업, 자체 예산으로 운영합니다. 대관 기획 일상적 관리도 모두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일종의 공공공간이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는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입니다. 기존의 공공공간은 안정감이 있지만 견고한 룰에 따라 운영하는 체계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민과 사용하는 예술가들의 필요, 욕망에 따라서 재구성되고 변하는 공간으로 되었으면 했고, 운영방침도 무료로 사용한다던가, 대관 심의를 안 한다던가, 시간 규정을 두지 않는다던가 등 기존 운영의 틀을 깨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인도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공공영역에서 공유지 형태의 공간 운영 모델이 만들어져서 기존의 공공공간들도 다른 방식의 운영전략이 생기길 바라고 있고요, 다행히 미인도가 촉발했던 방식이 성북구의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천장산우화극장이라던가 다른 형태의 공간들이 성공리에 공공공간 운영에 섞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 생각보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발표 용도로 주로 사용합니다. 공공공간처럼 활동 장르나 유형에 따라서 공간을 배치해놓는 것이 아니라 오픈 스페이스로 운영하고 있어요. 들어오는 분이 안에 있는 구조물을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화이트 패널 같은 경우는 전시에서 사용합니다. 내놓으면 구조물을 본인들의 작업에 맞게 재구성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조언은 드리지만 실제 따로 준비해주지 않아요. 대관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공간을 구성하고, 열쇠도 그냥 내어드려요. 대관하는 동안 문 열고 닫는 것도 그분들이 알아서 하고 대신 나갈 때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정도의 룰만 가지고 있어요.

김성진 — 공간을 위한 상근 매니저가 있나요?

미인도 — 매니저는 있는데 상근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공간에 사무실을 둘 수가 없는 형태라서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스케줄을 잡고 매니저가 나가서 맞이하고 있어요. 대관 관련해서는 선착순이긴 한데 사전답사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대관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공간의 특수성이 있어서 사전에 방문해서 저희랑 테크니컬 미팅을 하고 공간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 미리 저희가 전달하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친 후 대관을 승인합니다.

이라선영 — 철학이 좋은데 정작 대관을 하려고 하면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겠네요. 공간 운영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져요.

미인도 — 그런데 사전방문 원칙은 그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방문을 안 한 사람들에게 대관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공간 해석이 전혀 안 돼서 엉뚱한 전시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원래 다리 밑의 특수한 공간이라 공간의 아우라가 세고 공간의 구석구석을 활용하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미팅을 할 때 저희가 전달하는 내용은 다른 팀들의 케이스와 공간 구조, 소음 등에 대한 어드바이스입니다. 내용의 검열이 절대 아닙니다.

행화탕

— 미아리 고개도 지역 간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간에 대한 해석 여부를 떠나서 사진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실제 각 공간 별 동선을 직접 살펴보며 확인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막상 대관해놓고 설치를 할 때 어려울 수 있어요.

미인도

—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대관을 원하는 당사자가 직접 만나 공간을 보고 어디를 쓸 것인지 결정하고 난 뒤에 대관을 해줘요. 대관하는 사람이 직접 본 후 가장 적합한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반상회를 하든 생일파티를 하든 무엇을 하든 말이죠.

행화탕

— 행화탕은 본래 공간 운영을 하려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아가고픈 마음이라 특정 공간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아이러니하게 프리랜서 독립기획자로 일하고 있다가 난생 처음 건강검진을 하고 갑자기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금이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 프리랜서 독립기획자로서 대체 불가능할수록 일이 많아지는데, 삶이란 근본적으로 불안하니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게 되어요. 그러다 보면 여유시간이 줄어들고 건강이 안 좋아지곤 했었습니다. 대체 불가능성을 대체 가능으로 바꿔보려고 했더니 일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체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체 가능하여 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혼자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누군가와 같이 하려면 나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이 합쳐져서 하나의 비전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존재할 수 있냐고 내게 묻는다면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태초부터 존재한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 작업하는 이들에 의해 등장한 것이니까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재고 그 치수에 맞는 조직형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 같이 하자고 동업제안을 한 사람은 오케이를 했고 목표·비전을 공유해서 비전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유무형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나의 상태와 놓여있는 환경, 나의 마음 상태를 체크를 해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의 궤적을 성찰의 과정에서 관찰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발견한 결핍이나 부재를 확인하게 되고 필요를 인식해서 일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 공간이 필요해서 찾게 되었고 저희는 교통이 편리하고 임차료가 적은 공간을 찾았는데 누구나 생각하지만 확률이 현실이 아니니까 '발품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결국 리스크가 있는 지역을 찾았는데 '어차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삶이 유한하기에 순간이 더 반짝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간을 찾았어요.

— 게다가 향후 국제교류를 염두에 두고 공항철도가 있는 수색, 아현 재개발 지역을 찾았어요. 리스크가 있는 곳이죠. 재개발이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내 마음이 바뀌어 짧게 머물다가 나올 수도 있지요. 그래서 두 군데를 찍어두고 발품을 팔다가 마지막 본 곳이 행화탕이었어요. 처음에는 창고형 작업실, 가변적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목욕탕인 줄도 몰랐어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밖에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는 '괜히 돈을 벌려고 노력하다가 머리 아파지지 말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했는데 일종의 작업실 공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개인의 욕망에서 출발해서 2016년 1월부터 지금 4년차, 곧 5년이 됩니다.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공간 내 설비를 할 때, 중고제품을 사지 않았을 텐데 요즘 문제가 생겨서 곤란합니다.

— 상황적으로 보면 공간을 찾게 된 것은 즉흥적인 결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맥락적으로 보면 아이러니하게 노마딕하면서 국내외에서 아티스트들 공간을 많이 보면서 축적한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기존의 시행착오를 벗어나서 또 다른 변수를 꾀하고 싶다는 욕망도 있었어요. 타이밍이 잘 맞은 이유도 있습니다.

— 처음 1년 동안은 하고 싶은 일들을 주로 했어요. 2016년 1월, 2월에 지인 30-40명을 불러서 탐방을 했어요. 가끔씩 와서 전시 공연으로 하다가 2016년 말에 공연 창작을 하는 데 돈을 많이 써서 창작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돈을 벌겠다는 개인의 상황이 생기면서 상주를 시작했어요. 상주하게 되면서 평소에 다니던 길도 왔다 갔다 하고 자세히 천천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있지요. 이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면 과거에 대해서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공간의 역사라든지 이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리서치 하게 되었어요. 작정하고 리서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조금씩 인사를 하러 다니면서 친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억지로 커뮤니티를 해야지'라는 생각보단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내가 가진 관점을 중심으로 축제라든지 개인의 욕망을 지정해서 공간을 해석하는 방식이 반영되었어요.

— 탈의실, 탕처럼 물리적 공간들을 이용해 '예술로 목욕합니다'라는 아이디어가 괜찮아 보여서 모토로 던졌는데 실제로 공간에 머물면서 이제 아이디어의 내실과 무게감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목욕하며 몸의 때를 '밀어낸다'라는 점에서 예술로 목욕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때를 민다는 것, 일상의 공간에서 탈의실로 와서 일상의 짐들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고 나아가서 탈의되어 진솔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술로 발현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용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정리를 하다 보니 복합문화예술공간이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어요. 예술을 정체성으로 두고 생활양식 전반을 구축해나가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행화탕은 58년 개띠로 태어나 활동을 하면서 70-80년대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행화탕을 찾았어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목욕탕, 사우나가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지역적인 맥락에서는 2007년 아현동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떠나게 되어서 손님이 줄고 결국 2008년 폐업을 하게 된 역사가 있었죠. 위치하게 된 아현동, 서소문을 통해 아이의 시체를 버렸다는 애오개의 유력한 설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목욕탕 등 한국적인 통과의례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공간을 과거의 목욕탕으로 박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공간이 미로처럼 흩어져 있어서 직접 와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팅을 하고 컨디션을 알려드리고 주변의 아파트들 민원 때문에 몇 시 이후에는 소음을 내기 어렵다는 정보를 드려요. 예전에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한참 안 하다가 요 정도까지는 암묵적으로 해도 되더라는 경험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공간이 홀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지역의 맥락 속에 있으니까 주민자치회 활동에서 요청하는 것은 수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작업이 뭔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험적인 것보다 좀 더 친절하게 가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타이밍에 '예술로 목욕합니다'로 문체부에서 공모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운영했어요. 출발은 개인의 욕망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이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해와 배려가 있을 때 타자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 충북문화재단에서 청탁받아서 원고를 작성하다가 '개인의 사심이 공공성에 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공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예전(1990년대말)에는 사회적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작가들 또는 기획자들의 대안 공간이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동향을 보면 정의 내릴 수 없지만 각자가 하고 싶은 것들 즉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 저희는 일대일 프로젝트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행화탕에서 기획하는 내용을 보면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자체기획은 대부분 협력 관계로 진행합니다. 우리의 자체 욕망이 있으니까 주로 돈을 주고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은 알아서 하고요. 둘째, 대관은 상대방의 욕망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여기저기 조사한 가격과 공간의 가치를 계산해놓은 대관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셋째, 공동기획의 경우는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을 들여서 같이 해보자'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 개인적으로는 공간을 근거지로 일어나는 작업 외에도 축제나 창작 사업 같은 외부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외부단체와 연계해서 저희 공간에서 활동을 하기도 해요.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건이 일어나고 기억이 공유되어 관계 맺음을 갖고, 이 관계는 또 다른 것들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때그때 진행합니다. 가장 밑바탕은 개인의 욕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죠. 올해는 개인 작업은 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교육, 리서치, 기획자들과의 모임, 아티스트와의 만남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공간에서 매일매일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 개를 하는 데도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람은 뭘 모르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다 싶어서 네, 네 하고 넘길 때가 있어요. 저는 공간이 때론 비어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비어있어서 발견하는 것도 있어요. 2017-2018년 공간지원사업과 프로젝트지원사업 등을 진행한 바 있는데, 올해는 아무 지원사업 및 자체 기획 프로젝트를 안하다 보니 그냥 살아가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간지원사업이 가졌던 힘 중에 하나는 지원받은 사람이 생계에 대한 부분에서 신경을 덜 쓰게 되니까 창작과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 것이에요. 지원사업이 아니면 그 기회비용으로 돈을 벌고 생계도 유지해야 하니 개인의 욕망이 확장되기 어렵다는 게 아쉽죠. 그렇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야겠죠. 종교인은 아니지만 '예비하신 길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말을 인용해봅니다.

—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스트나다

— 저희는 장애인, 비장애인 아티스트가 협업해서 진행되고 감각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다원예술축제 '페스티벌 나다'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배리어프리 공연은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공연입니다.

— 저희 사업 중에서 시각장애인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시작장애인 뮤지션들이 나도 비장애인 뮤지션처럼 홍대 클럽에서 공연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대 클럽에서는 장애인 뮤지션들이 공연을 할 자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장애인 뮤지션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네스트나다를 마포구 홍대에 오픈하셨어요. 그렇게 시작한 공간입니다.

— 휠체어 동선을 고려해서 1층에 열려고 했지만 너무 비용이 비싸서 현재 2층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건물주분께서 1년 정도만 기다리면 엘리베이터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셔서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건물이 낡아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공간에서 공연, 전시, 대관, 컨텐츠 개발 등 작업을 하고 있어요.

— 네스트나다에서 하는 기본적인 사업은 장애인+비장애인 아티스트가 협업으로 페스티벌 나다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예요.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페스티벌 나다는 2012년 청각장애인이 공연장에서 라이브공연을 즐기게 하겠다는 엉뚱한 발상으로 시작된 장애공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해 온 페스티벌인데요. 여러 프로그램 중 예를 들어 라이브 공연이 대형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미디어아트로

시각화되고, 페스티벌 나다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춤추는 수어 통역은 노래 가사와 멘트는 물론 뮤지션의 거친 숨소리까지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우퍼 조끼와 진동 스피커, 자막서비스는 나다 뮤직페스티벌에서만 볼 수 있는 청각장애 관객을 위한 관람보조 장치로,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공연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 또 암전 공연이라는 것을 하는데, 불빛을 다 없앤 상태에서 뮤지션들은 공연하면서 시각이라는 감각이 제한된 상태에서 남은 감각만으로 공연에 집중하게 만드는 암전 공연은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전맹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약시도 있고, 저시력, 터널증후군 등 다양한 장애 형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 시각장애 아날로그 안경을 만들어서 착용하고, 저시력 장애인의 입장에서 창작물을 만들어가는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활동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의 경험과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저시력 진행 과정을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로 간접체험, AR, VR로 시각장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시각장애인 협회에 허락을 받고 안과 의료진 분들께 자문을 받아서 작업을 했는데요, 얼마 안 있어서 모 협회에서 소스까지 똑같이 그대로 키트로 만들어서 기관 등에 비싸게 판매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비용 부족과 여건상 특허를 내지 못했어요. 시각장애 체험 아날로그 안경도 대표님은 욕심이 없으셔서 다 같이 사용하고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세요.

— 장애아동 교육 프로그램은, 뮤지션 청년예술가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장애아동의 음악 교육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장애아동과 가족이 함께 하는 타악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취약계층 장애 배리어프리 사업을 주로 했는데, 지나서는 배리어프리는 남녀노소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어르신들이 즐기는 락 공연을 기획하고 있어요. 복합문화공간이어서 장애인 작가들의 전시를 보면서 음악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상시 진행하고 있어요. 네스트나다에서도 페스티벌 나다의 시그니처 공연인 암전 공연을 월 2-4회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 대관도 장애, 취약계층, 학생은 15% 정도 할인을 해드리고 엔지니어·스텝 비용도 저희가 다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취지를 알아보고 관객분들과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함께 해줍니다. 또한 지역사회활동으로 매년 연말에 이루어지는 네스트나다 기획 공연에 참여하는 뮤지션분들이 애장품 경매를 통한 수익금 전액과 다원예술축제 페스티벌 나다의 입장수익금 전액을 근육장애인 생활 시설, 아동학대 피해아동시설, 독거어르신 식사 지원단체, 저소득층 아이들 공부방 등의 마포구 내 지역 소외계층에 기부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현하고 있어요.

이주영 — 전체 예산 중에서 내 외부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스트나다 — 공연수익은 20-30%이고 외부 기획과 대표님 투자금이 70%입니다. 공연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문화공유공간 산책 — 저희 공간은 2001년에 성동구의 작은 지역에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선한 의지로 시작을 했고 10년 활동을 하다가 건물주가 망해서 전세보증금 2억을 몽땅 떼였습니다. 처음 어린이도서관 시작할 때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 엄마 대상으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책 문화를 만들고 또 엄마가 성장해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는 과정을 만드는 공간을 위해 시작했어요.

— 마침 2001년에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어서 지역 내 엄마들과 아이들 중심으로 동아리들이 형성되었어요. 동아리들이

책 관련 문화를 발굴해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과 나누자고 해서 첫 번째 지역 축제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20번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엄마들이 예산 없이 준비하고 기획해서 진행했고요, 지역에서 '엄마들이 노는 줄 알았더니 선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공간이 그렇게 되어버리니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 성장한 엄마들이 좋은 공간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도서관 살리기 운동을 했고, 서울시와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어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성동구가 움직이지 않다가 계속 도서관 살리기, 민원, 홍보 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도서관이 온다면 받아준다는 곳이 꽤 있었어요. 그때 성동구가 움직인 거죠.

— 행당동에 있던 공간을 옥수동, 금호동으로 옮겼어요. 재개발되면서 경로당이 몇 년 동안 비어있었어요. 원래 있던 곳은 지하철 근처 사람들이 다니기 편한 곳이어서 너무 좋았는데, 옥수동, 금호동 공간은 숲속에 있어요. 성동구와 공간만 5년 협약을 맺고 사용 중인데 내년이 재계약 시기입니다.

— 행정안전부의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받아서 현재의 공간으로 확장해서 만들었어요. 2층 건물이고 숲 안에 있어요. 요즘으로 보면 핫한 숲세권이죠. 1층은 작은 어린이도서관 형태를 유지하고, 2층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문화공유공간 산책으로 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가 문화주체자로서 동아리를 만들고 그 동아리들을 확장해서 지역에 나가서 책 축제를 기획 운영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2015년 옥수동에 갔을 때는 원주민들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새로 입주한 아파트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유동인구도 적고 없고, 찾아오기 어려운 상황이라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하나둘씩 소문이 나서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는 문화공유공간이고, 활동가가 상근 두 명, 대표 1인 비상근입니다. NGO이기 때문에 공유공간에 후원하는 250명의 후원자들이 있고 그 비용으로 봉사료 정도의 상근비를 주고 나머지는 마을 학교, 인문학 강좌, 예술 문화 프로그램 등은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어요.

즐거운가

— 송파구에 있는 즐거운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동구단지 비닐하우스 공부방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공부방에서 시작해서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니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져서 만든 곳이 무지개빛 청개구리라는 곳인데, 송파구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주변이 주택가라서 동아리 활동 중에서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소리가 큰 경우 어려움이 생겼어요. 댄스나 밴드 활동 같은 소리가 많이 나고 공간이 크게 필요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시작했습니다. 과정에서 학생들의 부모, 학생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지나다니며 마을 축제에서 만난 마을주민들이 도움을 주셔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서 마을 공유의 사랑방처럼 하자라고 해서 지금의 복합문화공간이자 마을공동체를 표방하는 공간으로 확장했습니다.

— 그런데 2015년에 10년 동안 있기로 했던 건물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5년 계약만 표기되어 있던 서류상 있던 공간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전하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지역 네트워크들이 도움을 줘서 현재의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한번 공간을 운영해 본 경험이 쌓였던 덕분에 청소년들과 운영자들이 공간을 설계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이전 공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 지금은 뭐든지 원한다면 뭐든 할 수 있는 공간을 표방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역 주민 동아리, 원래 있던 청소년

동아리들은 계속 해마다 졸업하고 들어오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도 매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단오한마당을 송파구에서 기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기획 주체를 송파구 마을생태계조성단에 넘긴 상태이긴 하지만 즐거운가에서 활동했던 지역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마을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질감이 별로 없습니다.

— 문화예술교육, 인문학 강좌도 지원을 받아서 종종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배움터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움직임입니다.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라던가 송파구 내의 청소년 관련 센터, 대안학교 일 등 이런 곳들과 연결해서 아동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배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날로 정해서 미디어, 음악, 체육 등 관심 영역에 따라 활동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해보자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작업입니다. 지금은 뜻 맞는 기관끼리 각자 잘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정해서 기관마다 다양한 학생들을 서로 교차해서 보내주는 공동사업 형태로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 주방시설이 있어서 가끔 파티도 하고요, 공간 이름부터 즐거운가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과 활동하는 사람도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대표님과 다른 활동가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 활동가 조직 성격이 강한가요?

네스트나다 — 활동가 조직의 성격은 좀 애매하고. 여러 가지 성격이 겹쳐 있어요. 저희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때는 청년예술가, 예술가 지망생 사이 어딘가 즈음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1박 2일 네트워크 파티장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최소한 분기별로, 격월간으로 파티가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게 잘 놀아요.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해요. 청소년 때부터 활동한 사람의 친구들, 건너 건너의 네트워크들이죠.

이주영 — 마을예술창작소로 지정되어서 활동하셨지요? 마술소 운영하는 와중에 2015년에 쫓겨나는 사태를 겪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스트나다 — 지금도 마술소 OB 멤버로 참여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 사회자 진행

김성진 — 이제 한 순배 돌아갔네요. 다양하게, 격하게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현재 지원사업에서 어렵고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변경될 필요가 있거나 이전 라운드테이블에서 제기된 내용인데요.

— 지원사업에서 프로그램보다 사람에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장기적인 지원사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런 의견들과 연결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 자유발언

운영하며 어려웠던 점

미인도 — 매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구 위원들의 '저걸 쫓아내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는 시선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도 처음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이런 걸 만드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4-5년이 되니까 미인도를 지지해주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역에서 잘 섞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자치 그룹에서 운영하는 공간과 협력하는 사업, 활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 조합 사무실은 미인도가 아닌 곳에 따로 있고 미인도 내에서는 사무실을 둘 수 없는 공간이어서 일정이 없을 때는 잠겨 있어요. 보통 공간 가동률이 80% 정도인데 그것도 잠겨 있는 상황을 본 사람들은 사용하지도 않는 공간을 저렇게 두냐는 민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한 공간들이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인데 저희는 공공공간을 미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결이 다른 느낌입니다. 공간의 구조도 다르다고 느꼈어요. 가령 저희는 매니저가 있지만 미인도를 운영하는 일로 페이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매니저도 다른 사업으로 일자리 인건비를 갖고 와서 드리고, 미인도 운영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한 형태이고 그 친구가 모두 대응하지 못하는 시간대에는 저희 조합원들이 시간 될 때마다 가서 케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수도를 끌어오는데 3년이 걸렸어요. 온갖 종류의 행정적 불가능함이 다 걸려있어요.

— 위치가 뭘 할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연구하고 조례 개정해서 고가다리 밑의 공간을 활성화한다고 하긴 하는데 현행 제도와 법상에서는 고가다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다 만들어서 하다 보니 서울시 북구도로 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벽면을 검사하기 위해 중장비를 갖고 오면 너희들은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법이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 공공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다른 곳에 비해 심합니다. 운영에서도 저희는 의도적으로 지원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공간이 법체계에 껴있기도 하고 공공의 미션을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인데 다른 공공공간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니까 공공지원의 목표와 미션을 사업적으로 수행하려면 저희의 활동이 좁혀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생활문화지원센터 지원사업에서도 사업의 미션과 구조에 끼워맞춰야 하는 과정에서 서울문화재단과도 첫해부터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2차년도에는 지원신청하지 않았고, 3차년도인 올해에는 다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도 지원사업의 고정된 틀거리와 미인도 공간이 잘 맞는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스트나다

—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요. 저희 대표님이 이 자리에 못 온 이유도 지역 지원사업 신청 때문에 외부에 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지원사업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확히는 지역 특색에 맞는 지원사업이 생겼으면 합니다. 저희는 장애 쪽 일을 많이 하지만 장애 대상 지원사업을 못 받는 이유가 대표가 장애인이 아니어서입니다. 그렇다고 예술, 음악으로 지원받기에는 예술, 음악 쪽 기준이 너무 애매합니다. 지원사업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사회적기업을 받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회사 부채가 2억이 넘어서 사회적기업을 할 수 없다고 해요. 빨리 부채를 털려고 하는데, 대표님이 월급을 안 받고 투자를 하고 있는 구조에서 잘 안될 것 같아요. 직원들 월급은 다 챙겨주시는데, 대표님은 항상 외부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대표님과 외부 기획을 같이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 복지 쪽에 가면 '이건 좀 아닌데'라고 고개를 갸웃하고, 예술로 가면 '다원예술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도대체 다원예술의 정의를 어디서 내리는 건지... 복지 쪽으로 가라고 하고 틀에 박힌 애매한 기준으로 힘이 빠지게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사업설명회를 듣고 나와서 힘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간지원사업도 네스트나다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잘 안됩니다. 좀 더 지역 특색과 현장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처음 공연을 진행할 때는 무료입장, 유료 퇴장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잘 보고 나서 나갈 때 돈을 왜 내냐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어요. 입장료는 무조건 2만원이라고 고정하고 뮤지션들과 반반 나눠요. 다른 것보다도 보통의 그 인식이 너무 속상했어요. 홍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입장료가 너무 비싸고, 입장료를 왜 내야 하냐고 따지시는 사람들도 있어서 속상하지만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근방에서 대표님을 룰 브레이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안티카페손과얼굴 — 홍대에서 하는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비싸게 할 수도 없어요. 기획에서 관객입장료를 책정할 때 '음료를 줘야 해' 이런 고민, 지원사업을 할 때도 만원, 만오천 원 입장료가 있을 경우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봐요. 지원사업을 받는 것이 오히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3만원 입장료를 받는 강연을 하는데 우리는 무료로 섭외해서 하니까 되게 경계가 많이 됩니다.

네스트나다 — 저희는 사실 서비스직이나 다름없는데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해요. 뮤지션들에게 가는 비용이라고 한참 설명을 하는데도 나중에 누가 탈세 신고를 하면 저희는 소명자료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문화공유공간산책 — 공공을 위해서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면 활동가들이 시달리고 소진되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어요. 또 성동구와 공간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 협약이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늘 있어요. 현재는 그 불안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20년 동안 저희가 즐거워서 으쌰으쌰 힘을 내서 했는데 이제는 혼자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 시작해서 주민들과 함께했는데, 20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 지역의 큰 언니로서 마을과 청년들, 주민들에게 어떤 기여를 해야 한다는 요구와 지역의 협력체에 나가야 한다는 요구를 받습니다. 서울시의 자치가 통합되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협력해야 하면서 재미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의 자부심은 이 공간 때문에 이사를 포기하고 여기서 살고 싶다는 피드백들이 올 때입니다.

— 공간의 재협약에 대한 고민, 운영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서 활동가와 대표인 저의 소명의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민, 지원사업이 정말 우리에게 득인가 실인가 일상의 문화 나눔을 못하는 딜레마, 내용에 대한 고민, 대표로서 고민은 공간을 유지하면서 정체성을 갖고 유지해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주영 **지원사업에 소진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다시 말해 NGO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방향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무엇일까요?**

문화공유공간산책 —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워크숍을 하는데 받은 후원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강사비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좋은 강의를 지역에서 하면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원사업을 하면 수요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적어서 갑자기 참가비를 책정하면 공유공간에서 그렇게 하냐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놓치지 못하면서 고민이 됩니다.

— 이번에 저희가 주민으로서 생각한 것은 각각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역량을 개발해서 활동가들이 워크숍을 하는 방식으로 해보고 싶은데 지원사업은 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2월, 4월에 지원사업이 뜨는 것을 기다리고는 있어요. 작년부터는 저희가 필요한 사업 몇 개만 하자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의 지원만 받고 그것도 오가는 사람들과 공유가 되는 사업만 하자고 있어요. 사실 사업을 보면 욕심이 나지요.

— 어느 자치회는 몇천만 원짜리 사업으로 너무 이상하게 동네 축제를 하는거예요. 저희가 20년 동안 책 축제를 하는데 아주 적은 비용으로 3-4백 명 대상으로 축제를 하고 있고,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내용은 풍부한데 예산은 없고 자치에서 진행하는 축제는 내용은 없지만 예산은 풍부하고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지원사업의 주체 : 광역단위 vs 기초단위

미인도 — 공간 지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광역단위보다는 기초단위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공간들이 다 생활권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 활동과 맞지 않는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활동이 어렵기도 합니다. 네스트나다같은 공간이

전형적인 것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스트나다에서는 마포에서 직접 활동을 보고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면 광역단위 안에서 지원을 설계하고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울 거예요.

안티카페손과얼굴 — 기초단위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기초단위에서는 새로운 DB를 구축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DB는 무조건 주민뿐이거든요. 그 바깥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미인도 — 마포의 특징이 아닐까요?

행화탕 — 서울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보면, 타 지역은 차로 시와 시를 넘어가면 한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경계가 구분되는데, 서울은 행사를 할 때, 내가 사는 구가 아니어도 다른 자치구에서 충분히 넘어 다닐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역이라는 경계가 반 투과막처럼 되어 있어서 SNS등으로 정보가 퍼지면 교통이 편리하니까 접근도 용이합니다. 행사를 공간이 위치한 동네를 벗어나서 보다 큰 서울이라는 범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단위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의 사심이 공공성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기관만이 공공성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공공성을 띠는 활동이 있고, 또 공공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게 연간이나 중장기 계획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기초단위에서 케어를 받는 것이 더욱 복잡하고 힘든데 광역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지원을 받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기초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유의미하지 않을까요.

— 그리고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최초예술가 지원사업 등 많지만 문화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곳들끼리 네트워크를 갖고 긴밀하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안티카페손과얼굴 — 사적 공간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왜 지원해야 하는지 서울문화재단에서 빨리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자꾸 민간에게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원 심사평이나 심사 기준을 봐도 단순 심사위원들의 취향처럼 느꼈어요.

— 또 하나는 청년예술의 파이가 늘어나니까 발표할 수 있는 공간, 창작공간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적 공간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창작공간이나 넘치는 청년예술의 파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서울문화재단 공공 창작공간 리스트만 봐도 거의 다 그렇고요.

—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기대했던 것은 사전 조사가 분명히 내부에서 있었을 텐데 외부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적 공간을 왜 지원해야 하는지, 서울문화재단에서 찾아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개인의 사심이 공공성에 닿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개인의 취향은 매우 다양하고 그 다양한 취향을 모든 사람이 향유하기 때문에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왜, 지원할 것인지 답을 낼 거잖아요.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신념을 포괄할 수 없다면 재단에서 포괄 할 수 있는 답을 스스로 찾았으면 합니다. 마포뿐만 아니라 기초단위는 관심의 대상이 주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은 40대 이상의 주민입니다. 주민 안에 행위자와 향유자가 섞여 있는 현실에 마포문화재단에서 관심 있는 부분인 동아리나 단체에서 실제 주민에서 포함되지 않고 있거든요.

미인도 — 저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기초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설과 인건비에 관련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간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행정의 지침과 재정규칙을 봤을 때 간단하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일하게 손쉽게 풀릴 수 있는 단위는 기초 쪽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경험하기도 했고요. 가령 생활문화지원센터를 받을 때 부가세 부분부터 사용 가능한 예산과 불가능한 예산이 굉장히 촘촘하게 나뉘어 있어요. 이 기준과 지침들을 거대한 계획을 갖고 바꿔내지 않으면 사실 재단의 의지만으로는 바꿀 수 없거든요. 이런 구조에서 그나마 자유롭게 움직이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초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40대 여성, 주부,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 한정시키는 방식은 우리나라 기초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맥락에서는 창작공간과 독립적인 공간들이 기초 단위의 생태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마포구의 관광자원활성화 사업의 핵심은 문화적 자원입니다. 문화적 자원의 핵심은 공간이고요. 이런 것을 마포구에서 모르는 것이 아닐 건데 문제는 추동할 수 있는 외부적인 힘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지원금들도 이제는 다 기초재단으로 다 내려갈 거에요. 이런 지원금을 광역지원 형태로 지원하게 되면 광역은 마포 공간의 컨디션, 애매한 경계에 걸려 있는 공간과 창작을 중심으로 한 공간 등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케이스 마다의 지원 구조를 짤 수가 없어요. 겹치는 부분을 모델링 하면서 몇 가지 갈래로 나뉠 수밖에 없고 빠지거나 누락되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섞여 들어가는 구조로 짜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문화재단이나 광역 재단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추동하고 기초에서 이런 공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게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오신 선생님들도 주민자치회 가게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치를 증명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 필요 없다고 하면 순수한 의지로 그 공간을 운영해야겠지만 지원사업의 구조에서 운영하려면 그 공간의 가치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공유공간산책 — 얼마 전 서울시의 공간지원에 대한 사업 설명회에 갔었어요. 사업을 보면 NGO나 마을지원 활동을 하는 것에서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가에서 1순위로 나왔던 것이 공간의 안정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운영의 안전성, 인건비의 안전성이었어요. 공간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마을공간지원사업에 가도 기존의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었어요. 공간을 지원해놓고 지자체가 운영권을 갖는 것, 성동구에서는 요즘은 이런 공간들을 직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직영들은 내실화도 있지만 어떤 지원도 없는 순수 민간단체들은 지역에서 사업들이 겹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인거죠. 선생님 말씀에 대해 약간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 공간이 있는 곳이 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반은 중구, 반은 성동구, 일부는 용산구에 걸쳐져 있어요. 건물만 성동구의 건물입니다. 나머지는 지역이 합체되어 있는데 기초 단체에서는 성동구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중구의 남산타워가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쪽 지역 주민들이 훨씬 많은데도 광역대의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기초예산은 그런 것을 성동구 주민만을 위한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공간운영자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안티카페손과얼굴 — 지금 흐름이 그걸 배제하는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마포도 거점 공간을 한다고 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지만 취향이 마포구로 향하는 건데 저희가 말하는 예술은 좀 더 넓은 범주인데 광역에 기대하는 것은 개인의 사심이 공공성에 닿는다는 것이 더 넓은 범위로 닿는 것이거든요. 기초로 집중하다 보면 몇 명이 왔고 누가 어떻게 오는가가 데이터로 집계가 됩니다. 이것은 한편 지역 데이터가 쌓이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어요. 이런 딜레마에서 지역현장 문화공간 분석연구라면 더 넓은 범주에서 얘기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기초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알겠지만 기초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있어요. 지역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요.

행화탕 — 공간이 활동하는 수혜 대상의 범주가 개인의 취미나 활동으로 끝나는 완전한 사적 공간, 개인의 활동이 주변의 찾는 사람과 만나서 이웃주민, 내가 사는 마을과 만나는 범주라면 기초재단에서 관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서울의 특성으로 서울 전체를 그 범주로 놓고 사람들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광역단위에서 가로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성을 지닌 것은 공공성의 효과가 마을 단위에서 펼쳐질 수도 있고, 서울시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고, 활동의 범주에 따라서 개인의 활동이지만 공공성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활동도 있지만 민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공공에서 딱딱하게 가는 활동을 민간에서 하는 소프트한 활동으로 침투력이 있는 것 등 공로가 있는 것들을 공공에서 인정을 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운영과 프로젝트를 중장기적으로 공공사업을 할 때 서울문화재단이나 기초단체에서도 일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단체들이 할 수 있게(요즘 흐름이 중장기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민간과 함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공공성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공공성을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의 지원사업 공모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미인도 — 서울문화재단은 다년 지원이 없어졌지요?

김진환 **일부 2년차 지원까지 연결되는 형태를 제외하면, 애초부터 다년간 지원을 약속하는 형태의 규모 있는 지원사업은 없어요.(2020년에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 2년간 지원 형태로 변경되었음) 서울문화재단에는 문화공간에 대한 별도의 지원 개념은 약한 편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공간 지원사업도 청년예술과 생활문화 범주의 사업이 실행되며 기능적인 공간 지원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지원센터는 동아리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청년예술공간은 청년예술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죠. 공간 자체의 의미보다는 생활예술인, 청년예술인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사업이고, 공간을 중심에 놓고 보는 정책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지원사업들을 우수한 문화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나오기도 하구요.**

가설이라고 하면 공간이 창작자들, 문화기획자, 활동가를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지원을 떠나서도 문화예술의 주체인 만큼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인지를 증명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것보다 서울 안에서도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이 있고, 예술위의 소극장 지원사업, 전시공간지원이 있긴 한데, 그런 식의 지원사업 틀로 묶어서만 거기에 들어오는 공간을 분석했을 때 못 보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가까이 있는 공간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결국 결론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역은 영역별로 모델화해서 사업한다 해도 한번 쯤은 전시 공간 공연공간으로 규정하던 시절을 건너와서 문화예술공간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해봐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공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영역 사업의 틀에 끼워 맞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것을 만들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미인도 —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서 벌어지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지원은 공간에 대한 물리적 지원이 아니라 활동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데 물리적 공간으로만 한정하니까 공간에 대한 지원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이라면 창작지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활문화라던가 네스트나다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지원입니다. 공간지원이라고 해도 공간에서 하는 활동을 보면서 구조화하면 창작지원은 광역지원, 국가지원이 훨씬 적절하고요,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죠.

안티카페손과얼굴 — 그러면 시설의 안전은 지원 못 받아요.

미인도

—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전에 생활문화지원센터 심사를 받을 때도 느꼈는데요 그 공간의 활동 맥락을 보면서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원할지, 어떤 지원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외적 형태,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네스트나다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배리어프리 공간이 아닌데 '왜 장애활동이야?'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공공의 지원에서 대개 해석을 하거나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혼란도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김진환

— 저는 청년예술공간,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생활문화공간지원사업이 아니라 생활문화지원센터라고 하는 순간 기능적인 시설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벌써 필요하냐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 나름의 내적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 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연구하고 제안 드리고 할 때는 공간 지원에 대해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민새롬 연출이 글쓸 때 연극계에서도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인격이나 얼굴이 있다고 보일만 한 극장이 없다고 합니다. 다들 유서 깊다고 하는 공간에서도 공연하려고 하면 대관 담당자가 시설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뭔가 인격체와 대한다는, 경험을 쌓는다는 느낌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더라고요.

— 지역문화공간, 지역문화예술현장의 범주로 지원한다면 공간 자체가 공간의 서로 마주치면서 공간들이 자기 인격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결론은 지원하면 안 된다고 날 수도 있죠. 문제의식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공간에 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지역문화에서는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지원사업에 바라는 것

행화탕

— 서울문화재단 같은 중앙부처의 공간지원사업은 프로젝트 단위 지원사업이 많아요. 예를 들어 사립미술관 지원사업은 연간 사업을 짜야 하고, 서울문화재단의 경우는 지원에 대한 운영만 하는 식으로, 운영과 프로젝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보완이나 다양한 일을 해야 합니다. 지원할 때 복지·문화를 아울러서 여러 가지를 나누고 차등을 두지 않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하고 싶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프레임을 짜서 맞추면 다변화,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설보완과 기존 운영, 프로젝트 단위의 지원, 1-2년 중장기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어서 공간에서도 스스로의 운영을 여러 지원사업에 짜 맞추지 않고 연간 하나의 계획을 갖고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근에 아르코에서도 중장기 예술 공연단체 지원사업이 나왔어요. 2-3년 단위의 지원인데 첫해 얼마를 주고 검증을 거친 대상에 2-3년 지원하는 방식인 다년차 지원사업입니다. 신진 아니면 원로의 공간 쪽에만 지원사업이 포진되어 있다가 중견 공간을 조망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생겼는데 지원방식도 다양화되면 좋지 않을까요. 시설보완은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아무것도 구입하지 못하잖아요. 서울시나 공사의 시설사업을 보면 시설보완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적인 방법이 있어서 구비나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연간 지원시스템 안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유공간산책

— 서울문화재단이 이런 라운드테이블을 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지역 내에서도 문화 활동은 많은데 각자 별개로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건 광역을 대상으로 하건 제가 얼마전에 지자체, 기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어서 갔더니 미혼모 대상으로 활동하려는 단체들이 지역에서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사심으로 시작했지만 공공성을 담보로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 가이죠. 각각 공간이 갖는 딜레마입니다. 결국은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포럼을 통해서 각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단체에서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유행하는 협치의 과정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 단순 생활문화동아리를 지원한다던가 이런 식의 한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아우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공간이 함께, 지역에서 출발해서 서울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리적인 공간 지원사업은 번듯한 공간이 없으면 아예 제외되어 버리는 상황에서 힘들게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공공적인데 개인이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티카페손과얼굴

— 저희는 이런 라운드테이블에 오면서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최근에 가장 크게 느끼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공간을 시작한 이유가 창작자들이 '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우리도 공간으로 자생하고, 창작자들도 이 안에서 자생할 수 있는 공간. 수익 면에서 내가 좋아서 공짜로 공공적으로 하는 활동들 말고 좀 더 수익을 내는 방법을 플랫폼에서 만들어서 시도를 해보자 했기 때문에, 어딘가의 골방에 틀어박히지 않고 사람들이 회사원들이 많은 공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5년차의 공간을 운영하면서 한해 한해 공간의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조금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매번 그랬기 때문에 5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쩔 수 없는 자본금 앞에서는 코딱지만한 돈으로 공간 하나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계점을 느껴서 처음으로 공간지원금을 받았거든요. 생각해보면 청년공간지원금은 저희에게는 택도 없는 거죠.

—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것인데 창작들이 생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로 받아들여 줘서 청년허브에서 공간사업을 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의 공간공유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런 과정이 힘이 되는 와중에 협력기획으로만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자체 기획도 진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간, 공간지원들 많아지다 보니 저희처럼 공간으로 자생하겠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료대관도 많아져서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을 섭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 사람들의 인식이 문화행사는 공짜여야 한다는 생각이 박혀서 대관을 하면서 청년, 신진예술가들의 인식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고 많이 느꼈어요. 저희의 활동이 외부에서 보면 공공성을 띠는 아름다운 프로그램들이 이 가격, '너무 비싼 것 아닌가'라고 오히려 주변의 가까운 아티스트들에게서 듣고 있는 실태여서 지원사업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는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 창작과정에서는 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다른 민간에서 진행하면 3만원 이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많이 받냐, 비슷한 컨텐츠로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하면 3만원 받는데 우리는 만원으로 하고. 지원사업을 받는 것이 협력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는 되지만 이것이 정답인가가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자본금 없이 시작하다 보니 돈이 돈을 부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스트나다

— 좀 더 지역 특색과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안티카페손과얼굴 말씀처럼 문화행사는 공짜여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아티스트분들을 설득하는 것부터 힘들었어요. '2만 원이면 관객들이 안 오는 것 아닌가요?'라고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후불, 그다음에는 만원에 음료주문 필수로 하다가 만 오천 원, 최근에는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뮤지션 페이도 올려야 하니까 아티스트들 조차도 굉장히 '이러면 사람이 안 와요'라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번 믿어주세요'라고 했어요. 올렸는데 아직도 가끔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곳과 비교해서 2만원의

공연관람비가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팀당 50분씩 3팀이 공연하는데 2만원이면 정말 저렴하거든요.
나름 자부심이 있는데 아티스트 분들이 준비하는 무대 등을 고려해서 보면 절대 퀄리티가 2만원보다 못하지 않아요.
저희는 투명하게 나눈다고 해도 관객이 많지 않으면 갖고 가는 비용은 노력에 비해 정말 작거든요. 제 꿈은 입장료를 5만 원까지 올리는 거예요.

미인도 —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완전히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예술가들도 대부분 예술교육 같은 작업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오는 사람은 청소년이나 아동이 많죠. 아동과 청소년의 작업은 참여비에 대한 클레임이 적어요. 오히려 참여비가 없는 프로그램은 퀄리티가 낮을 것이라 예상해서 신청률이 낮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무료로 오픈한 적이 있었는데 미달했어요. 똑같은 목공 프로그램을 5만 원 정도 참가비를 올렸더니 하루 만에 매진했어요. 이게 참여대상 특성과 지역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아요. 되게 고민되는데 이런 기준과 룰을 만들지 고민이 되는 거죠. 창작중심 공간들의 경우는 전시와 공연을 하면 콘서트 비용을 2만원으로 했다고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이런 인식들이 여전히 있어요.

네스트나다 — 이게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장애아동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입장을 반드시 받거든요. 노쇼가 너무 많아서 입장료를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안티카페손과얼굴 — 마포지역 힘이 없나 봐요.

네스트나다 — 힘이 많이 빠져요.

미인도 — 연구진들이 분석해 주실 거예요.

■ **사회자 마무리**

김성진 —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분류해서 연구 작업을 하고 해석하고요, 자료와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공간운영자 5차 라운드테이블 녹취

일 시	2019년 11월 5일 10:30-12:30
장 소	문화디자인 자리
참석자	공간운영자 : 무대륙(김건아), 달꽃창작소(홍연서), 마을극장수유리(최소진), 우리동네나무그늘(정종현), 동네형들(심은선) 연구진 : 김성진, 김지영, 이라선영 서울문화재단 : 한민지

■ 사회자 오프닝

김지영 — (연구사업 취지 소개) 각자 공간 지향과 가치, 실제 벌어지는 활동들을 소개해주세요.

김성진 — 공간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해보니 현재는 어떤지, 앞으로의 계획이나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주제에 구애받지 말고 해주세요.

■ 소개 및 그룹인터뷰

달꽃창작소 — 저희는 2013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교육 쪽에 관심이 있었고, 또 지역에서 지역의 아이들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부녀회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연결되어서 부모님과 아이들을 5명과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는 공간이 없어서 주말에 근무가 없는 건축사무소를 빌려서 했는데, 공간을 빌려서 활동을 하는 것의 어려움이 많았죠. 고가의 물품도 있고, 청소 문제도 걸려서 결국 주민분에게 보증금을 도움받아서 2015년 초에 공간을 얻게 되었어요. 그때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간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공간조성비용을 책정할 수 있었어요.

김지영 — 프로그램을 짤 때 주요 맥락, 이슈 중에서 달꽃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했나요?

달꽃창작소 — 단체가 되고 사람이 생기니까 고정비가 필요해져서 운영비를 벌어야 하는데 지원사업으로는 프로젝트 운영비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운영비는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답을 공모사업에서 찾았었고 그때는 공모사업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지원사업에 맞춘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닐까, 아이디어성 사업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작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 줄이고 정말 우리 단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만 하자고 해서 2-3개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단체의 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진 결과 약간 버티는 느낌으로 운영자도 비상근으로 하고 사이드 잡처럼 갖고 가자고 했어요. 올해는 저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김지영

— 공간에서 매일 일하다가 일주일에 2일 3일 이렇게 나가면 작업이나 관계의 밀도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달꽃창작소

— 정말 다행인 것은 참여자 중에서 저희의 상황을 설명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사람들을 찾았어요. 청소년 프로그램은 10대 중 한 사람이 기획 운영하고 있고요, 참여자들이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과 기획을 함께 하려고 했어요.

우리동네나무그늘

— 나무그늘을 만들 즈음에 지역 정치를 고민하던 분들이 많았고, 마을공동체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어요. 성미산마을의 경험을 갖고 있던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해보고 싶고,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모임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더해져서 장소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드는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욕구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놀러 가는 정도였어요. 주민들의 동아리도 만들고, 생활상담소도 열고, 재활용 가게와 카페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지역 엄마들의 모임을 할 수 있게 공간을 구성해서 운영했어요. 주변의 단체들을 모아서 마을 축제도 열고요. 자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압니다.

— 처음에 들어간 공간은 몇 년 동안 공실로 있던 한적한 곳에 들어갔는데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재개발 이슈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결국 5년 하다가 쫓겨났어요. 건물주와 좀 많이 싸웠습니다. 법원에서 화해 조정을 해서 약간의 보상을 받고 인근 지역의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 처음 공간은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에 있었어요. 지금은 대흥동 대로변 2층으로 나왔어요. 임대료 때문에 쫓겨났으니 장사를 잘하자고 해서 대로변으로 나왔는데 홍대 신촌 상업지구가 아니어서 장사가 잘 안되더라고요. 오히려 동네에서 다니던 길이 아니니까 원래 자주 오던 주민들도 잘 안 오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꽤 많지만 열심히 나오는 몇몇 외에는 흩어지게 되더군요. 다들 각자 사정으로 이사도 가고 아이들도 크니까 학교나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잘 못 오게 되고요.

— 인건비도 나오기 힘들어져 결국 인력을 줄였습니다. 3명이서 파트타임으로 하던 일을 제가 혼자 전담하여 종일 상근하게 됐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일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지금은 지원사업도 너무 많이 하지는 말자고 합니다. 그 사업들 실행하는데도 다 인력이 드는데 여력이 부족하거든요. 지역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마포시민협력플랫폼이라는 민간시민단체 네트워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가 상주해 있어요. 연계해서 사업을 하긴 하는데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들은 꾸준히 하는데 나무그늘에서 기획하려던 것들은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저희는 협동조합이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회의하고 결정하는데 제가 주로 인력을 늘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요.

— 어쨌든 공간은 이어가고 있어요. 상근매니저는 제가 하고, 이사회와 조합원이 저녁에 돌아가면서 스텝으로 하고 있긴 한데 원활하게 운영되지는 않아요. 각자 사정과 일이 바쁘니 빠지게 될 때가 있고, 그럴 때 제가 주로 메꾸게 되곤 합니다.

— 시민자산화 시도는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데 공간 자체를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 소유로 지역의 자산으로 만들고 공공성을 띤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는 시민의 자산으로 만들자는 계획입니다. 해외 사례가 소개되고 한국에도 시작되었어요. 서울시민자산화 대회가 열렸는데 자산화가

필요한 이유를 프리젠테이션 해서 1등을 뽑는 사업이었죠. 우리도 급하게 준비해서 나갔어요. 그때 1등으로 뽑혔어요. 그 자체가 이슈화를 위한 이벤트성 사업이라 1등 한다고 해서 건물을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무렵에 이럴 거면 차라리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자는 생각을 하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우리 돈으로는 안되는구나, 어디 산골에서나 들어가야 가능하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던 타이밍이었어요.

— 그래서 자산화라는 이슈를 보고 TF를 꾸렸어요. 계속 연구하고 회의를 하다가 지역의 다른 협동조합과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쫓겨난 다른 협동조합과 TF를 꾸렸어요. 현재는 36.6도씨 의료 생협도 마포 인근에서 쫓겨나서 한적한 곳으로 이전하면 잘 되다가 쫓겨나기를 4-5번 하던 중이었고, 홍대 문화예술인들의 협동조합인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이 TF를 꾸려서 회의하고 건물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펀딩으로 일정 금액을 모으고 이슈화를 시켜서 크라우드 펀딩이나 사회적 투자를 받아서 실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2년 넘게 회의를 하고 준비하는 단계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현실이지요.

— 지금 현재 세 개의 협동조합이 모여서 자산화를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해빗투게더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세 협동조합의 조합원들도 가입하고 다른 사람들도 조합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 롤링홀에서 해빗투게더에서 여는 콘서트가 있습니다.

무대륙

— 2005년에 처음 생겼는데 저희는 공공의 목표, 대의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 그냥 친구들과 놀려고 만들었어요. 상수동에 조그맣게 노래 부르는 친구도 있고 그림 그리는 친구도 있어서 그들과 놀려고 만들었는데 노래를 부를 줄 아니까 노래를 불러봐 라고 하니까 '그거 공연 아니냐'라고 해서 공연을 시작했고, 그림은 뭐 '걸어놓으면 전시지 뭐'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5년을 하다가 혼자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지치더라고요. 2년 동안 쉬다가 제가 공연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쩌다가 김은신 대표랑 무대륙 동업을 시작했어요. 김은신 대표도 공연장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공간을 알아보다가 지금 있는 무대륙을 2012년부터 같이 하게 되었죠. 무대륙은 지하의 소규모 공연장이 있고 1층에는 커피도 마시고, 밥도 팔고, 술도 파는 펍이자 카페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공간을 찾으려고 1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금이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간만 보고 지금 무대륙 공간을 계약하고 만들었어요. 너무 없이 시작해서 전부 저희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규모가 좀 있는 편인데도 페인트 칠부터 가구, 전기 설비 수리까지 친구들과 같이할 정도로 저예산으로 만들었어요. 1층은 그렇게 쓰고 2층은 사무실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층은 원래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해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되어서 지인 중에 작업하는 사람이 쓰고 있어요. 계획이 바뀔 것 같아요.

— 내년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해인데 건물주와 얘기가 나쁘게 된 것은 아니라서 아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유지하게 되면 2-3층도 재밌는 용도의 공간을 만들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는 뭔가 '사회에 큰 도움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공에 도움이 될 것도 되면 좋겠으나 먼저 좋은 작업, 공연, 전시들이 많이 선보일 수 있는 곳이 되고 싶은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 원래는 1층에 공연장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도저히 방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저희 예산으로 아예 불가능하더라고요. 지하 공간이 좀 작지만 좋은 사운드와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공연장은 지하로 가고 카페는 1층이 되었죠.

— 인디밴드를 비롯한 음악공연을 지하에서 주로 하고 1층에서 전시도 가끔 합니다. 공연, 전시를 좋은 작업으로 진행해서 말없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이 공간에 걸리고 공연을 하는 장소라면 당연히, 충분히 공공성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2012년부터 8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공연장에서 단 한 번도 천원이라도 흑자가 있었던 경우가 없었거든요. 겉에서 보기에는 사람이 드나드니까 이윤이 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지하에 들어가는 비용을 1층에서 다 매우고 있으니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 예전 무대륙도 홍대권에 있었고 친구, 지인 중에서 음악 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한 큰 행사들이 무대륙이 알려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연장 운영은 저희만이 아니라 모두 힘들고 열악하더라고요.

마을극장 수유리

— 저희는 극단이다 보니 연습실 공간이었고요, 연극 베이스로 뮤지컬 공연을 합니다. 배우들이 연습하는 공간인데 낮에는 비어있는 시간이 많아서 지원사업을 받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세대별 연극교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마지막 2013년에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 연극을 만든 사람들과 축제나 발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봤는데 지역에는 공간이 없다는 실태를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편하게 해볼 만한 기회가 없고, 대관하려면 굉장히 오래 전에 예약하고 심지어 공간을 쓰려면 계속 눈치를 봐야 해요. 그리고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의 동아리 분들과 공연을 하기 위해 육아정보센터를 빌려서 나름대로 세팅을 했는데 하루에 3-4시간 공연을 봐야 했어요. 짧은 시간에 다 봐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축제를 했어요. 육아정보센터는 원래 저희 같은 민간단체는 사용할 수가 없는 공간이었어요. 저희가 구청을 찌르고 윗분을 찔러서 겨우 빌렸거든요.

— 첫해 이렇게 공연을 하고 나서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이건 아니지 않나 축제를 한 사람들과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좋은 공간일 필요가 없으니 우리 연습실에 조명을 달아서 공연할 수 있는 블랙박스 공간으로 바꾸자고 고민을 했을 때 2013년 진흥원의 시시콜콜 지원사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는 공간과 내용을 자유롭게 세팅을 할 수 있어서 그때 공간을 극장으로 바꾸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어요.

— 크게 바꾼 것은 아니고 공간을 블랙박스로 칠하고 조명을 달고 붙박이 장비를 달아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3년을 지원받으면서 저희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죠. 세팅하면서 마을극장 수유리라고 이름을 달았고 연극축제를 한 것이 저희의 시작이었어요. 올해 10월 말에 축제를 했는데 7회차 축제입니다. 우리끼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분들이랑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성과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어서 네트워킹하고 파티하고 놀면서 진행했어요.

— 3년 하고 지원사업이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어가는 것이 어려워지잖아요. 마지막 해에 진흥원에서 요구한 것이 '자생을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자생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3년을 보내고 저희가 2016년에 내린 결론은 "자생 못한다"였어요.

— 대관 규정이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지인들이 사용하겠다 하면 사용하게 열어주고 저희 배우들이 연습공간으로 쓰고 개인 연습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쓰기도 하고요, 가끔 커뮤니티 주민들 모이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었어요. 연말에는 연극축제를 하는 수준으로요.

— 그렇게 2년 프리하게 쓰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 지역의 문화파출소라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동네형들과 컨소시엄을 해서 그 공간에서 다시 주민들과

만났어요. 거기에 상근직원이 한 명 있었고 그 공간을 2년 동안 만들어서 하다 보니 주민 네트워크가 생겼는데 3년차에는 못하게 되었어요. 공간과 저희의 취지와 잘 맞지도 않았어요. 거기 있는 주민들과 상근인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된 상황이 왔어요. 다음 운영자가 선정되면 연결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미지수인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스란히 마을극장 수유리로 오게 되었어요. 상근하는 인력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 공간이 공간으로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힘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어요. 상근하는 분이 만든 주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같이 극장으로 오게 된 거죠. 다시 의도하지 않게 극장이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작년부터 다시 극장으로, 주민이 드나드는 공간으로 활동력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저희 공간에서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프로그램 세팅부터 진행을 상근직원과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지원사업을 해야 하는가가 첫 번째 고민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으니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제안을 해서 재밌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조금 더 자생적으로 만드는 고민을 해보자 해서 주민들의 수강료를 책정했어요. 파출소에서도 내셨으니까 수강료를 내는 것에 부담이 없었어요. 지금은 수강료를 내고 모임의 기준이 생기기도 했죠. 몇 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개설이 안 되어요. 수강료를 모아서 강사비를 드려야 하니까요. 이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장착이 되면서 그분들의 수강료로 되는 만큼만 가보자, 서로 부담이 되지 않는 만큼이면 되니까요. 그러다 사람이 안 오면 그때 그만두자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운영한 지는 1년 정도 되었고요.

— 상근인력의 인건비를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은 인력지원비만 받아서 상근 인력비를 드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 올해입니다. 주민들이 북적북적한 공간으로 바뀐 상황이 되었어요. 여전히 이 극장의 정체성은 10월의 축제였기 때문에 축제를 만들기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이나 동아리 지원해서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으로 툴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3년으로 끝났어요.

—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별개로 진행하고 공간의 임대료와 운영하는 것은 오롯이 저의 몫, 단체의 몫이긴 해요. 극단 진동과 수유리가 분리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죠. 공연으로 수익 난 것으로 공간을 메꾸고 있어요. 사무실과 붙어있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 어차피 내야 하거든요. 새로운 공간을 만들지 않고 저희 공간을 리모델링 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속적인 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여기서 해결이 되어야 계속 모일 텐데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 요즘은 저희가 극단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부분의 혼란이 살짝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는 연극을 하는 단체여서 계속해서 연극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공간의 성격이 바뀌면서 올해는 새 작품을 만들지 못했어요. 저희가 연극을 제작하거나 공연을 하는 것을 TF로 제가 계속 역할을 하면서 만들어야 하는데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지역과 함께 하는 일을 계속 하는 상황이다 보니 작품을 못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만든 작품을 순회공연 돌리는 일만 계속하고 있어요.

— 극단, 타이틀에 대한 회의가 오면서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극단 타이틀을 떼고 뭔가 아트컴퍼니나 조금 더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품을 수 있는 정체성을 정리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양한 예술과 다양한 장르를 품어내는 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고민을 이제

막 시작했고요. 지역의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도 해야 하고요. 제가 제 작품을 만드는 일보다 예술가들과 콜라보해서 뭔가 하는 것들이 흥미롭고 그 쪽에 욕망이 많다는 발견을 최근에 했어요. 지금은 어쨌든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결국에는 지역 예술가들과 접점을 찾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동네형들

— 설문지를 어젯밤에 써야지 하고 펼쳤는데 첫 번째 칸에 공간의 이름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간의 이름을 따로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동네형들이라고 불렀고 한때는 동네공터라고도 했었죠. 현재 세 번째 공간인데 한 번도 간판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현재도 없어요. '우리의 간판은 언제쯤 만들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후순위로 밀립니다. 동네형들은 2012년에 생뚱맞게 같이 프로젝트를 하던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했지만 고민하던 지점이 비슷하고 프리랜서이거나 활동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곳에 정착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삶과 일을 매칭해보자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강북구로 다 이사 왔어요. 약간 지역의 단체와도 개인 친분이 있기도 했고, 마을공동체 이런 약간의 기대도 갖고 처음 이사를 왔어요. 그렇지만 마을공동체는 그냥 마을공동체였던 거죠.

— 마을공동체 초창기 모델은 대부분 공동육아로 시작한 부모세대이고 청년들과는 어쩔 수 없는 갭이 있었어요. 환영했고 반겨줬고 좋아해줬지만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에는 어려웠던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2012-2014년도를 이사 오고 카페에서 만나서 회의하고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지역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요. 그러다가 맨날 가던 카페에 앉아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부동산을 다녔어요. 가진 것 털어서 공간에 들어갔어요. 마침 공간지원사업, 인테리어 사업이 나온 거예요. 이 공간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보자고 해서 40평 정도의 규모가 있는 공간을 구해서 사무실도 구성하고 짐을 넣을 수 있게 했어요. 크게 메인으로 거실도 빼고 부엌 공간도 만들었어요. 지원사업과 연결되어있는 문화예술교육도 있어서 진행도 하고 2년 정도 보내다가 사람들 파이도 커지기도 하고 각자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2016년에 공간을 한번 옮겼어요.

— 마을에 있는 카페의 가장 큰 공간을 빌려서 1년 정도 같이 살다가 그것도 또 답답해서 안되겠다 싶어서 2017년에 이제 제대로 된 공간을 한번, 큰 창고가 있는 공간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컸어요. 이번 공간은 10년 정도 비어있는 공간이고 복도에서 오른쪽 왼쪽 같은 평수의 공간인데 주인이 다른 묘한 공간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오래된 공간이었어요. 반은 완전히 커뮤니티 하는 공간으로 30평되는 규모로 큰 주방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반은 사무실과 넓은 창고가 준비된 공간으로 마련했어요. 그 무렵 10분 정도 되는 후원회원도 다 정리했어요. 열 분에게 그동안 너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만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저희 비용으로 공간 운영을 했어요. 간간히 지원금으로는 변화의 만들 계기들을 마련했고요. 지금도 비슷해요. 사무실 공간에서는 고양이 5마리와 상근직원과 엄청난 짐들 속에 있고요, 1/3을 주방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마을에서 음식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과 같이 공간에 들어온 상태였고 음식과 관련된 활동들을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과 밥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려고 해요. 실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네에서 나올 것 같지 않은 친구들과 한 번씩 밥 먹는 것인데 정말 좋아해요. 밥 먹는 행위 안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어떤 프로그램보다 자발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죠.

— 대부분 끝나가는 청년이고 넘어간 청년이기도 하지만 청년에 대한 이슈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또는 청년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워크숍,

교육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지역 안에서는 어쨌든 같이 하는 것들, 축제를 만든다던가 문화예술네트워크 활동들,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설문지에서 대단한 목적성같은 것들을 질문하는데 계속 고민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느 장르에 넣어야 할까, 어디에도 넣을 수 없는, 설명하기도 애매한 '이 작업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했어요.

— 동네형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스스로 변화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공간에서의 역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 오픈되어 있긴 하지만 잘 오지는 않아요. 대로변 2층에 있는데 간판도 없어요.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그다지 착하지 않아요. 어떤 공간에 가면 너무 따뜻한데 저희가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따뜻하게 맞아주지는 않지만 안의 구성원들이 해보고 싶은 공간이고요. 파티도 열고 길고양이에게 관심이 많다보니 매년 길고양이 파티, 냥냥파티를 열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요. 그날은 진짜 일일 주점의 느낌으로 잘 놉니다. 전시도 하고 파티도 하고 복합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서 공간을 변형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이 와서 뭘 하는 공간은 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 심층 그룹인터뷰 및 자유발언

마을극장수유리

— 얘기를 듣다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르신들이 극장에서 연극프로그램을 하는데 상냥하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민원전화가 왔어요. 순간 우리가 '상냥해야 해?'라는 고민이 오기 시작하면서 직원들과 같이 우리가 '왜 상냥해야해?'라는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늘어서 과도한 친절은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베풀지 않는 성향이었어요.

— 그 민원을 한 할머니에게 저희는 상냥할 이유가 없다, 저희는 복지기관이나 서비스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공식적인 문자로 보냈어요. 이분들이 화가 나서 연말 발표회를 하는데 약간 차질이 생겼어요. 무슨 용기인지 발표회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과도한 친절과 상냥함을 거부한다,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올렸어요. 저희 강사는 멘붕이 왔어요. 강사가 그동안의 과정을 브리핑하는 형태로 마무리했어요. 제 스스로 '다른 관점과 시각이 생겼구나' 깨달았고 안 해도 상관없고 만약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극단의 직원들도 친절함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지역에서 문화예술단체로서, '예술가로서 역할이 뭐지'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지역주민들은 프로그램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인지나 인식이 서비스로 생각하거나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요. '어르신들이니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명확하게 우리의 포지션을 얘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과정이 생기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 친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의 정당성을 가져야겠다는 고민, 너무 착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들, '동네형들이 너무 착해서 문제야, 착할 필요 없어' 늘 얘기했는데 체감을 잘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하기 시작하면서 정체성의 고민도 함께 하게 되었어요.

김지영

극단직원들과 얘기한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나온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어요?

마을극장수유리

— 저희 멤버들이 독특한 멤버인데요, 실제 예술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6명 중에 세 사람 밖에 없어요. 세 사람은 창작을 하고 세 사람은 행정과 기획인력입니다. 창작 중심의 예술가들만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하고 사업을 구성하는데 수월해요. 기획하는 친구들이 온전히 맡아서 해주고 있어요.

—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는 극명한 온도차이가 있어요. 창작을 하는 친구들은 엄청 불편해 해요. 이런 과정에 대해 우리가 지역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방식이어야 하냐는 고민을 합니다.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수용하겠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하면 일정 부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행정, 제정 관리하는 쪽에서는 득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등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전히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술가가 지역에서 가져야 할 스텐스는 뭔데, 서비스하고 제공해야 하는 역할이어야 하느냐 것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명확한 것은 장르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에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어요.

— 극단 타이틀을 떼자는 것에는 모두 동의를 했어요. 어떤 형태이고 정체성인지는 아직 모호하고 잘 모르겠지만 창작을 하는 집단은 아닌 것 같아요. 넓은 범주에서 우리 안의 누군가가 창작의지가 생겼을 때 공연을 만들 수는 있지만 창작이 꼭 해야 하는 숙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극단인데 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부담, 진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타이틀에서 오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걸 좀 과감하게 벗자는 얘기가 요즘 제일 많이 나누는 얘기입니다.

김지영

상근자가 많은데 주민에 의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공간을 활용해야하는 상황이고, 나무그늘은 협동조합으로 지역주민까지 포함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하고 달꽃창작소도 그렇고요. 동네형들도 그렇고요. 운영진들 외에도 참견인, 간섭인,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과의 운영체계, 협의구조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규칙, 원칙, 방향성을 논의하고 실제로 운영 방식이 작동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셔요.

달꽃창작소

— 저희는 운영구조가 전환시점입니다. 고유번호증으로 단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사단법인화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는 내부 인력들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김지영

— 의견이 잘 모아져서 달꽃창작소의 사업을 구성하는데 작용하고 있나요?

달꽃창작소

— 저희가 사업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자 명단을 정리해뒀는데. 사업대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합니다.

우리동네나무그늘

— 지금 메인 운영자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카페 매니저가 2명 있었고 주말에 조합원들이 운영해보자고 해서 주말 스텝으로 시작했어요. 다들 바쁜 일이 있으면 빠지고 제가 거길 메꾸기를 반복하다 보니 이제 네가 맡아서 하라고 했어요. 조합원들과 주민을 조직해서 같이 해야 하는데 그것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일 자체가 엄청난 것이었어요. 많은 노동이 들어가는 일이고요.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굴러갈 것이라는 그림은 있는데 하다가 흐지부지되고, 사람이 모였다 흩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드는 생각은 그런 시스템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누구나 할 수 있게 자주 오는 사람에게 열쇠를 주고 대신 스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개발하는 중입니다. 인력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다른 마을공동체를 하면서 카페를 봐주는 스텝도 한명 생겼어요. 조합원들에게 후원을 많이 받아야 해요. 처음에는 조합원 출자금만 내고 가입하면 되는데, 운영이 어려우니 회비 제도를 도입했는데 나무그늘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엄청난 필요와 가치를 느껴서 똘똘 뭉쳐 있는 집단이 아니니까 가입과 탈퇴도 자유롭습니다.

김지영

어떤 가치 때문에 공간에 회비도 내고 관심도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동력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나면 말씀해주셔요.

우리동네나무그늘

— 일단은 처음 5년 동안 막무가내로 시작했던 부딪히면서 한 성과들이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모이고, 어머님들 모임도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친구가 된 과정을 봤는데 활동을 돈 때문에 그만두는 것은 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없으면 아쉬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무대륙

— 매달 말이면 정신이 나가죠. 저희는 암튼 초창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알고 시작했고 정착하게 된 느낌인데요. 저희가 공익을 위해 개방한 공간이 협동조합이 아닌 상업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자립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지하공간의 수익이 없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공연장의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유지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너무 마이너스이니까 쌓이면 부담이 되더라고요. 1층 공간이 잘되면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 텐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는 1층에도 매장을 돌리기 위해 영업을 준비하는 매니저들이 3명이 있고, 주방 스텝과 주방장이 있고, 아르바이트도 있어요. 공연장은 비상근 엔지니어가 있어요. 상근할 여유가 안 되어서 건수로 계산을 합니다. 원래는 공연장 매니저도 따로 있었는데 좋은 공연과 전시를 해보려고 좋은 인력을 함께 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 인디 쪽은 아티스트가 기획과 디자인 홍보 다 해야 해요, 기획자가 따로 없어요. 티켓팅도 해야 해요. 예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술만 하는 환경을 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현실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아티스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무대륙에서 원하는 것과는 달라서 좋은 방향으로의 타협을 하는 것이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안 되어서 못하지만 여유가 된다면 해보고 싶긴 한데요.

— 밴드를 찾아서 공연을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쓰는 데 비해 결과물이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나중에는 하는 분들이 상설로 매달 마지막 주, 두 번째 주 공연을 진행했어요. 그분들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장르나 목적에 부합하는 밴드들을 모아서 매달 다른 라인업으로 공연을 했어요. 일단 처음 상주 공연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저희의 방향성과도 맞고 검증이 된 분들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대륙에 원하는 것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부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라인업을 만든 것들이 좋은 공연으로 나왔습니다. 매달 한번 공연을 7년 동안 기획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요. 쉬고 있는 분들도 언젠가는 기회가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많이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제안을 받고 저희와 맞으면 공연을 결정합니다.

— 전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자다보니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도 있고 흠집도 나고 해서 전시는 깊이 생각해서 하는 편입니다. 매주에 한번 매니저들과 행사가 무대륙과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그림에 대해서 견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1층은 대관료도 없어요. 딱 하나 보는 것은 무대륙에 걸렸을 때 좋을 것 같다, 사람이 쉬다 갈 것 같다, 좋은 자극이 될 것 같다는 것만 봐요. 전시는 1층 매니저들과 논의하고, 공연은 상설 공연 하는 분들과 공연 연출 아티스트이자 기획자들과 논의해서 진행합니다. 외부에서 벼룩시장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옥상에 텃밭도 했는데 잘 안되었어요. 무대륙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풍성하면 좋으니까 저희가 협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합니다.

— 공간을 이용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공간운영자가 항상 양보하기를 원하거든요. 저희가 늘 예스를 해야 하고 친절해야 하는 등요. 물론 저희는 1층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영업과 관계없는 행사들도 항상 양보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쌓이더라고요. 좋은 의도로 가능하면 양보를 하면서 하고 싶지만 너무 대놓고 양보를 원하면 나도 사람인지라 그런 면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하는 것 같아요.

마을극장수유리

— 저희는 명확한 것은 상근직원이 6명인데 제가 이름만 대표이고 각자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입니다. 이런 것이 운영구조라고 보는 것인데 프로젝트를 각자 책임지고 하는 것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은 논의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과정과 사업은 그 사람이 책임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스스로 주도하고 본인이 재미를 느끼지 않으면 정말 직원이

되어버리잖아요. 저희는 담당자가 주민과 소통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의 니즈가 있는 경우에만 소통해서 프로그램 기획하고 진행해요. 그 니즈가 있는 주민들이 사람들을 모았을 때 세팅을 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 기획자가 먼저 세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결정되고 나면 그 사람이 책임져요. 담당자의 성향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대신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운영구조인 것 같습니다.

무대륙 — 주민들이 와서 해보고 싶다고 할 때도 이런 원칙이 적용됩니까?

마을극장수유리 — 네 그렇습니다. 이런 원칙을 하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힘을 덜 들이면서 운영하고 싶은 욕구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 같아요. 지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이거구나 해서 선택했어요. 주민들이 북적이는 공간으로 2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의 의미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 기획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색깔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흥미와 재미를 느껴야 가는 것입니다.

— 커뮤니티 공간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극단진동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요구를 받고 인터뷰를 하거나 외부에 비쳐질 때 부담이 되었어요. 좋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늘 약간의 마음의 짐이었어요. 어떤 자리에 가서 얘기해야 할 때도 그렇고요. 솔직히 활성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는 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했어요. 이 부담을 벗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제일 커요. 부담을 내려놓는 방법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도 했고,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민지 — **공간의 유지비는 프로젝트를 돌리면서 수익금이 다 나오는 것인가요?**

마을극장수유리 — 네, 저희의 수익사업금은 공연 순회 프로젝트에서 나옵니다. 극단진동이 학교에 들어가서 청소년, 아동 공연을 하는데 이런 것이 저희의 수익입니다. 프로젝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반반입니다. 순회공연을 하는 수익금으로 공간 운영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프로젝트에서 인건비 설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쉐어하고 있어요. 저희는 보상이 명확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함께 하는 예술가들, 상근인력이 많든 적든 일정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 최대한 끌어내고 만들려고 애쓰고 있어요. 대표로서의 역할이 그런 원칙을 유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까 노력하고 있어요.

■ **추가질문**

김지영 — **자유롭게 지원사업, 정책의 불합리함 혹은 제안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동네형들 — 처음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내가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는 친구들과도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라고 말했던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이런 개인의 욕망이 더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때로는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접하는 20대 친구들은 자기가 26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런 것 처음봐요'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의 공간들이 지역에 존재해야 다양한 방식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색깔대로 살 수 있겠다' 생각해요.

— 공간 지원사업이 나왔을 때 3년 안에 자립하라고 해요. 어떻게 자립을 하죠? 공간에서 차를 팔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립을 하는 경우도 못 봤고요. 그런데 컨설팅 와서는 자립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죠. 임대료 지원이 되는 사업도 나왔는데 초반에는 임대료, 인건비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 지원사업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초창기에 우리가 잘하면 계속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한 것일 뿐이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지원사업과 관계부처와는. 그냥 룰인거죠. 오래오래 우리랑 하면 안 되는 것이었던 거죠. 오랫동안 비영리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 왜 비영리로 계속하면 안 되지, 왜 비영리로 공간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지만 우리도 영리사업자가 하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영리로 할 수 없는 일을 영리로는 할 수 있으니까요. 올해는 영리 쪽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영리사업자로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이 수의계약도 두 번 세 번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이런 한계가 계속됩니다. 동네형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 지역 안에서 일을 다 하지 않았어요. 지역 안에서의 일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사람들과의 관계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는 1/3은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곳에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역으로 돌리는 방법을 썼어요. 공간 유지비도 그렇게 나오고요. 계속 이렇게 되겠죠. 올해 이렇게 잘, 열심히 한 일들이 내년에는 또 파트너로 함께 갈 수 있을까, 3년이 지나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 고민이 지속되고 있어요. 8년째 하고 있는데 뭔가 지속되려면 오래 보고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사실 길어야 3년인데 그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는 묘한 지점이죠.

— 그것이 어떤 형태이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설문 문항도 너무 어렵고 한 단어로 묶어내기 어려운 것들로 분절되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네형들은 문화단체로 뭐하냐에 아무리 대답을 해도 잘 몰라요. 이 영역에 있어도 관계가 없으면 잘 모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연극하고 음악하고 카페하고 교육 공간 이렇게 분절해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이 잘 안됩니다. 저희만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하나의 것만으로 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절된 것이 사라졌으면, 더 폭넓은 형태로 얘기되면 좋겠어요.

마을극장수유리

—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 느끼는 것은 지역에서의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간을 갖고 있거나 활동을 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경우에 내 밥그릇을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불편한 상황을 예술가들 안에서 조장하는데 지원사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원을 받고 뭔가 해보고 싶어 하다가 기회가 박탈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생겼을 때 이 화살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보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요. 이것은 명확한 지원사업의 한계라고 봐요.

— 왜냐하면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고 그림이 보이는 팀에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혜택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구조인 것이죠. 이 한계를 극복하고 지원시스템이 '우리가 선택해서 너희들에게 줄게'라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숙제처럼 느껴지긴 했어요.

— 예를 들면 강북문화재단이 생겼어요. 협업을 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저나 동네형들처럼 지역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단체는 강북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이나 어떤 일을 갖고 올 수 없어요. 서로 경계해요. 이런 부분들이 지원사업의 한계라고 보는 거죠. 지역에서 함께 뭔가를 하기 위한 파트는 더 폭넓은 덩어리로 지원하는

구조여야 해요. 또 요즘은 지역과 창작을 묶으니까 오히려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 단체나 저 같은 예술가들은 희생과 뭔가 내놔야 하는 것들이 더 커지는 구조이고 저희의 역할이 이제 막 시작한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끌어내고 끌어주고 하는 등 '봉사자같은 성격들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된다' 싶어요. 지역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문화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원사업의 한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식이 있거나 고민이 있는 단체는 지원사업을 거부하고 자기들 색깔을 만들어가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지원 안 받는다고 하는 이 상황이요. 저는 그렇지 못해서 여전히 지원사업을 찾고 있지만 이런 고민을 현장의 소리로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명확히 얘기하면 공공이 하지 못한 역할을 민간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공공에서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민간이 공공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는 왜 인정하지 않고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일까, 왜 인지하지 못할까 고민입니다.

동네형들 — 지원의 형태가 다양해지면 해소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한 이들이 하는 것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의 영역과 그 사이의 영역들, 아주 촘촘하게 지원하게 되면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뭉뚱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민망해지는 것이죠.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을극장수유리 — 또 '진동'과 '동네형들'이 '그래, 새로 생긴 단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먹고 살기 겁나 힘들어요. 하루하루 문 닫을까봐 불안한데요.

동네형들 — 올해 지원사업 2개 하거든요. 그런데 지원사업 많이 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신기해요.

김지영 — 갑자기 저도 이야기할 내용이 생기는데요, 10년 된 단체이다 보니까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도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팀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거 같아요. 신진과 청년지원에서 50플러스로 가버려요. 이 중간시기에 있는 낀 세대들의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중간지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다른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지영 — **모든 지원사업이 자치구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치구로 가는 방향이 맞는데 통으로 자치구 문화재단, 자치구청으로 싹 내려가는 상황이어서 이런 정책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마을극장수유리 — 일단 자치구로 내려가면 저희는 못해요. 지역에서의 느낌이 있어요. 계속 발런티어여야 하거든요. 자치구로 내려간 사업을 진동이 가져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단도 욕먹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자치구는 아예 관심이 자치구로 내려가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해요.

동네형들 —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앙에서 하면 그래도 평균치라는게 있잖아요. 우선 자치구로 내려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점이냐고 하는 부분에서는 고민이 됩니다. 자치구마다 너무 다르고 편차가 심해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너무 슬퍼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준비가 되어서 지원사업을 받아서 자치구의 색깔로 펼쳐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그런 자치구가 몇이나 될까 고민입니다. 실제 그렇지 못할 것이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 많은데, 최소한 평균치라도 맞춰놓은 상황이 왔을 때 순차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강북구 주특기가 n분의 1이거든요.

예를 들어 3팀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10팀이 지원하면 8팀을 n분의 1을 해서 줘요. 결국 8팀 다 안 됩니다. 온전한 예산을 생각하고 계획을 짜서 지원한 것인데 적게 주고 애초의 계획한 결과물을 하라고 하면, 사업을 줄이지는 못하잖아요.

— 모든 지원사업이 그렇잖아요. 돈은 줄지만 사업은 그대로 하라는데 그냥 구멍이 숭숭 나는 거죠. 지역에 균형감들이 너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긴밀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자치구로 내려가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더 천천히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을극장수유리 — 문화재단이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재단과 민간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성급하다 시기상조이다 싶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심지어 공공공간이 위탁의 형태로 나왔을 때 공공의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의 민간인들은 '재단이 별 것 없으니까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해야지'라고 하는 등 빈번합니다. 이렇게 경쟁을 하는 구조에서는 재단의 위치가 애매하고 민간에서 이상한 분란을 만드는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경쟁의 구조가 협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재엔 촘촘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꽃창작소 — 용산은 또 케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예술단체도 많지 않고 지역 예술 재단도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도 보수적인 편이고 작은 단체 입장에서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구청과 함께해야 하는 공간위탁 등의 사업은 생겨나는데요, 그런 경우 단체가 먼저 주도해서 구청과 관계를 맺고 지역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동네형들 —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게 삶이잖아요. 그게 삶인데 재단은 그것이 일인 거예요. 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 **사회자 마무리**

김지영 —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연구공간운영자 6차 라운드테이블 녹취

일 시	2019년 11월 5일 14:00-16:00
장 소	문화디자인 자리
참석자	공간운영자 : 공간사일삼(김준수), 연희예술극장(신재철), 꿈꾸는다락방(김세희), 책방달리 봄(주승리), 카페마을(이연수) 연구진 : 김지영, 장혜령, 지휘석 서울문화재단 : 김민영, 한민지

■ **사회자 오프닝**

장혜령 — 우선 각 공간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공간소개**

책방달리봄 — 저는 관악구에서 페미니즘을 주제로 재미있는 주제를 담은 책들과 다양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달리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사일삼 — 문래동에서 2009년에 설립해서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고 작가들이 운영하는 아티스트 워크스페이스와 레지던시와 전시공간 병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연희예술극장 — 연희동에서 살롱형 복합문화공간을 극단에서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생긴지는 2년 밖에 되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면서 볼 수 있는 연극과 전시 공연, 촬영 아트워크를 위한 공간입니다.

카페마을 — 목2동에 자리한 카페마을은 2016년부터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마을 카페이긴 하지만 구성원들이 자신의 활동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열리는 공간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 **사회자 진행**

장혜령 — 시설에 대한 연구는 있어도 공간의 연구는 없었는데, 이번 연구는 공간과 참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처음 공간이 생긴 과정과 초기의 철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심층 그룹인터뷰 및 자유발언

카페마을

— 저희 공간은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이 특이해요. 문화예술단체인 플러스마이너스1도씨가 목2동에서 활동하면서 숙영원이라는 카페를 운영했어요. 숙영원이 중심이 되어 목2동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었고, 마을공동체도 형성이 되었어요. 2016년에 플마의 사업에 있어서 공간을 접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이 공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끊어지고 목2동 전체로 이어진 문화예술의 흐름이 이뤄졌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이니까 기존의 마을 활동하던 사람들과 숙영원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적으로 살리는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 협동조합으로 운영하자고 10명의 구성원이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 조합원의 성격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던 사람도 있고 목2동의 학부모도 있는 다양한 구성이었어요. 다양한 욕구들이 반영된 것이죠. 운영의 원칙은 개인이 각자 하고 싶은 것을 공간에서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림책 기획을 했기에 그림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길 건너의 도자기 공방을 하고 있는 선생님은 마을 작업자들과 연계해서 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의 움직임으로 모이기보다 개별적인 필요, 자기의 활동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 그런데 공간이 카페이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어오려다가 안에서 이런저런 작업이 계속되니까 선뜻 문을 열기 힘든,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애매모호 하기도 한 상황 속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공간을 지속하려면 프로그램의 운영만으로는 힘드니까요.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여러 활동하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생각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 공간을 저희가 3년 정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적이냐, 공적이냐, 공공성을 띠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선언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10명의 좁은 틀의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니까 '굉장히 사적이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2년 전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문을 닫을 상황이 되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버텨 달라고 문자를 주고 그랬어요. 공간이 공적인가, 사적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같이 한 사람들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힘을 받아서 계속 나아가는 중입니다.

꿈꾸는다락방

— 처음에는 이 공간을 만들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특성이 있다면 청소년들이 만나는 일을 하는데요, 청소년을 만나다 보니 그 친구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활동하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나도 더불어 내 지인들과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공간을 만든 지는 10여 년이 되었는데, 서울시 마을공동체 초기 사업 중에서 청소년 휴카페가 있었어요. 휴카페 지원을 받으면서 정체성이 조금씩 만들어진 것 같아요.

— 청소년 중에도 특정 대상들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 대상이고 특별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도 있고요. 그런 구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뭘 하기보다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 한 가지로만 운영하기에는 힘이 들어서 지원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 휴카페를 진행했는데 3년 일몰 사업이었어요. 휴카페를 통해서 지역적 동지들을 만난 것이 좋았어요. 서울시의 청소년 아지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휴카페 지원사업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일몰제 사업으로 자립형을 추구했어요. 청소년 사업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당시 모든 마을 만들기 기준에 자립형이 있었고, 그것은 서울시의 성과 중심의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제대로 된 평가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정책 사업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쉽지요.

— 그 다음에는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으로 넘어와서 같이 하고 있어요. 마술소 사업은 공간을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은 지원이라기보다 최소한의 도서구입비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생존을 위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긴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굳이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저희 기관을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다양하게 하루에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활동이 이어지는 공간이니까 의미가 있어요. 이런 질문이 어려워요. 답이나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만들게 된 계기도 한 가지가 아니니까요.

— 마술소 사업을 받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받고 보니까 이미 마술소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도서관 사업을 받아보니 이미 작은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안학교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다만 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않은 것이죠. 문화예술활동이 많아서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부합되어서 선정된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장혜령 — 대안학교, 탈학교의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겠네요?

꿈꾸는다락방 — 네, 대안학교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 작은도서관도 잘 어울려요. 축제를 많이 기획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활동과도 잘 맞아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하는 주업은 공간 컨설팅, 사단법인, 청년 협동조합을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공간에서 조금씩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한 가지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니까 이런 색깔은 이런 방향으로 저런 색깔은 저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중간에 원탁이 있어서 필요할 때 뭉치고요. 마을에 축제가 있으면 마을의 여러 단체와 모임들이 모이고요. 알게 모르게 네트워크 했던 단체들이 모여서 운영이 됩니다.

김지영 — 공간을 처음에 오픈할 때 선생님이 주로 시작했어요?

꿈꾸는다락방 — 처음은 혼자 시작했다는 것이 맞겠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공간을 만드는 분들이 만나면 여러 사람이 만드는 과정을 보면 끝이 별로인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중심의 한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도와서 시작하는 것이 더 명확하죠.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인지, 도와주는 것인지 구분이 명확한 것이 중요해요. 같이 하자고 해놓고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혼자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연합하는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은 틀린 것이 아니라 저와 안 맞아요. 공간을 오고 가던 청소년들이 자라서 청년 협동조합을 구성했는데, 그것은 그 친구들이 알아서 운영합니다. 사업을 하고 싶거나 공간을 조성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연희예술극장 — 저희는 극단이방인이라고 대학 졸업하고 연극 컨텐츠를 개발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프로듀서 전공, 연출 전공, 배우 전공한 친구 셋이 모여서 연극 제작사를 시작했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극단 컨텐츠에 돈을 쓰고, 수입은 입시교육에서 뽑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사교육에 대한 회의론이 생겨서 저희가 갑작스럽게 그만뒀어요. 그때 함께한 친구들과 모여서 공연 컨텐츠 개발 때문에 유럽/프랑스의 배우들과 미팅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살롱형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다 그만두고 이걸 하자고 했고, 대학로도 우리랑 안 맞는다, 연희동으로 가자고 해서 홍대로 넘어왔어요. 각자 투자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 처음부터 좋은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시작한 공간입니다. 유럽에서 만난 살롱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먹고 마시면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런던의 공간은 극장 자체가 술판을 벌이니까 뮤지컬이 재미있지 않기가 어려워요. 한국은 심각하게 들어가서 심각하게 보고 심각하게 나와야 하니까 관객이 즐기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지 않나 싶어요. 저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희동 아트페어라는

전시지원사업도 최대한 음료도 먹고 음료를 마신 금액의 10%를 작가에게 후원하는 것으로 조금 즐길 수 있게 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이런 문화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살롱문화이죠. 분장실에서 술 마시고요. 사고도 크게 없어서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장혜령 — 우리나라에서는 카바레는 음성적인 문화인데 원래는 무대예술이 태동이 된 것이거든요. 이름 자체도 반가웠어요. 떼아뜨르 카페, 명동의 떼아뜨르처럼요.

연희예술극장 — 떼아뜨르 문화가 재미있어서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여서 올해 공간의 개념이 비영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리적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만나는 결도 아니고요, 아트에서는 딥하거든요. 정식으로 돈을 내고 대관을 하는 분들은 그분들의 자유이니까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자체 기획의 경우는 인지도도 있고 퀄리티가 있는 아티스트를 섭외, 공동기획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김민영 — 극단이름도 있고,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름은 굉장히 클래식해서요. 연희예술극장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나요?

연희예술극장 — 멋이 없는 이름지요? 아트스페이스, 스튜디오, 랩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미 저희 건물 7-8층에 멋진 스튜디오가 있었고 건물 계약조건에 이 건물에 더 이상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더 로컬 느낌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희라는 이름이 예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희 이름을 따서 연희예술극장이라고 지었어요. 예술공간이라고 할까 극장이라고 할까 하다가 태생이 연극을 한 사람들인데 극장이라고 하자라고.

공간사일삼 — 저희 공간은 미술작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 저와 동료작가들이 작업을 하는 작업실이자 전시 공간, 두 가지 성격이 섞여있는 공간입니다. 2009년에 시작했는데 대학에서 나와서 미술씬에서는 무엇인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거품이 일어나는 시기였어요. 서울역사에서 아트페어가 열리고 '한 집에 한 그림' 슬로건이 나오고요. 대학원, 대학생들의 작품을 구입하고요. 금융시장의 위기가 오기 직전이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열심히 재미있게 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융시장 위기가 오고 미술시장이 확 쪼그라들고 당시의 1, 1.5세대 대안공간들이 점차 문을 닫고 대안공간의 성격이 제도로 들어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도권의 미술과 대안공간들의 작업이 거의 분간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20-30대 작가들이 뭔가 좋은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들어갈 곳이 더 이상 없거나 문턱이 너무 높거나 구멍이 너무 작은 상태였죠. 미술씬이 되게 좁고 운신의 폭이 좁고 대학 출신성분으로 씬이 구성되고 활동해나가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책이나 정체성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작가들이 유행의 흐름을 만들고 전시를 해야 하는 상황, 시장, 제도, 독립적인 공간마저 경직된 상황 등 복합적인 상황이 얽혀 있었어요.

—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작업실은 구해야 하는데 시장은 작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실제로는 작업실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작업실을 구하다 보니 프랑스에서 스쿼팅이라는 운동이 성행했고 우리나라의 스쿼팅 활동을 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이 문래동에 있었어요. 도시연구도 하고 빈 공장에 들어가서 작업도 했어요. 도시사회연구소라는 팀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문래동이 그런 곳인가 해서 찾아갔어요. 서울에 이런 낡고 외딴섬처럼 소리를 지르고 뚱땅 만드는 소리를 내도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월세도 저렴해서 40평 복층 공간의 공장을 친구 3-4명과 작업실로 얻었어요.

— 그때는 공간의 성격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작업실 공간이 넓다 보니까 전시·발표를 할 기회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이 곳에서 전시를 해야 한다는 선택지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젊은 친구들은 작업실에서 작품을 보여주는 일들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한두 번의 전시를 하고 전시를 본 다른 작가들이 여기서 전시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공간의 성격이 조금씩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복합문화공간이나 아트스페이스나 대안공간을 수사하는 말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가장 와 닿았던 말은 콜렉티브라는 말이었어요.
프로젝트413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작업도 하고 전시도 하는 공간적인 성향으로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에 함께 있던 작가들이 개인적인 일을 하느라, 혹은 해외로 나가거나, 미술을 포기하는 등 저 혼자 남게 되었고 남는 공간에 다른 작가들의 레지던시를 진행했습니다.
아티스트런스페이스사일삼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 전시와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진행하다가 미술씬이 어떻게 굴러가는 지를 자세히 보게 되었고 생각해보니 처음에 얘기한 문제들이 결국 작가들의 작업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도, 지원금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술씬의 문제,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를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가 조금 더 독립적,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어떻게 더 생산적이고 힘 있는 작업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4-2015년에 공간의 시스템을 정리 개편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사용 매뉴얼을 만들어서 오픈소스 형태로 만들었어요. 누구나 전시를 열고 싶은 사람들은 제안을 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었고, 독립적 시스템에서 제도나 지원과는 별개로 독립적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을 벌려본다는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 2015년에 신생공간들이 막 나오고 같이 아트페어도 만들어보고 미술인 생산자 모임, 생산자와 고민하는 독립적인 생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아티스트피, 기획피 문제들을 얘기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생태계, 씬의 분위기를 제도와 떨어져서 만드는 것을 해야겠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 공간사일삼이 생산자의 입장에서 뭔가를 하는 공간이라면, 한 편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나 작가들의 수익, 예술의 파급력이 따라오기 때문에 별도로 1년에 한번 아트페어 성격의 팩이라는 행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공간과 관계를 맺는 작가들과 조금씩 연결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것, 확장적인 것 두 가지 방향을 놓고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혜령

— 문래는 많은 대안공간들이 존재하는데 처음에 비해 월세가 많이 올랐나요?

공간사일삼

— 저희는 문래동4가 큰 공장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고 임대료가 오르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공간 건물주를 만나서 제 그림을 선물했어요. 재계약을 할 때도 그동안 작업한 소품을 갖고 가서 걸어드리고 활동한 리플렛도 드렸어요. 알고 보니 건물주 자녀가 미술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더 와 닿았는지 월세를 올리지 않고, 보증금 없이 재계약을 10년 했고요. 앞으로의 기간도 또 재계약을 했어요. 문래동의 다른 공간은 월세가 많이 올라서 문 닫은 곳들이 많죠.

— 처음 문래동에 제가 왔을 때는 이렇다할 전시공간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공동체 성격으로 차와 공간을 쉐어하는 식의 비주류적인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공간이 많이 생겨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지역 문화사업이었어요. 공간을 중심으로 연결해서 문래예술공장이나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거점으로 지역사업을 합니다. 카페와 식당이 마구 들어왔고 월세가 올라가서 역으로 과정을 시도했던 공간들이 문을 닫았어요.

책방달리봄

— 저희는 이제 3년 좀 더 되었고요, 책방을 만들게 된 이유는 허스토리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여성의 자서전만 만드냐고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책방을 열면서 여성에 대한 기록을 살려서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니까 좀 모호했는데, 여성과 기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결국은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작업이 페미니즘 운동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 정체성을 갖고 책방달리봄을 열었어요.

— 2년이 지나면서 처음 공간 열 때는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줄 것이라는 생각, 책을 많이 사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페미니즘 붐이 일어났고 도서가 책방 쪽으로 많이 나오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동료들을 찾고 싶은 생각도 컸습니다. 출판사 일을 하면서 고립되어있다고 많이 느꼈고,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주변에 만나는 좋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힘든 사람도 많았어요. 저희의 생각이 공격받는 지점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면 어떨까가 큰 목적이었고 당연히 수익도 목적이었어요.

— 2년이 지난 후 느끼고 있는 점은 우선 많은 동료를 만났어요. 명확한 정체성을 띠고 서점을 했을 때 공격하러 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약간의 두려움과 아예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들었는데, 다행히 좋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같이 일을 많이 했어요. 둘이서 운영하는 공간인데 저희가 기획하고 행사를 열고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강연자, 작가, 학자들, 활동가들이 찾아와서 이런 일들을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어요. 덕분에 다양한 워크숍, 강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 공간이 저희만의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장혜령

—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서 공간의 성격도 생기고, 커뮤니티도 같이 오게 되었군요.

책방달리봄

— 관악구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는데 집과 가깝고 보증금과 월세가 싼 지역이었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긴 지역과 반대쪽에 있어요. 관악구는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지속해서 활동하던 곳이었어요. 다른 시민단체 여성 리더와 단체의 활동가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지역에서 여성 이슈를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되고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원래 생각하지 않던 부분들이 운동이나 활동으로 생겼어요.

— 책은 관악구, 서울대 근처에 책방들이 많이 생겨서 책방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각자 테마가 있는 곳들이라 서로가 모여서 얘기도 하고 연합 행사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만 있어서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관악구의 다른 공간들과 연결하고 운영자들과도 연결하고, 다양한 단체들과 연결이 다른 연결로 이어지고, 서울시의 다양한 분들과 연결되는 지점이 생겨서 이렇게 꾸리고 있는 것 같아요.

■ 심층 그룹인터뷰

장혜령

**한 바퀴 돌면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얘기에 조금 참견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서 콘텐츠를 구성할 때 어떤 분들과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꿈꾸는다락방

— 저희의 제일 강점은요, 뭘 만드는 것을 잘하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어요. 다른 사람들이 1년짜리 프로젝트 하는 것을 보면 신기해요. 애들이 3개월 하다가 접고 그러거든요. 공간은 오래됐지만 식당 운영을 하다가 3개월 만에 접었어요.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과 안 맞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획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은평대학이 있어요. 하고 싶은 강의를 할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수강생이 모이지 않으면 폐강을 하는데 폐강에

대해서 하나도 부담이 없어요. 여는 것도 자유롭게 닫는 것도 자유로워요. 사람들의 욕구가 없는 것이 강의를 열거나 기획을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욕구를 잘못 파악하거나 상황이 잘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특징은 뭘 기획했다가 아니면 바로 접고 뭘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성향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닮아가는 것 같아 조금 부담입니다.

—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배운 다음에 뭘 한다는 것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경험이 가장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실패를 하게 만들어요. 나이가 들면 실패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쉽게 이뤄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든 만들어봅니다. 하나가 망가지면 또 다른 것 하면 되니까요. 열심히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곳이 있어서 된 것이죠. 반면에 정말 못했는데 붙는 공모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운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관이 어떻게 될지,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 해외에 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해보고 벌려보고 아니다 싶으면 접고 그것에 대해서 유연합니다.

장혜령 — 논의 구조가 있나요? 반상회처럼요.

꿈꾸는다락방 — 청소년들이 기획하는 단위가 있고 여러 다른 그룹들이 있어요. 은평대학은 교사협의회가 있고요, 운영주체는 우리와 연결하는 그룹은 최소한의 선만 그어놓고 있어요. 그 외에는 자유로워요. 청소년들이 결정할 부분과 운영진이 결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해마다 다르고요. 수익을 내는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의사결정하고 수익 배분도 나눕니다. 자유롭게 만듭니다.

카페마을 — 단위에서 하는 사업들과 회의를 하지는 않나요?

꿈꾸는다락방 — 필요할 때는요.

장혜령 — 대표님이 중간에서 조율해주나요?

꿈꾸는다락방 — 저희 공간에서만 이뤄지는 것만이 아니라, 은평대학은 1/3만 저희 공간에서 이뤄지고 나머지는 지역 공간에서 진행합니다. 프로젝트별로 다르고요, 대표라는 직책의 중심점은 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내려놓은 상태이죠.

— 인건비 지원이 중요해요. 지금 지원받는 사람이 5명입니다. 장기적으로 조금씩 넓혀 왔어요. 월세를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 만드는 것, 세 번째가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이쪽 일들이 풍요로울 수는 없겠죠.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 판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공간이 있어서 만나져야 이뤄지는 것들이죠. 프로젝트는 없어져도 공간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힘들다 해도 운영하는 곳은 파워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연희예술극장 — 저희는 배우까지 인원이 좀 있다가 공간 운영에 집중하다 보니 배우들이 극단을 그만뒀어요. 안 좋게 헤어진 것은 아니고 각자 배우 활동을 해야 하니까 떠나고 스텝만 남은 컴퍼니가 되었어요. 공간 운영에 집중하면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이 없으면 자체 기획이 안 되는 거죠.

장혜령 — 자체기획이 공공적인 컨텐츠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고 지역 안에서 네트워크도 만들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 지역과 연극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공공적인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의도가 있는 것도 같고.

연희예술극장 — 운이 좋게도 연희동에 아티스트가 너무 많아 살아서 만나게 되었고, 이런 살롱 문화가 익숙한 분들이 많아서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요. 그런 분들과 자체 기획을 위해 연극을 만들면 홍대 패션디자인과와 관련 있는 분이 홍대 학생들을 콜라보를 시켜주세요. 컨텐츠만 개발하면 예산이 엄청 들어요. 근처 뮤지션과 지역주민이 많이 가는 고기집에 가면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신연출, 이렇게 저를 부르면서 만나서 저희 극장가서 또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올해에 우리 기획 공연 2개 잡자라고 해요. 디자이너, 작가들과의 협업은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만들지는 세분화하기 힘들어요. 각자 일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 또 하나의 커뮤니티는 대관사업으로 생기는 관계입니다. 대관하는 아티스트들에게 공연이나 전시를 하고 그냥 끝내지 말고 커뮤니티를 만들어보라고 권해요. 연극이 제일 심하게 커뮤니티 형성이 잘 안돼요. 서로 살롱 문화의 경험을 축척하려고 노력했어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교류가 없는 상태의 무대, 공연예술을 일회성으로 끝낼 생각인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 부정적입니다. 생때를 부려서라도 애프터 파티나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저희 공간에서 뮤지션이 공연하면 저희에게 컨설팅을 맡겨요. 수익구조가 나겠죠? 엔터테인먼트랑 단기 계약을 맺는 거죠. 대신 조건으로 공간 운영을 하니까 MOU를 만들었어요. 연희동이어서 그게 가능했고 좋았어요.

— 살롱문화의 경험을 넓혀가기 위한 노력은 공연이나 행사 후에 관객들도 관객으로만 끝나지 않고 친구가 될 수 있게 했어요. 이런 게 보이지 않는 홍보 효과인 것 같아요. 관객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모나미 볼펜 기획자여서 물품 같은 것과 콜라보가 되는 거예요. 공연 팀은 반응이 두 가지인데, 어르신들은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분들은 같이 협업하게 됩니다. 살롱 문화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계속 연결이 되어요. 2년이 되니까 이제 조금 틀이 잡혀요.

장혜령

— 예술가 맘은 예술가가 알아서 그 연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 못하는 것을 같이 해서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작품도 어떤 것들은 작업한 사람들이 사주는 경우가 많고, 연극도 연극 하는 사람들이 보고요.

공간사일삼

— 날 때부터 예술가가 아니기에 예술가로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통 저희 같은 공간에서 작품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씬에서 성공을 거머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색깔을 확고하게 만들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작업, 독창적이고, 개별성이 뛰어난 작품은 그런 자기의 언어를 확고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공간, 사회적인 울타리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비좁다고 생각해요. 대학에서 나오면 바로 나를 증명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픽업되지 못하면 탈락이 됩니다. 픽업하는 단위들이 촘촘하지 못하고요. 씬의 구조를 저는 링크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단계와 단위 사이의 링크가 깨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에서 선생님들과 인연이 있고 작업을 조금 알고 있으면 갑자기 미술관이라는 링크를 타죠. 그런 것이 재밌죠.

— 아까 선생님의 잘 실패하자는 말이 와 닿았어요. 공간 사일삼의 홈페이지에도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거든요. 공간을 유지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면 예술가들에게 빨리 무엇인가를 증명하라, 사업가들에게 너희 사업의 비전을 빨리 보여달라는 그런 시장 논리에서 유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공간 운영에서 최소한의 재미이지 않나 싶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그렇다면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작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야 하고 그것이 일종의 어떤 생태계와 문화를 만드는 제스쳐라는 것을 자각해야해요. 특히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태계의 단위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태계에 포함되어있는 플레이어에게 분위기를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들이 새로운 것들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힘든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저는 희망이 없는 구조가 가장 힘들어요. 희망이 없는 구조가 근 10년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젊은 예술가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의 작업을 자유롭게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까'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 그래서 저희 공간에서 예술가들이 작업을 할 때 작가들의 새로운 시도가 어떤 장르의 분위기를 만들고 싶고, 분위기가 개인의 디렉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시스템에서부터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기획을 하는 방향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 좋은 시스템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플레이어가 갈 수 있는 경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위계로 느껴요. 작가가 전시를 이 갤러리에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할 때에 갤러리의 시스템이 작가를 수용하는 구조를 밝혀놓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엄청난 벽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공간의 시스템을 오픈해둬야 하는 필요성인 것 같아요.

장혜령 **굉장히 기분 좋게 이상한 것이죠. 콜렉티브와 링크가 얼마나 큰 차이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술 영역 안에서 어떤 것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레지던시 작가들도 같이 움직이나요?**

공간사일삼 — 레지던시 작가들은 완전히 자율적인 선택지에 놓여 있는데 그들이 뭘 제공 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놨고 그것을 지킵니다. 레지던시에 들어오면 유료이고요, 사용료는 공간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어요. 공간의 운영자가 될 수 있고, 기획자도 될 수 있고 그냥 작업실만 쓰는 작가일 수 있어요. 협의한 상태로 지켜봅니다. 입주 기간도 자신이 있고 싶은 만큼 있는데 연초에 협의해서 먼저 사용 기간을 밝혀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 하고 싶은 것들을 맘껏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규모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만화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코믹스에 가서 그림을 내놓고 사람들이 몇천 원에 사가는 것을 봤어요. 씨앗 같은 문화, 팬덤을 만드는 아마추어 장르가 있어야 하고, 아마추어에서 조금 더 나아가 커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혜령 — 소비를 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공짜로 생긴 표로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내고 보는 것 이런 것이 더 어린 시절부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간사일삼 — 보통 지원사업에서 성과 지표를 매길 때 관객 수를 따져요. 관객의 수를 세고는 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팩을 기획할 때도 관객 수와 작품 판매 수를 따집니다. 그런데 기관과 정부지원에서의 지원으로 만드는 사업은 진짜 사고 파는 것을 만들기 보다는 가능성 있는 걸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유보의 시간이고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자산이기 때문에 지원 하는 것이죠.

— 이런 가치와 레퍼런스가 생겨서 지원제도가 성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작품을 생산했으면 합니다.

장혜령 **현장의 속도는 다른데 세상은 기다리고 인정하기가 갑갑한 모양입니다. 이 속도를 뭐라고 할지 정의를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김지영 **공간사일삼에서 자유로운 시스템에서 아티스트로 오신 분들이 규칙과 원칙을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티스트들은 공간의 지향, 가치들을 동감하고 있나요? 아티스트들도 그런 영향에 의해 다른 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간사일삼

— 바로미터처럼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공간의 성격으로 아티스트가 영향을 받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 협동조합을 할 때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간의 정체성을 만든다고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셨고,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에 굉장히 공감해요. 말뿐인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간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을 딱딱하게 앞에서 말하고 작가들이 전달받으면 생산적이거나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서 아이덴티티나 공간의 가치보다 새로운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 놓은 것입니다. 선언하거나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하면서 툭 튀어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는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김지영

— 이 과정을 어떻게 정책이 인식하게 할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과제이다 보니 이 의미를 찾는 것 같습니다.

장혜령

— 그런데 또 이런 정책에서 일반화되면 다른 형태, 다른 곳에 링크하면서 변화하실 것 같은데요.

공간사일삼

—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책이나 지원제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따라와서 만들어지면 너무 좋고 제도에 무조건 반대편에서 공격하는 대결구도가 아니라 열어주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풍경이 계속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장혜령

작은 도서관, 책방, 독립출판사가 지역에서 특성 있게 자기 역할을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책방달리봄

— 독립출판은 출판계에서 다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요. 전문적인 예술가, 작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작업물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기성 출판사를 통해서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내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내가 쓴 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하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독립서점들이 발굴과 홍보도 하고 오히려 제안을 던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 책이 일반 서점에서 본 것들과 너무 다르니까 재미있어요. 이 분들과 뭔가를 해보자는 제안들이 계속 생겨요. 독립 출판의 페어에 나가보면 그 책의 다양성이 너무 신기해서 '이런 책이 있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감탄을 하는데, 이런 책들이 결국 지역으로 와서 독립서점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저희 책방도 이런 현상들의 그라운드에서 문화를 만들고 있고 테마와 어울리는 책들, 행사를 많이 하게 되어요.

— 그래서 처음에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독립서점의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살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하나는 저희의 책방이 다른 점은 주제가 있으니까 그 주제를 다루는 연구자들이 많이 옵니다. 요청을 하거나 외부행사를 통해 연결되어서 오기도 하고요. 공모 사업이나 대관을 통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달랐던 부분은 분야의 연구자들이 강연을 많이 하지만 페이가 너무 낮아요. 페이의 기준이 서울시 기준부터도 너무 낮고, 다른 단체나 공간에서 할 때도 참여비를 높게 받을 수 없으니 적은 비용을 드리게 돼서 이런 일들을 연구자분들과 계속하기 미안한 부분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을 바꿀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강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 공간 운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람들이 안전한 공간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도 되는 공간이고, 모임이었으면 하는 바람. 저희 공간을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공간에 와서 어떤 행사와 모임에 참여했는데 누군가에게 불편한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개개인의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장혜령 — 페미니즘 테마여서 그럴까요?

책방달리봄 —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모임과 행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런 안전한 공간과 모임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든 생각은 탄탄한 수익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안전한 모임을 운영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독서에서 트레바리라는 큰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면 내가 왜 여기 와서도 불편한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지라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또 불편한 얘기를 듣는 이런 문화를 없애고 안전한 모임과 행사를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사업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 찾아오는 사람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기획으로 닿는 것 같습니다.

장혜령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반을 차지한 여성이 이런 상황인데 다른 소수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그럴까요.**

연희예술극장 — 말씀하신 지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바이섹슈얼, 성소수자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의 결혼식을 저희 공간에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식 결혼식을 할 수가 없고 웨딩홀은 꺼려하거든요. 대신 조건은 사진 촬영은 허가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다. 사진이 직장생활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저희가 다 막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커뮤니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커뮤니티에 따라서 성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있고, 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거의 안 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프라이빗하고 화끈하게 기획합니다. 엄청 재미있어요.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카페마을 — 저희는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아요. 보통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저희는 활동을 하다가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공간의 일이 대부분 그런 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목2동은 공방이 많은데 가죽, 뜨개, 목공방, 도예 등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느슨하게 5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밥 먹고, 어쩌다가 한 번씩 모이는 느슨한 모임을 계속하다가 정말 이번 가을에는 마켓을 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마켓을 열자'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계를 맺고 있다가 결과가 마켓이 된 것이죠. 과정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만 해도 2016년 카페마을 협동조합에 참여했는데 그림책을 매개로 공간에서 활동하고 싶어서 가입을 했어요. 계속 아이들, 부모님과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림책이 프로그램으로 소비되는 것보다 책 자체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방의 형태도 띠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체들이 책방으로 변화했습니다.

— 저희는 각각 구성원들이 자기 활동을 하다가 기획으로 전환하는 케이스입니다. 저도 그래서 올해 9월부터는 양천구 지역의 작은 책방들과 연합해서 책시장을 열고, 공방의 선생님들은 아트마켓을 열고요. 저희 공간은 정말 좁은데 한쪽에서는 느긋한 시장이라는 아트마켓이, 다른 쪽에서는 테이블 몇 개를 붙여 책팜이라는 책시장이 같이 열려요.

—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무엇이 필요할까의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왜 중요한가 생각하면 이것이 지속할 힘이거든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형태가 바뀌면서 만드는 것이죠. 형태를 짜놓은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면서 만드는 것이 기획이 되는 것의 특성이고, 구성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 공간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이 사람이 활동을 할 때는 이런 색깔로 보였다가, 책방 프로그램을 할 때는 애들이 바글바글해서 '여기는 뭐하는 곳인가'라고 다양한 형태로 보여요. 각각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공간을 바꿔가면서 활용합니다.

장혜령 — 생산자 조합이네요.

카페마을 — 문화예술기획자도 있고, 창작자도 있고. 카페를 운영해야 하니까 자원활동으로 돌아가며 공간을 지키면서 자신의 활동을 그곳에서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여러 지원사업을 하고 마을예술창작소 지원도 4년 받았는데, 카페마을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나서는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은 힘들지만 자유로움은 있어요.

— 협동조합은 사실 많이 어려워요. 형태는 협동조합이긴 한데 협동조합이고자 하지는 않아요. 협동조합은 시스템의 제한이 너무 많아서 꼴은 취하고 있지만 돌아가는 구조는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협동조합이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공간의 운영이 카페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서 힘들어요. 공간 지키는 선생님들이 무료로 자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월세와 운영비 이상은 남지 않아요.

장혜령 — 오전 테이블에서 자생과 자립을 얘기하면서 대부분, 1인 또는 부부가 운영하는데 정당하게 누군가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부담이 있어서 공짜로 하면 나중에 꼭 탈이 나서 무료로 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공공성이 꼭 모든 것을 개방해야만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이드잡, 우리는 모두 N잡러라고 하잖아요. 나를 갈아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이드 잡을 하면서 기획을 하는데, 영리사업이라고 해서 마켓해서 이윤이 남던가요?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던가요? 라고 하셨어요. 영리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수익사업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생의 방식을 고민할 때 대부분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공공의 지원이 한번도 풍족한 적은 없었지만 수혈 조치가 되었는지 공공지원의 한계의 에피소드를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간사일삼 — 2017년에 처음 지원을 받았어요. 8년 정도를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을 했죠. 일단은 작업실이니까 작업실을 사용하는 사람은 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이었어요. 대관을 했을 때 우리가 제공할 서비스가 너무 없어서 대관사업은 하지 않아요. 제가 큐레이터도 아니고 컬렉터와 연결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비평가여서 작가들의 컨텐츠를 발굴해주기에도 전문가 만큼은 아니고요. 저희는 입장료를 받고 티켓을 발행하는데 하나의 전시에서 평균 50-60만원의 수익이 생겨요. 그 돈은 다음 작가에게 줘서 전시를 위한 인쇄물 홍보물 만들 수 있게 쓰고, 또 다음 작가에게 토스되는 형식입니다. 공간사용 매뉴얼에 들어가 있어서 전시 공간의 비용은 그렇게 돼요.

— 공간은 레지던시 하는 사람들의 돈으로 운영하고요. 우리의 조건을 놓고 주판을 튕깁니다. 이런 독립적인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받으면 다른 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2015년 전시공간들이 생겼는데 2년 만에 문을 다 닫았어요. 공간들이 스스로 어떤 규모로 어떤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재미있는 것을 할 수 있는지 자기만의 독립적인 모델을 세워야 하는데 '일단 시작하고 지원금 받으면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저희가 2017년 지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독립적인 시스템이 있고 여기다가 지원금을 받으면 뭐해야 하는가를 고민할 때부터 방향성, 기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작은 공간은 연간의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활동을 하면서 기획을 하는 것은 대부분은 공간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필요성을 느껴야 뭔가 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어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아요. 굴리지 않은 바퀴에 방향을 정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 우리는 굴러가야 하고 방향이 잡히면 그쪽으로 가보자는 건데 언덕에 바퀴를 세워놓고 어떤 방향으로 갈래 이렇게 물으면 힘들었어요. 이런 지원사업의 싸이클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 할 수 없는 것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팩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수수료를 지급 못하는 규정이 있어요. 1년 동안 행사를 열심히 만들어서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는데 돌아오는 보상이 없어요.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하고 나면 2-3천 만원의 작품 판매 수익이 생겨요. 수익의 30%를 떼면 저희가 일한 성과가 남고 또 내년 사업을 준비할 힘이 생기는데 그것을 하면 안돼요. 일종의 시장을 열어봐라, 없는 시장을 만들어보라고 지원을 해주고 시장을 진짜 만들려고 하면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은 돈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을 판매하고 돌아오는 힘을 받고 굴러가는 것인데.

— 제도에서는 굴려보라고 해놓고 그 앞에 벽을 세워놓죠. 전체적인 상황과 순환을 보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제도를 짜지 않을 텐데, 힘든 구조입니다. 비영리를 증명해야 해요. 저희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는 일도 어려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공간이 다 문을 닫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 독립적인 프로젝트도 갈수록 정형화되고요. 예를 들면 기존의 아트페어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아트페어의 니즈가 생겨났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나왔을 텐데요. 형태는 그 기존의 아트페어에 맞추되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프로젝트는 애매해지는 것이죠. 너희의 개별성은 만들지만 형태는 아트페어로, 이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큰 단위 지원사업도 그렇지만 대부분 지원사업들이 지닌 모순이라고 봅니다. '공간을 살롱으로 하건, 아티스트런스페이스로 하건 너희들이 자유롭게 해 그렇지만 비영리로 해야 해, 여기서 술을 팔지마, 수익 내지 마'라고 합니다.

— 원래 하려던 좋은 에너지, 아이디어 새로운 방향을 좀 더 수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제도의 보수성이 드러나고 있어서 개선될 필요를 느껴요.

장혜령

— 영리사업들이 수익분기점을 넘긴 적이 거의 없잖아요. (다들 웃음) 애초에 영리이건 비영리이건 남지 않는 장사인데...

연희예술극장

— 듣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아트페어를 할 때 재미있던 일이 기억났어요. 저희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 공간 임대료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10-15일 행사를 하는데 미술판매 수익도 나면 안되는데 뭘 하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냥 '안돼요'라고만 하고 부가세도 안 떼고요. 아트페어를 하면 엄청난 적자를 보거든요. 뜻은 되게 좋아요. 미술작가들이 힘드니까 갤러리는 5:5로 나누니까 3.3%를 제외한 수익을 드리는 거예요. 셋업할 때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사실은 며칠 밤을 새면서 작업하고요, 무용수를 섭외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비용 등은 집행이 되긴 합니다. 아트페어 지원사업은 계속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개선이 필요해요.

— 서울문화재단의 공간지원사업은 요긴하게 잘 썼고 고마웠어요. 그것이 아니면 문을 닫을 뻔했거든요.

공간사일삼

— 저희는 서울문화재단의 공간지원사업을 받고 아르코의 공간지원사업을 받았거든요. 따로따로. 2년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고, 아르코로 넘어갔는데 두 개의 재단을 경험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운영을 하는 동안 기획자의 인건비와 공간 월세가 기본적으로 셋업이 되거든요. 이렇게 오기까지 재단에서 엄청 고민하고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2년 이상을 받을 수 없어요.

— 아르코에서 작년에 공간 지원을 받고 조금 힘들었어요. 인건비 책정이 안돼요. 공간 운영비 지원이 안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지원비 2천만 원을 받으면 일하는 사람과 전시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저희 공간은 그냥 구멍이고 흔적이 남지 않아요. '이것이 공간지원인건가' 생각이 되어요.

— 공간을 지원하려면 공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시스템을 알고 그곳에 어떻게 수혈할 것인지 파악을 해서 제도를 짜야 하는데 아르코는 서울문화재단보다 더 오래 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대안공간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개선이 안되었을까' 생각해요. 예술 행위만 지원하는 거죠. 어떤 제도에서는 이렇게 개선이 되어 있고 어떤 곳은 개선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원하고 있는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 기획을 하는 분들이라 다 아시겠지만, 기획을 0부터 10까지 내가 생각해놓고 만들 계획을 세우면서 '이 컨디션을 다 만들고 싶다', 그래야지만 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획의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그중에 3정도 해야 해요. 30% 성과를 만든다는 예상과 생각을 하면서 지원사업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간사일삼 10주년 기획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고 내용을 담아서 책자와 프로젝트를 진짜 남을 만한 자료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느낌을 줄 만하게 작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따져보는데 말이 안되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 기획자들의 인건비 등 꼼꼼하게 따져보고 기획을 해보니까 예산이 한 전시에 1천만 원 지원을 받는 지원사업으로는 공간에 3백만 원, 디자이너에게 4백만 원 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김지영

— 정책을 지원하는 예산이 내려오는 위쪽에서 큰 예산이 드는 작업을 얘기하면 자기들의 필요, 욕구를 국가와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냐고 물음이 다시 옵니다. 우리의 공적 역할에 대해 다시 쓰지 않으면 계속 되풀이될 것 같아요.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긴 하는데 마지막으로 공간이 가진 공공성, 행위의 공공성에 대해서 의미화 시켜보는 얘기를 모았으면 합니다. 더불어 공공성이 어떤 것을 생산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없는 모두' 이런 얘기를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장혜령

— 여태까지 얘기의 내용이 변화의 속도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방향에 대해서는 열심히 보고 지원이 되고 고맙긴 하지만 지원은 당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사일삼

— 당당한 권리가 맞지요. '공돈인데 고마워해야지'라는 것이 한 가지라도 껴들면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권리이고 만드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걸 우리가 왜 지원해주냐는 말은 함정이고 어떤 것도 그것을 뚫을 수 없어요. 공공성은 개인이 증명하거나 활동가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판단해줘야 합니다.

장혜령

— 증빙이 아니라 다음 세대, 후배들을 위해서 증명을 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가 있어요.

공간사일삼

— 공공성의 증명을 지원받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증명하라고 하면 다같이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권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으로 와전이 됩니다. 개인에게 던져줄 문제가 아니라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파악하고 목소리를 취합해서 제도를 개선해나가야죠. 물론 그 지원사업 제도는 좋은 것이라 생각해요. 타국가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옆의 일본은 지원제도가 부실하죠. 그래서 만드는 작업들이 다 공예화 되었고,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아카데믹한 것들 사이의 간극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라 생각하고요, 이런 가치를 이어받았으면서 그런 함정의 논리를 놓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그 필요한 것이 당연히 공공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개인 사업으로 물건을 파는 행동이 아니라면 그 가치를 지켜보면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보고 개선해나가면 되거든요.

연희예술극장

— 저희 공간은 공공성에 대해서는 취약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을 받고 있지만 예술 쪽의 복지개념을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시스템의 논리가 아니라, 뭐랄까. 자기안의 또라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보았을 때 저희는 빈약하다 보니 좀 더 상업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공공성을 발견하는가는 좀 더 좋은 예술을 만드는 것이 공공성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 친구들만 해도 매일 공연을 보러오는데 처음에는 당구장 갈래라고 하고 영화관에 간 것도 중학교 때 품행제로가 마지막이거든요. 남자애들은 잘 안가요. 걔들이 극장에 와서 살롱 문화를 접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오다 보니까 지금은 재밌어하는 변화가 생겨요.

— 대중들이 다양한 예술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상의 빈곤'이라고 진중권씨가 말했고 요즘은 체험의 시대잖아요. 거꾸로 남다른 뭔가를 가지고 대중이 봤을 때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 체험하고 보는 것의 중요성, 그것이 저희 공간의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사업이 되니까 포기하려던 것에서 기운을 내서 하나라도 더 시도를 해보고 싶고 거기서 다시 물꼬가 터지고 후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타이밍에 아티스트와의 연결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방방곡곡, 로컬문화가 있는데 지역 특유의 보수와 편협한 시각이 있어요. 좋은 양식, 컨텐츠를 디벨롭하면 그 보수성을 깨는데 기여하게 되고 그것이 공공성이 아닐까요.

김지영

어떤 점에서 선생님이 공적 역할을 갖고 있다고 읽게 되었냐면요, 공간을 오픈한 후 일상생활공간인 고기집에서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의 마주침이 다시 극장안에서의 작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지역 내에서의 순환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는데요. 일상적인 공간에서 아티스트와 주민들이 만나서 작품에 대한, 예술에 대한 얘기를 고기집에서 할 수도 있는, 이미 예술적 고민이 극장 바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공적인 의미가 공간 바깥으로 확장해서 다시 공간으로 들어오는 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품의 퀄리티를 지향하는 공공성도 담보하고 있지만 공간의 바깥과 연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점에서 공공성이 있어요.

카페마을

— 작년에 연세대라는 팀이 저희 공간에서 작업했는데, '연극 보러 어느 세월에 대학로'라는 재미있는 이름이었어요. 구성원들이 골목에서 연극 대본도 쓰고 연습도 같이해서 저희 공간을 무대 삼아 공연을 올렸어요. 연세대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저희 공간에 있는 것 같아요.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일상적인 공간이죠. 스치고 가면 안보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이뤄지는 것들이 일상에 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연극도 보고 문화예술 활동도 하고 책도 봐야 해요. 자기 작업도 하고 싶죠.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내 삶의 공간 안에서 이뤄지는 것들이 가깝게 있다는 것이 저희 공간의 특별함입니다. 내 속의 문화예술적인 욕구를 자꾸 보게 되니까요. 빨리 노출될 수 있는 거죠. 작업자들의 작품도 그렇고. 속에서 많이 노출되는 것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카페인데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거창하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의 특성입니다.

책방달리봄

— 저희도 골목 안의 책방이고 커뮤니티가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주제가 명확히 있다 보니 주제로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원하는 것을 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함께 배우는 공간이 저희의 공공성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 또 하나 고민되는 지점은 다 같겠지만 수익성에 관한 것인데 수익을 내는 것도 공간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공간이 지속 가능하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커뮤니티도 하고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려면요.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팔고 카페도 운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익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행사를 열고 모임을 열고 워크숍을 해야 수익이 발생합니다. 최근의 고민은 한국 사회가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료 강연, 무료 공연 등 무료가 너무 많아서 지갑을 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5천 원은 괜찮은데 1만 원, 2만 원쯤 되면 장벽이 됩니다. 어떻게 그 장벽을 무너뜨릴 것인가가 계속 고민입니다. 사람들이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예술을 소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문화 소비를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복지적인 면이 필요하지만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비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다양한 지역의 문화공간이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지원사업을 할 때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저희는 공간 임대료는 거의 안나와요. 퍼포먼스를 하는 예술가들에게 주는 돈은 나와도요. 그러면 만약 그 행사를 했을 때 유료 행사로 열 수 있다면 달라질 것 같아요. 방향성이 조금씩 다르게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직접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요. 적정한 비용을 지급하며 향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간사일삼 —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공공성을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와 나라의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받고 하는 사업이 서비스죠. 공간에서 관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고 하면 나와 공간의 주체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공공의 주체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가 공공지원사업으로 공간을 운영하면 공공 공간이 되는 거죠. 행정에서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주는 공간을 비영리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비영리공간이 되면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의 공공을 서비스와 연결하는 태도 자체에서부터, 그 방향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장혜령 — 문화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의 수단으로 무료제공은 단순한 생각이죠. 거기에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라던가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돈을 써보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그런 판을 벌리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 영역을 넘나들지 않고 바운더리는 존중하면서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되면 되는데요.

공간사일삼 — 우리가 만드는 것은 퀄리티의 문제, 컨텐츠의 확장성, 이상한 것에 담기는 아무 곳에서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어야 하는데, 서비스의 영역을 말한다면 '너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살아남지'라는 요구가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자본을 투여해서 만드는 문화예술의 확장성과는 다른 별개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별개로서 담을 수 있는 예술성도 있고 그런 작업을 통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차원이 아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김민영 — 저희 팀에서 진행하는 연구사업 중에 지역극장 관련된 것도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대학로에 있으면 로컬,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영등포, 목2동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로컬성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일반 관객뿐 아니라 지역 사람들, 시민을 만나야한다, 하는 것이 의지나 사회적 명성의 욕구와 상관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로컬을 생각하는 순간 공공성은 생기는 게 아닌가해요. 어떤 지역, 로컬리티를 기반으로한 공공성이요.

공간사일삼 — 로컬리티를 만드는 것이겠죠. 영등포에 있다고 사람들이 다 쪽방에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래예술공장에서 나오는 사업을 보면 문래동의 지역성과 꼭 연관이 되고 붙어야 해요.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문래동은 예술씬에서는 폐쇄적이라고 해요. 전혀 재미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로컬리티를 베이스로 놓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예술가들에게는 족쇄이고 재미있는 것을 만들 수 없는 프레임입니다.

장혜령 — 로컬리티라는 말을 쓰지만 주소지, 그 반경 안에서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페미니즘을 관악구에서만 풀면 은평구, 마포에서는 어쩌라고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기 중에 떠 있는 어떤 층, 시민들의 집단 커뮤니티성을 혼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공간사일삼 — 로컬리티가 상업아이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래동은 그렇게 접근하니까 도시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요. 재개발 이슈와 닿아버려요. 서울문화재단은 로컬리티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민지 — 주임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역주민들이 관객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을 해석하는 것이 정책중심이어서 현장을 더 많이 담지 못해서 조금씩 진행하는 것입니다.

카페마을 — 획일적이고 덩어리의 느낌에서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 것을 로컬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요. 로컬을 지역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다양성이라고 해야 맞겠다 싶어요.

장혜령 — 문래동 을지로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브랜딩 사업은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수혜를 받는 누군가는 있겠죠. 우리를 한꺼번에 묶어서 카테고리화 하는 오류는 행정에서 계속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향유하는 주민들이 있고, 쫓겨나는 사람도 생기고, 100% 모두에게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있어요.

공간사일삼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뭔가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그런 논리로 볼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단을 내리고 '문제다' 하면 안 해야 하는데, 공간을 운영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장혜령 — 당연하죠. 유기적이고 살아있음을 연장하는 당연한 부분이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사일삼 — 자료에 들어갈 것이니까 제가 좀 더 세게 말씀 드렸습니다. (웃음)

장혜령 — 귀찮고 말이 안 먹혀도 계속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한민지 — 현장을 볼 때도 느리게 봐야 하지만 저희 행정도 느리게 느리게 가는 것이 있어요. 서로를 좀 더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기존 정책에서 변화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많이 갖는 과정이고 과도기인 것 같아요.

■ 사회자 마무리

김지영 —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부록3 2019년 서울 지역현장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서

운영현황	공간명		공간 주소	
	설립연도		운영단체/회사	
	대표자명		연락처/이메일	
	운영목적			
공간현황	공간 특성	공간의 위치, 지역에서의 위치, 층수, 주민의 접근성 등 기술		
	소유방식	☐ 자가 ☐ 월세(임대조건) ☐ 전세(임대조건) ☐ 기타:		
	주된 공간 목적 (3가지)	☐ 커뮤니티활동 ☐ 교육 및 학습활동 ☐ 인문 및 도서활동 ☐ 시각예술 전시 및 관람 ☐ 동아리 활동 ☐ 공연예술 공연 및 관람 ☐ 영상예술 상영 및 전시 ☐ 공작 등 작업 활동 ☐ 휴식 및 만남 ☐ 기타:		
	공간 구성	공간의 구성, 공간의 배치의 특이성 혹은 공간의 다양한 활용 방식 등 기술		
	운영비 조달방식 비중	☐ 자체수익사업 (___%) ☐ 회원(후원)회비 (___%) ☐ 공모사업 (___%) ☐ 기타 :		
	공간 규모	_____ 평방미터	공간공유여부	☐ 공간전체 ☐ 공간일부 ☐ 상시개방 ☐ 특정시간/요일
프로그램현황	주된 영역 (3가지)	☐ 음악 문학/독서 ☐ 미술/디자인 ☐ 공예/조형 ☐ 영상/사진 ☐ 춤/연극 ☐ 답사/여행 ☐ 사회/학술 ☐ 환경/생태 ☐ 놀이/축제 ☐ 음식 ☐ 체육/건강 ☐ 복합: ☐ 기타:		
	프로그램 기대효과 (3가지)	☐ 놀이/재미 ☐ 예술활동의 지속 ☐ 자기만의 취미 ☐ 여가생활의 풍성 ☐ 자기성장과 발전 ☐ 공동체 활성화 ☐ 협동의 생활 ☐ 관계망 구축/유지 ☐ 시민의식의 발전 ☐ 마을경제 활성화 ☐ 기타:		
	프로그램 기획방식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주체현황	주체가 생각하는 공간의 비전		공간운영위원회 여부	
	운영위/직원 (3인)	이름 / 직업 / 공간내 역할 / 비고		
이용자	공간 이용자 특성	이용자연령층	☐ 20대 미만 ☐ 20-30대 ☐ 40-50대 ☐ 60대 이상 ☐ 기타:	
		이용자 지역	☐ 동네권 ☐ 기초권(자치구 내) ☐ 서울전역 ☐ 기타:	
공간지속운영을 위한 필요한 요소		☐ 공간의 자립/자생력 확대 ☐ 지역문화예술공간운영자네트워크 강화/확대 ☐ 공간지원정책 확대 ☐ 지역문화예술공간 공동 플랫폼(온라인) ☐ 기타(자유롭게 기술) :		
비고 (특이사항/참고사항)				

인터뷰에 참여한 분들

공간 운영자

갈승근 즐거운가
김건아 무대륙
김선문 17717
김선형 탈영역우정국
김세희 꿈꾸는다락방
김정은 이너프라운지
김준수 공간사일삼
김하나 네스트나다
서상혁 복합문화예술공간 행화탕
선경희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
신재철 연희예술극장
심은선 동네형들 공동대표
안종현 스페이스55
우미선 문화공유공간 산책
윤준혁 아카이브 봄
이연수 카페마을
이재림 재미공작소
임성연 카페보스토크×스페이스공공연희
전세훈 성미산마을극장
정종현 우리동네나무그늘
정혜진 안티카페 손과얼굴
정희영 반디극장
주승리 책방 달리, 봄
최소진 마을극장 수유리
하장호 미인도
허선희 공간릴라
홍연서 달꽃창작소

2019
서울 지역현장
문화예술공간의
실태에 관한 연구

발행인 김종휘(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연구기획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김진환, 한민지, 유민성)
연구진행 문화디자인자리
책임연구 최혜자(문화디자인자리 대표)
공동연구 김성진(사람 잇 공동대표)
김지영(플러스마이너스1도씨 공동대표)
장혜령(사람 잇 공동대표)
최 진(서울대학교 예술교육철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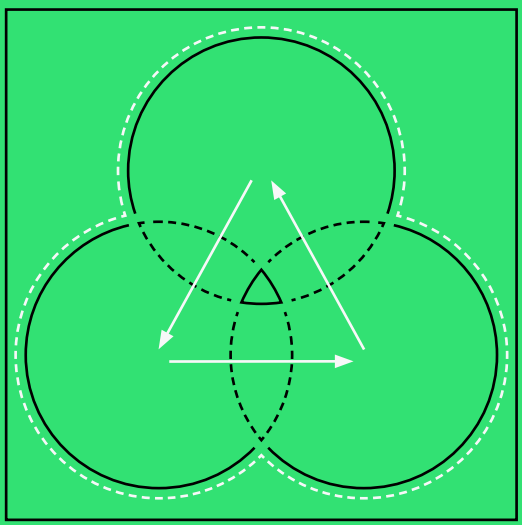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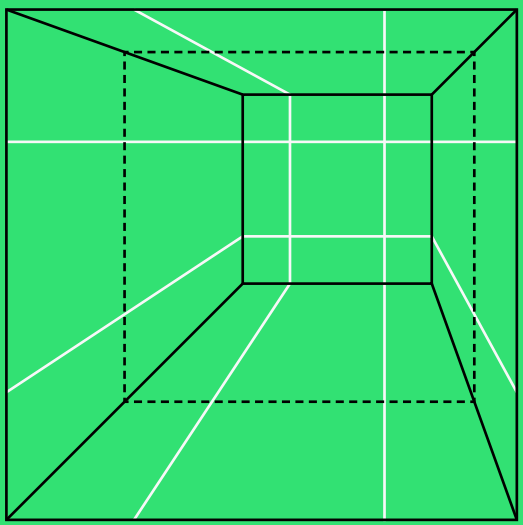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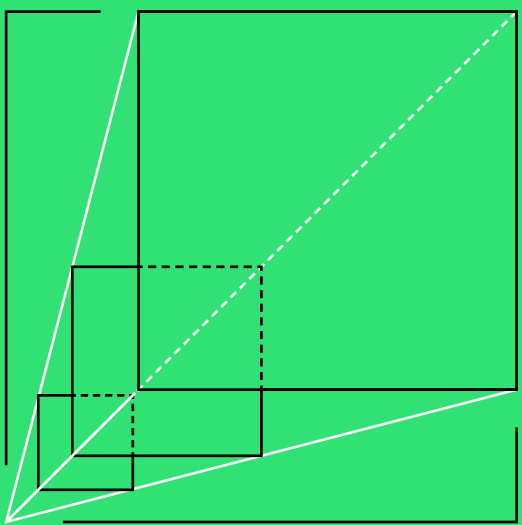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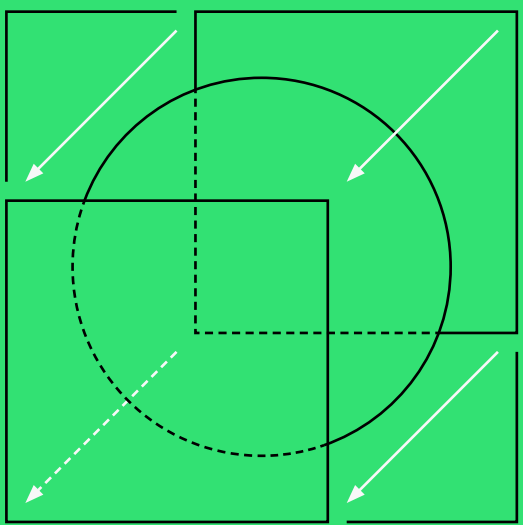
보조연구 이라선영(문화디자인자리 사업팀장)
지휘석(문화디자인자리 연구원)
안세영(문화디자인자리 인턴)

디자인 LIFT-OFF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발행일 2020년 6월 8일

서울문화재단
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www.sfac.or.kr

ISBN 979-11-86489-24-6

본 보고서는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비매품/무료
13600
9 791186 489246
ISBN 979-11-86489-24-6

www.sfac.or.kr